

진리의 기둥과 터

Pillar and Ground of the Truth

하나님을 아는 것

연말기도주일, 2023년 12월 1일 ~ 10일

하나님을 아는 것

편집부

하나님을 아는 것

누구와 대화하고 친구가 될지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사회 매체는 일반적으로 빠르고 빈번한 교통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태도에 다소 혁명을 일으켰다. 어떤 경우든, 사회 매체, 전화, 문자, 편지 또는 직접 대면을 통해 좋은 진실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 삶에 진정한 격려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거짓된 친구나 유독한 지인은 낙담이나 심지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상호 작용의 양, 강도 및 빈도는 모두 차이를 만든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삶의 어떤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다른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고전 15:33). 사단은 대리자들을 통하여 이 청년들을 파멸시키고자 역사하였다. 그 어떤 것도 헛되고 부주의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지한 인상과 선한 소원을 가로막거나 없애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들이 다른 면에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친구로서의 그들의 감화력에 대해서 더욱 더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건치 못한 생활에 대하여 그토록 위험스러운 매력을 던져 주기 때문이다.” -교회증언 3권, 126.

놀라운 대조

하지만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분과 의사소통을 하고 아주 잘 아는 법을 배운다면 어떠한가? 비할 수 없는 축복이다! 우리의 창조주와 밀접하게 교통함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은 활발해지고 활기를 띠게 되며, 우리의 도덕적 나침반은 바로 잡히고 우리의 마음은 정화된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에게 독특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노라’ (렘 31:3).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하라.” -편지와 원고 6, 서신 31, 1889.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 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그분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가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나타날 때에 그의 생애 가운데는 검소(儉素)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그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또 그분에게 배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실물교훈, 129, 130.

이것이 세상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즉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의 선교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 주심은 ‘이른 비’였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교회증언 8권, 21.

이른 비의 때에 사람들의 경험이 오늘날, 참으로 훨씬 더 많이 되풀이되기를 바란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행 4:13, 강조체 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낮추고 개인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구하면 인간의 입술에서 성경에 표현된 것과 같은 증언을 듣게 될 것이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나는 얼굴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하는 거룩한 불이 닿은 입술의 증언이 있을 것이다.” -E.G.화잇 1888 자료집, 1008.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인가!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된다. 같은 소중한 믿음을 가진 다른 신자들과 교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연말기도 주간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한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분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특별한 낭독문에 참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 속에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야 할 교훈들이 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이것이 참 교육이다. 이 교육은 힘을 준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하에 두도록 한다. 이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무한하신 자와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우주의 풍성한 보화를 열어 보여 줄 것이다.” -실물교훈, 114.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목표에 마음을 쏟고, 고립되어 있거나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낭독문을 나누고 다음 날짜를 기억하자.

금식 기도일: 12월 9일 안식일

선교 연금일: 12월 10일 일요일

이번 기도 주간을 통해 우리 각자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지식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높이 들리운 영원한 진리의 토대,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신다. 그들은 의견이 일치할 것이다. 곧 이 사람은 이것을, 저 사람은 전적으로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앙과 견해를 견지하고, 각자가 몸으로부터 독립하여 움직이는 불일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두신 다양한 은사들과 다스림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 신앙의 일치에 이를 것이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29.

책을 열며 2

2023년 연말기도주일

12월 1일 금요일
하나님과의 대화 4

12월 2일 안식일
죽이는 지식 10

12월 3일 일요일
하나님은 그대를 알고 계신가? 15

12월 6일 수요일
문제의 참된 원인 21

12월 8일 금요일
구세주를 만남 27

12월 9일 금식 안식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33

12월 10일 일요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39

2023년 기도력 45
그리스도를 높이라

하나님과 대화

엘렌. G. 화잇 저서로부터 발췌함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불꽃이 인간의 몸에 불어넣어져 인간을 산 영혼, 도덕적 자질의 소유자, 자신의 행동 방향을 지시하려는 의지를 갖게 하셨다. 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에게 악을 정복하고 선을 사랑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옳은 것을 인정하고 그른 것을 정죄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다. 그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거룩한 교제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영문시조, 1897.8.26.

열린 관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유혹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록되었으되’가 없었지만 하늘에 계신 동반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상담자로 삼고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에녹은 그의 행로에서 영예를 얻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마지막 때에 승천할 사람들은 지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영문시조, 1897.11.11.

“하나님께서서는 천연계와 계시(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섭리와 성령의 감화로써 우리에게 말씀

하신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넉넉지 않으니,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그의 앞에 토로(吐露)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영적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실제적 교제가 있어야 한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를 사모하기도 하고 그의 업적(業績)과 그의 자비와 그의 축복에 대하여 묵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의 실생활에 대하여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93.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기다리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듯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資源-富力, 智等의)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든지, 알고 지은 죄를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회오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는 언제든지 받으실 것이다. 모든 아는 죄를 바로잡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정로의 계단, 95.

지속적인 접촉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아무 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성 있는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거리의 사람이 많은 곳에서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중에서도 우리는 옛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왕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지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정로의 계단, 99.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라. 그대들은 그를 괴롭게 하거나 괴곤케 할 수 없다. 그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는 그분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약 5:11).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 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너무 과대(過大)한 것은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들을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심이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나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정로의 계단, 100.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를 깨닫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는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증하셨으므로, 그 말씀은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다.

만일,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일을 주체넘은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품성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축복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대가 반드시 이행될 약속을 따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신다. 그대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자체가 그분의 자비와 동정을 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대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조건은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 그대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악에서 순결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든지 간구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크게 부족한 상태 곧 우리의 속절없는 처지이다.

‘**찾으라!**’ 하나님의 축복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욥 22:21).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대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이끄심에 순복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유혹 받고 실수하고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그분과 교체할 수 있는 위치까지 높이기 위해 애쓰고 계신다.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대상 28:9).

‘**두드리라!**’ 우리는 특별한 초청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알현실로 영접하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자비의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면서, 주여,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열릴 것이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주장하게 하라.” -산상보훈, 130, 131.

“우리 인류의 만형님께서는 영원한 보좌 곁에 계신다. 그는 구주가 되시는 그분께 얼굴을 돌이키는 각 사람을 바라보신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약점과 필요가 무엇이며 어디에 시험을 대항할 힘이 있는지를 경험을 통하여 아시는 바이는 그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지켜보신다.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가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무지한가? 그가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다. ...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라. 그대의 마음에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곤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자신이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대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그대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짐지시는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써 더욱 편안한 안식의 축복을 얻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329.

최고의 경건

“겸손과 존경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특징지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는 안 된다. 가까이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느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와 그들과 동등한 사람이나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조와 선지자, 252.

“우리의 창조주를 위한 경외심이 점차로 결핍되어 가고 있으며 주님의 위대하심과 존엄하심에 대하여 점점 냉담해 가는 상태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 후에 작은 음성이 들릴 때 모든 영혼들은 저들의 얼굴을 가리워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의 피난처가 되시므로 저들은 스스로 주님 안에 자신을 숨겨야 한다. 겸비한 탄원자가 주님께서 그분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몸을 굽힌 자세로 기다릴 때 못자국이 있는 주님 자신의 손으로 숨겨놓으신 암혈(岩穴)을 찾아 그 속에서 은거하게 될 것이다(왕상 19:9참고).” -가려 뽑은 기별 2권, 316.

큰 특권

“우리가 힘있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즉 아

무 가치 없는 흠 많은 죽을 인생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보다 무슨 더 큰 능력을 바랄 수 있겠는가? 약하고 죄 많은 인간은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우리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예수님과 이야기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네 우편에 있노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벗삼아 길을 걸을 수 있다. 우리가 날마다 직무를 행할 때에도 마음속의 소원을 조용히 기도 드릴 수 있으며,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으나 결코 소리 없이 사라지거나 듣지 못하게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심령의 기도 소리를 막지 못한다. 그것은 번잡한 거리의 소음과 요란한 기계 소리를 초월하여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들으시는 바 된다. 그러므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겸손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의 증가를 위하여 기도하라. 신실한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응답이 비록 바라는 때에 꼭 바라는 바대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응답은 그대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이르러 올 것이다. 고독한 때와 피로한 때에, 또는 시험당하는 때에 드리는 기도가 항상 기대하는 바대로 응답되지는 않을지라도 항상 그대에게 유익 되도록 응답된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50.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그대는 기도하기 위하여 항상 무릎을 꿇을 수는 없지만, 그대의 침묵의 탄원은 힘과 지도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 그대가 시험을 당할 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피할 수 있다. 그분의 영원하신 팔이 그대 아래 있을 것이다. ...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자주 기도로 주님을 찾으라. 은밀한 곳에서 오직 눈은 예수님을 보고 귀는 예수님께 열린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 위해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서 나아오라. 시험이 오지만 그대는 예수님의 편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 그대의 손을 그분의 손에 얹으라. 그러면 그대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그

분의 자비 안에서 기뻐하면서 풍성한 경험을 얻게 된다. 걱정과 당혹감과 염려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 영혼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에 민첩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것이다. 모든 비판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은 영혼으로부터 사라질 것이다.” -하늘에서, 86.

공중기도

“모든 사람은 짧게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느껴야 한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지 말고 그대가 원하는 바로 그것만을 주님께 말하라. 개인 기도에서 모든 사람이 그들의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길게 기도할 특권과 솔직하게 기도할 특권을 가진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친척들과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골방은 그들의 모든 사사로운 어려움, 시련, 유혹을 고할 장소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일반적 모임은 마음의 사적인 일을 열어 놓을 장소가 아니다. ...

함께 모이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함으로써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인가? 우리는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교환함으로써 피차간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또한 서로의 희망과 포부를 앞으로 힘과 빛과 밋 용기를 모으기 위하여 모인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드러지는 우리의 열렬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힘의 근원으로부터 원기의 회복과 활력을 받는다. 이러한 모임은 가장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며, 영적 사물에 대한 취미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흥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개인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그것을 기도회를 위하여 남겨 두었다가 거기서 며칠 동안 기도를 하는 이들이 얼마간 있는 듯하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총회나 기도회의 방해자라는 이름을 붙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빛을 전혀 내지 못하며 아무에게도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들의 냉랭하고 얼음 같은 기도와 길고 퇴보적인 간증은 그들만 드리운다. 그들의 기도나 간증이 끝나면, 모두가 기뻐한다. 그들의 기도와 훈계가 모임에 가져 온 냉기와 어둠을 벗어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내가 받은 빛에 의하면, 우리의 집회는 신령하

고 화기애애한 것이어야 하며 너무 길지 않아야 한다. 침묵, 교만, 허영,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집에 두어야 한다. 사소한 불화나 편견은 이러한 집회에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빛을 가져옴으로써 원기가 회복되고 활력을 얻기 위하여 모이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는 연합한 가정에서처럼 단순과 온유 및 확신과 사랑이 깃들어야 한다.” -교회증언 2권, 578, 579.

개인기도

“가정 기도나 공중 기도로는 불충분하다. 은밀한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홀로 있을 때에 영혼을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길 앞에 있는 그대로 펴놓고 모든 동기는 점검된다. 은밀한 기도!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혼! 은밀한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만 들리게 해야 한다. 그러한 탄원의 소리를 호기심 많은 사람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은밀한 기도를 통하여 영혼은 주위의 영향과 흥분으로부터 자유롭다. 고요히, 그리고 열렬하게 그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은밀한 기도는 큰소리를 냄으로써 상하게 되고 달콤한 맛을 잃는다. 하나님께 대한 조용하고 침착한 믿음과 신뢰 대신에, 영혼이 낮고 겸손한 음조를 내는 대신에, 목청을 돋구며, 흥분을 장려하게 되면 은밀한 기도는 부드럽게 하는 거룩한 감화력을 잃는다. 감정의 폭풍우와, 억수 같은 말은 은밀하고 참되며 감동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 영혼에게 속삭이시는 잔잔하고 작은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 은밀한 기도를 제대로 하면 참 좋은 열매를 많이 얻는다. 그러나 가족 전체나 이웃에게 들리도록 하는 기도는 은밀한 기도가 아니다. 은밀한 기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여서는 거룩한 힘을 얻을 수가 없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감화력은 달콤하며 지속적인 것이다. 그분의 귀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듣기 위해 열려져 있다. 은은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단의 투쟁을 견디기 위해서 영혼을 강인하게 하며 견고케 하기 위해 거룩한 빛을 모아 들인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성체이시다” -교회증언 2권, 189, 190.

“하나님의 눈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귀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는 가장 깊이 감추어진 우리의 욕망과 소원을 무한히 자비하신 아버지께 쏟아 놓을 수 있다. 그리하면 인간의 필요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음성이 영혼의 고요와 침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실 것이다. ...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필요를 주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그 간구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산상보훈, 85.

모본 기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맡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고 무력한 그대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또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힘을 의지하고 나로 더불어 화친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가 나와 화친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회중의 청원이 주님의 보좌 앞에 능력으로 상달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손을 내밀고 말씀하시며 ‘내가 저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떠나가는 이들을 위한 우리의 청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의가 그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그들의 뒤에 있을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영혼이 주님의 우리 안에 모이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하옵나니 이 온 회중에게 이 안식일에 주의 거룩하심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 하늘의 빛이 이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곳을 떠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의 간구를 제시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책임지고 오늘 봉사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오, 주님,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잠시 후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봉사에 적합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그들 앞에서 길을 예비하옵소서. 그들은 자신의 국

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제시하는 방법을 배워 왔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도와 주시겠습니까?

주여,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교회를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옵소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위해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소생시키는 능력을 주실 것임을 압니다.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사렛 예수를 위하여 온 회중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그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주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그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머리털이 밤이슬에 젖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시는 구세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회중의 모든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시고, 현금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토록 훌륭하게 도움을 준 우리 백성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름이 그들에게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 나의 아버지여, 주님은 그들에게 선물 위에 선물을 주시고 이슬과 햇빛과 소나기의 축복을 주시어 그들의 밭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겸손하게 이웃을 방문하고, 병든 자를 돕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선교 사업을 하는 이 회중에게도 하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청원을 여러 번 들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입증될 것임을 압니다.

여기 있는 죄인들을 축복하옵소서. 이곳의 젊은이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들이 교육을 받기 위하여 우리 학교에 갈 때 그들을 교육시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선교사가 되도록 하옵소서. 있는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자비의 팔로 감싸시고 자유롭게 사랑하옵소서. 그리하면 인간 가족이 주님에 의해 집으로 모일 때, 즉 우리가 왕가의 일원으로서 하늘 왕의 자녀로 연합

할 때 주님의 복된 이름이 모든 영광을 받을 것이 옵니다..

오,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시는 구세주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십시오. 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는 이 선교사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질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서만이 그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축복된 이름이 이제와 영원토록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으십시오. 아멘.” -원고 모음 4권, 294-296. 📖

“예수님께서서는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지켜보신다.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가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무지한가? 그가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예수님께서서 고쳐 주실 것이다.”

죽이는 지식

롤리.C.두마겟
대총회 제1부회장

에덴의 위기

에덴동산에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심으신 특별한 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 첫 번째는 젊음과 불멸의 샘인 치유력이 있는 생명 나무였고, 두 번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하와는 “뱀에게 미혹되어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할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줄로 생각했을 때 이 두 번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열하게 불신하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다.” -에덴의 신 1권, 40.

“여기서 거짓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주장했다. 사단은 하와가 불멸로 창조되었으며 죽을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시켰다. 그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들의 이해력이 밝아지고 확장되고 고상해져 그들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그녀에게 말했다.” -대결, 13.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는 처음에 새롭고 더 높은 존재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상상했다. 그러나 곧 그의 범법에 대한 생각이 그를 두렵게 했다. 온화하고 고른 온도의 공기가 그들을 식히는 것 같았다. 죄를 지은 부부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궁핍감, 영혼의 적나라함을 느꼈다. 달콤한 사랑, 평화, 기쁨, 만족스러운 행복이 그들에게서 제거

된 것 같았고, 그 자리에 전에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의 결핍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그런 다음 그들은 처음으로 외양에 관심을 돌렸다. 그들은 옷을 입지 않았지만 하늘의 천사들처럼 빛을 입었다. 그들을 감싸고 있던 이 빛은 떠났다. 그들이 깨달은 결핍감과 벌거벗음을 해소하기 위해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형태를 가리는 데로 향했다. 그들이 어떻게 옷을 벗고 하나님과 천사의 눈을 대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범죄는 이제 진정한 빛으로 그들 앞에 있다. 하나님의 명시적인 명령에 대한 그들의 범법은 더 분명한 성격을 띠고 있다. 아담은 하와가 자신의 곁을 떠나 뱀에게 속은 어리석음을 책망했다. 그들 모두는 그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크신 사랑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을 용서하실 수 있으며 결국 그들의 형벌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우쭐대었다.” -에덴의 신 1권, 41.

이제 그들의 존재에 새로운 성향이 생겼다. 악을 향한 경향이 형성되었다. 이제 그 경향은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그들은 새로운 수준의 죄악을 경험했다. 잘못을 저지르는 새로운 지식.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제가 풀릴 때까지 사단의 영향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지식, 즉 범법의 결과를 알기 위해 거짓 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SDA성경 주석[화이트주석] 1권, 1083.

홍수 전

“인류는 아직도 그 초기의 활력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 신장과 체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결출하고, 가장 정교하고 놀라운 일들을 고안하는 데 재간이 있는 거인들이 많았다. 죄악을 엄격하게 제어하지 않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재간과 정신적 능력에 비례했다.

하나님께서서는 홍수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많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스럽게 하는 데 사용했으며, 그들의 애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물에만 뉘으로써 그것들을 저주로 만들었다. …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그들은 얼마 안 있어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연계를 숭상하였다. 그들은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하였고 자녀들에게 아로새긴 우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쳤다. …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밖에 두고 그들이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들을 숭배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 만일 마음이 보통 인간성의 수준 이상으로 높여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도록 높여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계속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게 될 것이다. …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계명을 생애의 법칙으로 주셨으나, 그분의 율법은 범해졌으며 그 결과 생각해 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나타났다. 사람들의 사악함은 공공연하고 담대하였으며, 공의는 땅에 짓밟히 바 되고,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90, 91.

나중에 그들은 잘못된 결혼 관계에 대한 금지된 지식을 탐구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와는 반대로 일부다처가 매우 일찍이 시작되었다. 주님께서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심으로 그것에 관한 그분의 규칙을 보이셨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적인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결혼 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

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으시대며 자랑했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91, 92.

성(性)에 대한 이 금지된 지식에 대한 탐구는 일부다처제로 끝나지 않았다.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킨 다른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도처에 혼란을 야기한 사람과 짐승의 결합이라는 비열한 범죄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서 그들의 길을 더럽혔던 강력하고 장수한 종족을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예언의 신 1권, 69.

새롭고 발전하는 지식을 찾기 위한 탐구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목마른 지식은 거짓의 아비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곧 그들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창 6:13). 지식을 잘못 사용한 결과를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다.

바벨탑

홍수가 지나간 후,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율법의 제지를 벗어 버리기를 갈망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형제들의 교훈과 모본을 늘 귀찮게 여겼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분리되기로 결정하였다. …

그들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의 경이가 될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업은 백성들이 각지에 널리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계획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지시 하셨었다. 그러나 이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 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

시날 평야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의 존재를 부인하고, 홍수를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돌렸다. 다른 사람들은 지존자가 계심을 믿고, 홍수 전 세상을 멸망시키신 분이 바로 그분임을 믿었으나 가인처럼 그들의 마음은 그분께 대한 반역으로 일어섰다. 탑 건축에 있어서 그들이 염두에 둔 한 목적은, 또다시 대홍수가 일어날 경우에 그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홍수의 물결이 닿은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건축물을 만듦으로 그들은 그들이 어떤 위험도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부조와 선지자, 118, 119.

건축 및 구조 설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발명되었다. 이 거대한 탑을 건설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지시하는 지식도 개발되었다. 곧 새로운 형태의 군주제 정부가 도입되어 한 사람이 왕이 되고 그들의 도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대도시가 되었다.

“그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던 공사가 갑자기 중지 당하였다. 천사들은 건축자들의 목적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탑은 매우 높이 솟아올라 꼭대기에 있는 일꾼들이 아래에 있는 자들과 직접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지점에 배치되어 각기 필요되는 재료들의 주문이나 공사에 관한 다른 지시들을 받고, 자기 다음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였다. 이와 같이 기별들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질 때 이상하게도 언어의 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필요 없는 재료가 주문되었고 전달된 공사의 지시가 주어진 지시와 정반대되는 일이 잦았다. 혼란과 낭패가 잇따랐으며, 모든 공사는 곧 답보 상태에 있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조화나 협력이 있을 수 없었다. 건축자들은 그들 사이에 있는 이상한 오해들의 이유를 도무지 밝힐 수 없었고, 분노와 실망 중에 그들은 서로 비난하였다. 그들의 공모는 투쟁과 유혈로 종말을 고하였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의 증거로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 탑의 상부를 파괴하여 땅에 떨어뜨렸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119, 120.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

셨을 때 바로를 포함한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임을 인정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자유롭고 행복하며 건강한 백성이 되도록 속박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되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을 다스릴 법과 그들의 영적 길을 인도할 법령을 주셨다. 그분은 그들의 성품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 그들을 2주 동안에 가나안으로 곧장 인도하는 대신에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셨다.

시내 산에 도착한 주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모세가 산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가 더디 오는지 초조해하였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할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아론이 2인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다.

“아론은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당히 일어서지 못하고 군중의 요구에 굴복했다. ... 그는 애굽의 신들을 모방하여 송아지형상을 부어 만들었다. 백성들은 선포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매 아론은 비열하게 여호와께 이 모욕을 허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했다. 그는 금신상을 백성들이 얼마나 만족스럽게 환대하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고 선포하였다. ... 저들은 여호와의 절일이라는 구실아래 폭식과 경박한 주연에 스스로 빠져 들어갔다.” -투쟁과 용기, 97.

그들은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충성에 그들의 믿음을 두는 대신에 거짓 신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들은 폭식과 방탕에 관한 금단의 지식으로 끝을 맺은 잔치를 베풀었다. “경건의 모양”으로 가장한 쾌락의 사랑! 사람들이 숭배 의식을 지키면서 이기적이거나 관능적인 만족에 자신을 바치는 것을 허용하는 종교는 이스라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그리고 유연한 아론이 있었는데, 그는 교회에서 권위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헌신하지 않은 자들의 욕망에 굴복하여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격렬하고 난잡한 축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두 개의 돌 판을 가지고 진영에 도착했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노가 심히 타올라 돌 판을 들어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 시내에 뿌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게 하여 그들이 섬기던 거짓 신이 전혀 무가치함을 보이게 하였다.

거짓의 아버지의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거듭 반복되었다. 이 경우에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신에 말 못하고, 움직이지 않고, 녹여서 조각한 애굽의 신이 그들을 애굽으로 다시 인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한 지식이 멸망으로 귀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로마 권력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희망이었다. 그러나 구세주의 사명의 진정한 목적은 성소 봉사를 통해 알려졌다. 모든 희생 제물은 구세주의 오심을 예표했다. 유월절 양과 예배는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이러한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선지자들은 수세기에 걸쳐 이것에 대해 많은 세부 사항을 밝혔으며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탄생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목자들의 소식과 동방 박사의 특별 강림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열두 살 때 성전에서 만났고, 랍비 학교에 다니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에 대한 그분의 지식에 놀랐다. 그들은 신성한 치유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특징지어지는 그분의 사역을 보았다. 그들은 그분이 위대한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큰 권위로 성전을 두 번이나 정결케 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다. 참으로 메시아가 오셨으나 그들은 거짓의 아버지의 지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가 부유한 가정에서 나와야 하고 왕족이며 고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유지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가 이 모든 요구 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

들은 그분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철저히 미워했다. 그것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한 그들의 결정을 촉발시켰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는 그들의 사단적인 외침은 메시아를 잘못 식별했다는 잘못되고 운명론적으로 추정된 지식 때문에 40년 후 그들의 도시와 성전에 닥친 끔찍한 재난에 메아리쳤다!”

우리 시대에

파괴적인 지식에 대한 탐구는 우리 시대에 훨씬 더 널리 퍼졌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서는 주의 큰 날이 오기 전에 세 천사의 기별을 보내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들의 특별한 기별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계 14:7).

이 기별을 처음 선포한 직후에 사단은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라는 지식을 파괴하기 위해 특사를 보냈다. 1859년 영국 과학자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은 모든 종(種)이 진화했다는 진화론의 토대를 마련한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또는 생명을 위한 투쟁에서 유리한 인종의 보존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다. 만들어졌 다기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교육 기관은 이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

사단은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또 다른 학파를 만들어 냈다. 이 철학은 소위 “계몽주의 시대”인 18세기에 촉진되었다. 이 개념을 받아들인 정치 운동은 프랑스 혁명의 무법으로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약 4억 5천만에서 5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무신론을 고백한다.

사단은 여전히 자신의 발명품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 우주 및 세계가 본질적으로 신성 자체이며 이것이 초자연적 존재 또는 실체로서 태초 이래로 여전히 확장되고 창조되고 있다는 믿음인 범신론을 도입했다. 또는 모든 것이 모든 천체를 포함하는 신의 현현으로서 우주 자체와 함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내재적 신 또는 여신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 생각은 존 하비

켈록 박사를 통해 초기 재림교단에 스며들었고, 많은 목사들과 교사를 포함하여 4,000명이 넘는 교인들의 신앙을 떠나게 했다.

사단이 발명한 또 다른 학파는 소위 하이페리안 주의이다. “당신은 신성하다. 당신은 신이 되어가고 있다. 경배할 조물주 하나님은 없다. 물질 너머에는 비물질적인 영역이 존재한다: 근원적 실재. 당신은 환각상태, 주파수 상태, ... 뇌의 축소 밸브를 풀면 마음의 내면 영역과 내면의 신을 경험할 수 있다.” - <https://www.iamhyper-ian.com/youaregod/>

이교도 외에도 사단은 택함 받은 자들을 속이기 위해 교활한 형태의 종교를 더 많이 발명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교회가 이 행성, 지구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이 신자들을 흔들어서 구별되고 분리된 그룹을 형성하여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분의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재림신도라고 공언하는 여러 다른 종파들이 각각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셨다. 그는 또 다른 종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진리를 그들에게 주셨다.” - 초기문집, 124.

결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줄곧 인류에게 왜곡된 지식을 주입해 왔고,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며, 신이 될 것이며, 너희는 신이고, 자연은 신이며,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많은 박식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대는 그러한 개념을 받아들일 책임이 있는가? 사단의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은 더 큰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단이 발명한 지식을 선택한다면 결국 우리는 멸망의 확실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말 4:1 참조).


“사람들이 영생의 문제에 직면해서 그들의 과

거 행실을 회고해 보고 비통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저희의 전 생애가 사실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때에는 세속적 쾌락과 부귀와 명예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저희가 업신여겼던 의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때에 그들의 품성이 사단의 기만적인 유혹의 지배를 받아 형성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저희가 선택한 옷은 최초의 배도자 사단에게 충성을 바쳤다는 표지(標識)가 된다. 그 때에 그들은 저희가 선택한 일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 실물교훈, 318, 319.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하신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맞보아 알지어다”(시 34:8)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출 20:3)라고 선언하신 창조주만을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라고 설명하셨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분께 최고의 봉사를 드릴 수 있다. 어느 날 그분은 우리를 그 도시의 성문으로 초대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내어주시고 참된 지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우주의 모든 보물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의 연구를 위해 열릴 것이다. ... 만물 위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능력의 풍성함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368.

이번 기도 주간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하시기를 바란다! 아멘. 

하나님은 그대를 알고 계신가?

조안 셀브 알윈
타밀어 편집자, 인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영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거나 “전지하심”이시라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요일 3:20)

이것은 그분이 모든 것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한다. 그는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으며 사물을 추리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일어날 일과 일어난 일을 모두 알고 계신다. 그의 전지하심은 그가 완전한 지식, 완전한 이해,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창조의 모든 이해 가능성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상 모든 지식이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그분은 확실히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욥 28:24)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지기 전에 우리를 아신다: 다윗 왕은 이렇게 말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 139:16)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렘 1:5)

우리는 또한 대상 22:9에서 솔로몬 왕의 생활 환경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을 읽는다.

여호와께서는 요시야가 태어나기 32년 전에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고,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몇 안 되는 왕 중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왕상 13:2).

아브라함은 열국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었다. 그의 아내 사래는 불임이었다. 그들은 약속의 아이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을 기다렸다.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이를 잉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도우”려고 생각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분은 자비로 하갈에게 성취된 예언으로 위로하셨다.(창 16:12).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녀를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

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창 17:19)

침례 요한의 탄생도 마찬가지로 예언되었다(눅 1:13).

그리스도의 탄생은 미리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신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눅 1:30-32).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 각자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아시지만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아신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시 139:2)라고 말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생각을 숨길 수 있고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우리의 생각에 대해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한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13)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선언했다.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찌어다 여호와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삼상 2:3)

다윗 왕은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시 139:5, 6)고 말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신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아신다. 주님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사 46:10)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창 18:18에서 아람 왕 벤하닷(왕하 8:9), 히스기야(왕하 20:1), 솔로몬(왕상 5:5)에 대해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셨다. 이 사람들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미래도 분명히 아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혜에 복종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며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민 12:13).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미리암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자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죽을 것이라고 확증했고, 왕은 그를 궁핍히 여기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여호와께 기도했다(왕하 20:3-6).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해가 멈추고 달이 머물렀다.(수 10:12-14). 이 신실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것이다.

생명이 위태로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람들을 이름으로 부르셨다. 그분이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소의 사울에게 이름을 부르신 예가 있다(사 43:1; 출 3:4; 삼상 3:10; 행 9:4).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분은 유명한 족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

가 되게 함이니라”(창 17:5)

사라: 아브라함만이 그의 가족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름 변경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의 아내도 그랬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창 17:15). 그녀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왕들이 그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야곱: 야곱도 주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다. 천사는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창 32:28)라고 말했다.

마헬살랄하스바스: 예언자 이사야에게는 예언의 일부이기도 한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아들이 있었다.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사 8:3)

이스르엘: 예언자 호세아의 맏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뜻깊은 이름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죄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호 1:4)

로루하마: 예언자 호세아의 딸은 여호와로부터 상징적인 이름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호 1:6)

로암미: 선지자 호세아의 둘째 아들은 하나님에 의해 이름이 지어졌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름을 주심으로써 우리 각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는 편재하신다. 그는 주권자이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족과 국가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과거에 그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으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창조물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롬 1:20)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시 19:1, 2). 하나님은 과거에 천사, 선지자, 꿈, 환상, 기적, 심지어 당나귀를 통해서도 그의 백성들과 교통하셨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민 22:28)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요 1:1). 그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방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벧전 3:15).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인용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에 응답하셨다(마 4:1-11). 우리는 영혼의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엡 6:11).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쇠이다(요 14:21, 23 참조).

하나님은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도 말씀하신다: 예언자 엘리야가 낙담하고 침울해졌을 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때때로 하나님은 바람, 지진 또는 불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왕상 19:11-13 참조)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인격, 성품, 말, 행동 및 사업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셨다. 예수님은 그분의 전 인격으로 사람에게 하나님

을 계시하신다. 그분은 비유, 이야기, 실물교훈, 특히 경건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모범을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셨다(히 1:1, 2; 막 4:34; 마 7:3~5; 요 13:3~7을 읽으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인류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을 때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 위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보내셨다(요 14: 26).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며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뜻에 복종하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못 마음을 감찰하시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대상 28:9). 솔로몬 왕에게 한 이 충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아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에 매우 조심하자.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예언자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외모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셨다. 그분이 보시는 것은 마음이다(삼상 16:7).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보신다. 성경은 모든 것을 보는 하나님의 눈을 상징적으로 말한다. “여호와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대하 16:9).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렘 16:17).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

랴”(시 94:9)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아신다.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없으신즉 멸망하나니”(욥 34:25).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능력으로 큰 성 바벨론을 건설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 말이 아직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그가 7년 동안 왕이 되지 못하고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리라 하니(단 4:17-37을 읽으라). 나중에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향했다.

하나님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계신다. 주 하나님이 불타는 덩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종살이에서 구출하라고 명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출 3:7).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신다. 지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은 과거의 일을 아신다. 사도는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행 15:18, 킹제임스)고 단언한다.

하나님은 심판에 완전하시다. 오직 지식에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다(벧후 3:7). 사람들이 언젠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은 그들이 삶을 사는 방식을 평가하게 해야 한다. 예수님은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 12:37)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 29:13).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아

신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잊혀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의 유혹과 가족 상황을 아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신 31:6; 요 3:16).

하나님은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과 함께 계신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통치자였으며 다니엘을 제 1총리로 세웠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명령을 따랐다. 질투심에 찬 적수들은 왕을 설득하여 모든 사람이 오직 왕만 숭배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만들고 누구든지 다른 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을 요구했다. 다니엘은 창문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 기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자굴에 던져졌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셨다.(단 6:21, 22).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지방에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신상 봉헌식에 모든 권위자들을 초대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한 세 히브리 청년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계시매 그들이 타지 아니하였다. 불은 그들을 지배할 수 없었다(단 3장).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셨다. 그분은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니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출 14:16) 이 동일한 하나님은 같은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원수를 덮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분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출 14장을 읽으라).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더라(수 3장을 읽으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홍수로부터 보호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창 7:1).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있었고 모든 육체가 죽고 모든 생물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존하셨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의심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의 자손이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었다(창 12장 참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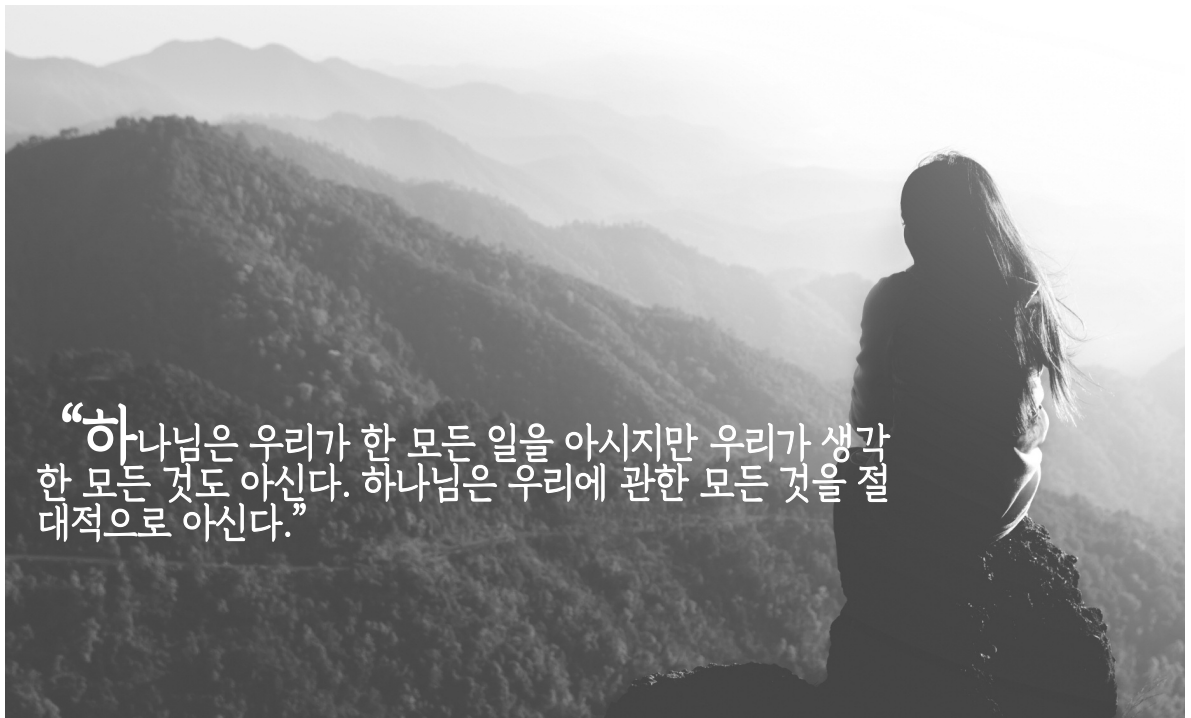
창 39:1-6에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다. 여호와 하나님이 미지의 땅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요셉이 보디발의 총애를 받아 온 집안의 총무가 되었다. 결국 하나님은 상황을 인도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두 번째 총리가 되게 하시고 특히 다가올 기근에 대비하는 일을 맡게 하셨다(창 41:37-45을 읽으라). 요셉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거기에 두시고 그의 환난 중에 기도를 들으셨다.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냈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도시 전체가 회개하도록 설득하기로 동의했다. 그도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본분을 회피한 것을 뉘우쳤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신다. “내 아들이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잠 23:26).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분의 계명과 성경의 말씀을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 우리가 그분과 더 많이 함께할수록 그분의 음성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마 13:16).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요 10:27)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무

엇이든 우리에게 계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제공해야 한다. 여전히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자. 주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시 46:10)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성품이 하늘의 책에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순결하고 참되고 굳건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자. 아멘. 🙏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아시지만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아신다.”



12월 6일 수요일

문제의 참된 원인

아르카디 망굴
목사, 몰도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문제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는가? 글썽요, 죄악의 세상에 태어난 우리에게서는 이런 일을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순간부터 문제없는 세상이 동화가는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 계획이라는 사실에 매료되었다.

문제의 근원

문제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괴로움, 슬픔, 고통, 분노, 불쾌, 고통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든 사람들의 죄악된 행동으로 인해 종종 발생한다. 죄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우리 세상에 많은 불행을 가져온다. “산상보훈”의 영감 받은 구절은 그것을 잘 설명한다.

“우리의 첫 조상은 한 가지 점에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경시함으로써 이 세상에 재난의 수문을 열어 놓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본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같이 유사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각 교훈은 그분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명을 떠나는 자는 불행과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 -산상보훈, 52.

그러므로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 그것은 시동을 건 사람뿐만 아니라 그 행동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복잡한 과정의 시작이기도 하다.

죄는 하나님의 발명품이 아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에 죄가 나타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잘못된 생각이 근거로 제공된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율법의 창시자이시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다면 죄도 짓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첫 번째 존재인 루스벨을 창조하셨다. 만일 루스벨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둘 다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거짓이다. 영감은 다음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신과 같은 좋은 것만 만드셨다. ... 악, 죄, 죽음은 사단에게서 나온 불순종의 결과이다.” -리뷰 앤 헤럴드, 1910.8.4.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진정한 목적과 우리를 위한 율법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감지하거나 인

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법은 죄를 용어로 정의하지만 그 과정은 법 너머에도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한다. 7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 두 계명이 율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도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도 여전히 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따라 살 것을 제안하시는 이유를 이해한다. 우리는 죄의 사슬을 끊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지침을 제공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 12:1).

그러나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의 정점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문제를 피하고 우리가 가진 불쾌한 상황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사랑하고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바로 그 과정을 시작한다.

이기주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우리의 창조주를 완전히 정의한다.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으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을 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사랑이 이기심으로 대체된 것이다.

“사람은 본래 고상한 능력과 공정한 마음을 부여받았다. 그의 본성은 완전하였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융화되었다. 그의 사상은 순결하였고 그의 목적은 신성하였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마암아 그의 능력은 악용되어 사랑의 자리는 이기심으로 점령한 바 되었다.” -정로의 계단, 17.

대부분의 문제의 기초는 이기심이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전부이고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느끼게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태도는 그를 소비자이자 압제자로 만든다.

성경의 기록을 주의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 방침을 발견하게 된다. 범법 후에 아담과 하와는 확실한 정죄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경향이 있었다. 가인도 이런 이유로 아벨을 죽였다.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장난을 쳤고 심지어 이기적인 동기로 구주를 배반했다. 오늘날에도 이기심은 여전히 전 세계의 문제이며, 그것은 비단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기심 때문에 교회도 마비된다. 지위, 배경, 믿음, 나이가 무엇이든 타락한 마음의 만족과 욕망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사랑, 화평, 용서, 이해, 겸손, 온유가 사라지고, 그 결과 쾌락을 좋아함, 이익을 추구함, 탐욕, 미움, 오해, 근심, 불만이 나타난다. 그러한 이기적인 행동은 자멸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이타적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모범을 보이셨는지 이해할 수 있다! 아래 증언에서 설명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롬 15:3).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사업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 이기심은 그분의 면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 이기심, 곧 세상의 죄는 교회의 편만한 죄가 되었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모든 이기심의 뿌리를 강타하신다. 그분은 아무것도, 그분 자신의 명예와 하늘의 영광까지도 보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분이 축복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자들에게서 합당한 극기와 희생을 기대하신다.” -교회증언 5권, 204.

악은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죄의 눈에 띄는 또 다른 문제는 죄가 우리에게 사전 통지 없이 증식하고 퍼지는 방식이다. 위의 증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이 사랑이 죄를 통해 이기심으로 대체되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생명이심을 알면 이 경우 생명이 죽음으로 대체됨을 알 수 있다. 삶은 의식적인 선택이지만 지상에서 저지른 첫 번째 죄에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이것은 모든 죄에서 발생한다. 악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증식한다. 우리가 죄의 질병에 감염된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운반자이자 전달자가 되었다. 상당히 실망스럽다. 그러나 우리를 희망 없이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죽음의 무기력에서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범주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죄의 길을 계속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 살후 2:3은 죄의 길을 따르고 특정한 요구를 하기로 선택한 사람과 관련하여 “불법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제시한다. 요구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은 “불법의 사람”이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불법의 사람”은 누구를 강요하려고 하는가? 분명히 성령에 의해 일깨워지고 무고한 창조주가 죄의 결과에 대해 치르신 대가를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 경우 “불법의 사람”의 활동은 여러 시대에 걸쳐 문제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영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과 같다.

“로마 천주교는 이교와 그리스도교의 형태를 혼합하고 또한 이교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며, 그에 못지않은 잔인하고 역겨운 수단들을 사용해 왔다. 로마교의 전성시대에는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고문하는 기구들이 사용되었다.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화형주가 있었다. 심판 때까지는 결코 알려지지 않을 어떤 규모의 대량 학살들이 감행되었다.” - 각 시대의 대쟁투, 569.

역사는 반복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통과해야 할 “큰 환난”은 “불법의 사람”에 의해 인도될 것이기 때문에 같은 성질을 가질 것이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중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그

들은 신적 권위의 부족을 압제적 법령으로 보충할 것이다. 정치적 부패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소멸시키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위정자와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그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양심의 자유가 더 이상 존중되지 않을 것이다. 절박한 싸움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에 나타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계 12:17).’ - 각 시대의 대쟁투, 592.

위의 문단은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만약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할 것이다.” 죄가 존재하는 한 문제도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위에서 언급한 소수의 사람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을 선호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기로 선택한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다.

시온을 괴롭히는 자들아, 회개하라!

“복음전도”라는 책에 기록된 영감 받은 구절을 연구해 보자:

“우리 교회 안에는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개혁사업에 방해만 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은 구원의 차바퀴에 끼어 있는 진흙 덩어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종종 시험을 당하게 된다. 의심, 질투, 의혹의 정신은 이기심의 열매들이며, 그러한 요소들이 저들의 본성과 혼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그러한 부류를 가리켜 만성적 교회 불평가들이라고 부르고 싶다. 저들은 두 사람의 목사가 힘을 합쳐서 해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손해를 교회에 끼친다. 저들은 교회에 대하여 큰 부담이 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목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저들은 언제나 의혹과 질투와 그릇된 추측의 분위기 속에서 생활한다. 저들의 악한 활동을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화목과 연합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대사들의 많은 시간과 노

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용기와 힘을 약화시키며 멸망하여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저들에게 맡기신 사업을 수행하는데 실격자들이 되게 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저들의 행위를 따라 갚아 주실 것이다.” -복음전도, 370, 371.

다음은 기사의 저자인 나조차도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주에 대한 설명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악한 자의 대열에서 떠나 죄와 상관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합한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의심은 그들의 삶에 존재한다. 사실 이런 것들은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죄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낙담시키고 파괴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무기이다. 증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질투, 시기, 좋지 못한 추측, 험담 등은 사단에 속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방해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교회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더 열렬한 관심으로 돌보시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자의 감화력을 해치는 행동보다 하나님을 더욱 노엽게 하는 것은 없다. 그분께서는 비평하고 용기를 꺾고 사단의 사업을 도와주는 모든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교회 증언 6권, 42.

나는 그것이 죄라고 주장할 수 있다. 십계명의 직접적인 관할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정확한 계명이 없더라도 필연적으로 낙담과 죄로 이어진다. 하나님도 우리도 그런 행동에서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주장하는 교회 녹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료 인간과의 관계를 고려할 것인가?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동정심이 없는 상태로 남아 있도록 해야 하는가? 어떤 도발이 우리에게 불친절한 감정을 품거나 나쁜 감정을 품거나 복수를 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허물을 용

서하시는데 우리가 형제를 정죄하는 데 첫 돌을 던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의 빛은 엄청나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견해나 자신감에 따라가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가혹하고 혹독한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다. 마음의 교만을 품으면 시기와 악한 추측이 생기고 복수로 이끈다. 우리는 일상적인 말이나 행동을 고의적인 공격으로 과장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냉정함, 무관심 또는 경멸을 받을 만한 불의를 행했다고 생각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고발하는 바로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봉사한다. 마음을 읽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는 사람보다 그들에게서 더 진정한 선함을 볼 수 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나든 경계하고,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라.’ 그대가 하나님을 화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다루시기를 바라는 대로 그와 그의 잘못을 다루라. 사랑은 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복수는 한다. 스스로 열심을 내어 선한 말을 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내라 모든 신랄한 말과 모든 불친절한 행동을 피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심한 시기와 다툼으로 진리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의 영이기 때문이다. 이 거룩하지 못한 특성이 여러분 사이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도록 하라.” -영문시조, 1895.2.14.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임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선구자인 침례 요한은 뚜렷한 실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마 3:10).

사도 바울은 치명적이고 강력한 뿌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더 경고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열심히 돌아보고 또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



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히 12:14, 15, 킹제임스) [강조가 추가됨].

“교회가 모든 시기와 악한 생각과 악담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늦은 비를 받지 못할 것이다. 미움을 품성의 일부가 될 때까지 강해지도록 마음속에 간직해 온 사람들이 늦은 비를 함께 누리코자 한다면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가정 선교, 1896.8.1.

“주님은 인간의 뿌리인 이기심을 마음에서 바우라고 명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며 자기포기로 길을 닦으라고 명하신다. 자아를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의 눈은 열려서 우리의 자비롭지 못함이 다른 사람들의 길에 놓은 걸림돌임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제거 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약 5:16).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 이렇게 기도했을 때 가졌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시 51:12, 13)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을 지배할 때, 영혼은

믿음과 용기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분위기 곧 그것을 흡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 생명을 고취시켜 주는 분위기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교회증언 6권, 43.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여기 그대의 임무가 있다. 만일 여러분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는 대신에 여러분의 문제와 곤경과 형제들에 대한 원망까지 그들의 귀에 털어놓았다면, 여러분의 행로를 그리스도께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귀중한 진리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종종 문제에서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시기와 악한 추측과 의심으로 말미암은 말을 하지 말라. 형제들에 관한 악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에 오실 수 없으시다.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이 이 악한 일에 가담한 것은 아니니 이제 들어온 사람들로 대열에 합류하게 하라.”-편지와 원고, 22권 원고 71, 1907.


결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안에 행복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일으키는 주체일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권세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 권력에 굴복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영감의 펜은 실제 문제를 명확히 한다.

“아무리 강력한 유혹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핑계가 될 수 없다. 그대가 견디어야 할 압박이 아무리 혹심하다 할지라도 범죄는 그대 스스로 한 행위인 것이다. 그 어려움의 중심지는 곧 중생하지 않는 마음인 것이다.” -채림 신도의 가정, 331.

하나님은 이 일을 다 이루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에서 구원을 받으실 수 있게 하셨다. 그는 우리가 이 기회를 잡기를 원하신

다. 곧 대환난 후에 죄의 창시자와 죄 자체가 도태되고 죄인으로 남아 있기로 걱정된 자들은 죄와 함께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을 택하도록 하자. 문제가 영원히 끝날 때가 곧 올 것이다. 우리는 각 시대의 대쟁투에 기록된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鼓動)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原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8. 아멘! 





12월 8일 금요일

구세주를 만남

아부 루벤 부다우
장로, 미국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만난 것은 2021년 여름이었다. 나는 멕시코 국경에서 몇 분 거리에 있는 미국 최남단 도시 중 하나인 텍사스주 매캘런에 새로 형성된 그룹을 방문하고 있었다. 한 형제가 라디오 사역을 시작하여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 방문을 요청하거나 성경 공부를 요청했다. 그들 중 한 명은 멕시코 출신의 60대 남성인 과달루페 씨였다. 내가 방문했을 때 과달루페 씨는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고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는 기꺼이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였고 그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성경에 대한 그의 새롭고 더 깊은 이해를 반영했다. 그는 항상 얼굴에 미소를 지었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기쁨은 전염성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슬픔이나 걱정의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제 우리는 일상적인 만남에서 항상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건강할 때,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때, 또는 안락한 생활을 할 때 행복하다는 것이 반드시 대단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목록을 만든다면,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가

질 수 있는 사람들을 목록 맨 위에 놓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다. 어려움을 겪는 질병이 없고, 경제적 문제나 가족 문제가 없는 겉보기에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 또는 가능한 모든 면에서 삶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렇다.

그러나 과달루페 씨의 행복은 그런 완벽한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시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다. 그는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의사들이 그에게 전년도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기 때문에 그는 이제 빌린 시간에 살고 있다. 그는 배에 장루 주머니를 달고 있었고 목 옆에는 자몽 크기의 종양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는 목에 튜브를 삽입한 기관 절개술을 통해 숨을 쉬고 있었는데, 말을 하려면 손가락으로 관을 막아야 했다. 그는 수수한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그를 방문할 가족도 없었다.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그는 식탁에 음식을 놓고 집세를 내기 위해 사람들의 관대함에 의존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이 세상에 그에게 위로와 안전을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두에게 자신이 슬프지 않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기 위해 그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얼굴, 대화, 행동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일종의 행복을 누린다. 그러나 과달루페 형제는 육체적, 지상적 시련을 초월하는 행복과 평안을 누렸다.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강함이라”(고후 12:10)고 말했다.

어떻게?

환난의 폭풍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분명히 나쁜 일이 닥쳐도 “항상 기뻐”(살전 5:16)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과달루페 형제는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말했다. 사도 바울처럼 그는 구세주를 만났고, 그것은 다시는 전과 같지 않을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

구세주와의 영광스러운 만남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만의 여행을 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여정이 있고 다양한 곳에서 행복과 성취감을 찾는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이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시도하기 위해 세상으로 향할 것이다. 탕자의 이야기는 종교의 “규제”에 싫증이 난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너무나 자주 되풀이되고 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교리와 신념 체계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어떤 길을 택하든 결국에는 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고안한 방법으로 지상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노력은 이중적인 비극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렘 2:13).

우리는 창조주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 때 하늘의 평화로 충만하도록 창조되었다. 이 연결이 끊어지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다. 참된 평안과 행복은 이 세상이 제공하는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다. 반면에 우리가 구세주를 만나고 전능자와의 연결이 회복되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늘의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 “누가 우리

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롬 8:35).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인류의 가장 큰 필요로 만든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하며 그분 없이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도달하고 회복시키고 “나의 가는 길을 구제”(시 40:2) 세우기 위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셔야 하셨는가? 사도 바울의 생애와 경험은 구세주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좋은 예가 된다.

대적을 위해 일하다

신뢰 남용의 더 좋은 예는 많지 않다. 이 세상 나라들은 반역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행위는 배반자의 이름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혐오스럽게 받아들여지게 했다. 우리가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사단송배자, 귀신 들린 사람 및 기타 공개적으로 악한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하여 행동할 때마다 우리는 원수를 섬기는 것이며 배반의 입맞춤을 통해 유다가 잃은 것처럼 반드시 길을 잃는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영원한 왕국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더 분명하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실상은 사단의 일을 한 것이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https://www.goodreads.com/quotes/528301>.

우리가 하나님의 대열에서 행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립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 왕국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실제로 대적과 함께 싸우고 그의 신하가 되는 것과 같다. 사도 바울은 개종한 후 우리의 이전 생활 방식에 대해 이렇게 썼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골 1:21) [강조가 추가됨].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상태는 훨씬 더 비참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절망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사도행적, 115. 2. 라오디게아의 비참함은 그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기하급수적으

로 증폭되지만 실제로는 그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계 3:17) 존재임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의 최선의 노력은 그가 남은 생애 동안 후회한 가장 한 일이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고전 15:9)

바울은 솔직히 착각했다. 그는 의도적으로든 고의로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사단이 그가 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했다. 가혹하고 율법주의적인 종교에 대한 그의 열심으로 인해 그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상처를 주었고 폭력과 위협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러한 방법은 사단의 도구 상자에서 직접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는 데는 설 자리가 없다.

우리의 “유익하던 것”을 포기함

다소의 사울은 옳은 일을 하기를 원했던 헌신적인 유대인이었다.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빌 3:5, 6). 그 자신이 보기에 그는 바른 교파에 있고, 바른 교회에 다니고, 바른 의례를 행하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바른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스러워할 모든 세상적 이유가 있었지만, 그에게 “유익하던 것”(빌 3:7),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유익하던 것”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러워했을 것이지만, 나중에 바울은 자랑할 만한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그 모든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가 그의 구원을 위해 그것들을 신뢰하는 한 그는 그리스도를 가질 수 없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

로 동기가 부여된 섬김과 순종만을 받아들이신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고전 13:1)일 뿐이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구주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빌 3:8)이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회생으로 여기지 않았다. 일단 그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보았을 때, 그의 이전의 모든 “얻은 것”은 그에 비하면 빛이 바랬다. 또는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들은 그에게 “거름”이 되었다(빌 3:8).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은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마 13:44).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오직 우리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계 3:17)과 “더러운 옷”(사 64:6)과 같은 우리 자신의 “의”로 만드는 것들뿐이다.

좋은 일을 하고 싶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나 “부족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력의 법칙이 우리를 지상에 가두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드는 자연법이 있기 때문이다.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롬 7:21).

십대 때 경험했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나는 루마니아 북동부에 있는 조부모님 댁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원예 도구를 빌리기 위해 이웃집에 갔다. 내가 이웃집 문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이었고 그 이웃은 마구간에서 새끼 돼지 두 마리를 푸른 잔디가 가득한 큰 마당으로 막 풀어 주고 있었다. 새끼 돼지들은 나오자마자 한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달리기 시작했고, 마당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진흙 웅덩이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그 웅덩이에 덩굴기 시작했고 형언할 수 없는 흥분으로 온통 진흙으로 가득 찰 때까지 그 안에서 뛰었다. 이 모든 것이 20초도 채 걸리지 않았고 끝났을 때 성취감에 완전히 만족하며 밥을 먹으러 갔다.

죄는 이 두 아기 돼지의 진흙에 대한 욕망만큼이나 우리의 본성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에디오피아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그리하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 13:23). 죄가 우리 존재 전체에 너무 많이 침투하여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인간의 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복음에서 발견한 것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장조가 추가됨].

만남

복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여전히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마약 중독자와 독선적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 모두 치명적인 얽힘에서 구출되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고전 12:6) 은혜의 왕국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롬 5:6). 예수님은 우리가 나아지기 시작했을 때나 적어도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

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 5:10).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한 만남 그 이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때때로 그분은 성경 구절이나 친구, 팜플렛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다른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좋은 나쁜게 인식하든 관계없이 사건을 통해 가능하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소 사람 사울에게 들리는 소리로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눈 먼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므로 그가 배운 것이 이러하였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일함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좋은 것이 협력하여 우리의 유익을 이룬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쉽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비범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비범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는 비범한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나니 거기에는 “나쁜” 것도 포함된다고 기록하였다. 그가 구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소경이 되었다. 볼 수 있었지만 완전한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다. 그러나 완전히 눈이 멀었을 때 그는 인생에서 가진 최고의 시력을 가졌다. 그는 자신이 자만하지 않고 “허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나니 거기에는 ‘나쁜’ 것도 포함된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완전히 눈이 멀었을 때 그는 인생에서 가진 최고의 시력을 가졌다.**”

과 죄로 죽었던”(엡 2:1) 것을 보았다. 외적인 “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구주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경험이 그에게 가져온 변화에 주목하라. 그는 더 이상 교회를 맹렬히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장엄하심을 배우고자 하는 온순한 학생이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것으로 인식되는 사건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핑크타이어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분이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구세주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광선에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결의 과정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살전 5:23). 그것은 우리 존재 전체를 사랑의 주권에 매일 굴복하고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본성인(요일 4:7)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날마다 점점 더 발견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의 팔에 맡긴다면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사건을 완전히 통제하신다는 것을 알고 매일의 수고와 어려움을 통해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구세주를 만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고후 12:9, 10).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그것들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불안한 예감이나 심한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 본 일이 있는가?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

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충실한 종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정도의 능력을 내려 주실 것이다.” - 선지자와 왕, 164, 165.

“가장 어두운 날에, 외관상 너무도 위협적인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시며,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호전시키고 계신다.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의 힘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다. 그분의 총명이 그들의 봉사에게 주어져, 그들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실수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낙담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은 담당하도록 주어진 압박을 견디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에게 필요한 모든 힘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으시며 즐겨 주고자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의 가장 큰 기대 이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 교회증언 8권, 10, 11.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히 13:5) “[우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는 그분의 보증이 있다. 불로 연단을 받으려 멸망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벧전 1:7).

오늘 우리의 구세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반항하는 가운데 그분에게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 오늘날 그분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속전을 이미 완전히 지불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모든 죄의 흔적을 뿌리 뽑고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바꾸실 것이다. 우리의 삶은 결코 같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구원받은 삶의 날마다 왕을 섬기며 행복할 것이다.

“그대들이 요구하는 바는 평안 곧 마음 가운데 하늘이 사유와 안정과 사랑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지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지혜로도 구할 수 없나니 그대 자신의 노

력으로는 그것을 도무지 얻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돈 없이 값 없이'(사 55:1) 한 선물로 제공하신다. 만일 그대들이 손을 내밀어 붙잡기만 하면 그것은 그대들의 것이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 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18),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겔 36:26)이라고 하셨다."
-정로의 계단, 49. 





12월 9일 안식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엘리 테노리오
세계 대총회장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더 높은 힘과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갈망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탈 근대적 인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은 창조 때부터 우리 안에 존재해 온 욕망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갈망하였다.

빌립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고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요 14:8).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며, 우리가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죽을 존재에서 불멸의 존재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는가?

요의 친구인 소발은 이렇게 물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요 11:7).

영감은 대답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발견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한다. ...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믿는 순결한 생애를 살 때에 그 신자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보다 더 명확하고 보다 더 고상한 관념이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분을 알려 하여, 9.

빌립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 14:8).

우리는 평생 동안 찾아도 그분을 찾을 수 없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발견되기를 원하신다. 그만큼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제공하셨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분을 알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 29:13).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이론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매일 그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분을 더 친밀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

1. 성경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화중에 언

급되고 호기심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조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그대가 들은 짧은 언급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다면 아마도 그대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말한 것 또는 그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을 읽기 위해 그들은 구글로 찾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들었거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보의 뷔페를 준비하셨다. 우리는 피상적인 지식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상고하라”(요 5:39)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성경을 자신에 대한 계시로 주셨다.

“축복된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모든 개인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된 증인이시며 자신의 백성에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을 보여 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드러난다.” -대서양 연합회 수집가, 1909.6.9.

성경을 펼칠 때 우리의 태도와 의도는 성경 페이지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연구한다면 그분을 더 친밀하게 알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성경의 순수한 진리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 수 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이 있었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없었다. 그들은 구약의 진리를 인간의 견해와 혼합하여 그 가르침을 신비화시켰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감추셨다.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은 사실상 독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리와 모순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훈과 자비와 사랑이 없는 준엄한 재판관으로 여겼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못 대변했다. 그들은 그들의 권위에 대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가 없는 끝없는 금언과 전통을 사람들에게 제시했다. 그들은 참되시

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고 경배한다고 공언하면서도 그분과 그분의 아들 안에 계시된 그분의 성품을 완전히 잘못 표현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러한 그릇된 주장을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셨다. 그분은 사람에게 최고 통치자를 ‘우리 아버지’라는 새 이름으로 부르도록 가르치셨다. 이 이름은 그분과 우리의 진정한 관계를 나타내며, 인간의 입술로 진실하게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음악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새롭고 산 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신다.” -대서양 연합회 수집가, 1909.6.9.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배우고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그대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그대의 삶에서 전에 없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2. 기도

구글(Google)에서 조사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유명하다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할 수 없을 것이다.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이다. 그것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더 깊게 하며,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 기도는 또한 조용히 묵상할 기회를 제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며,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우리를 축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무위한 상태에서 침묵과 고독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에 둘러 계시며,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 준다. 우리가 식별해 낼 수 없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배 아래있는 온 우주의 각 지역과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온 하늘의 관심이 집중된 대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영혼들과 이 작은 세상인 것이다. 억압당하는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좌에서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실한 기도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노라'고 응답하신다. 그는 상심한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일으키신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신다. 하나님을 받드는 천사는 모든 유희와 시련에서 건져주기 위해 가까이 있다.

하늘 아버지 모르게 땅에 떨어지는 참새는 한 마리도 없다. 하나님께 대한 사단의 증오는 그로 하여금 구주께서 보호하시는 모든 대상을 중요하게 만든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훼손시키려고 애쓰며, 말 못하는 피조물까지 파괴하기를 좋아한다. 새들이 기쁨의 노래로 우리를 즐겁게 하도록 보존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새들까지도 잊지 않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 시대의 소망, 356, 357.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은혜 중에 자라나는데 있어서, 그리고 영적 생애 그 자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마치 현세의 음식이 육체의 건강에 필요한 것과 같다. 우리는 자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는 습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래 참고 노력함으로

습관이 되어 드디어 그것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한 순간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전할 수 없다. 우리의 매 발걸음에 주께서 함께 하시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께서 친히 정하신 조건들을 이행함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15.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 7:7)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시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그렇듯 기도를 적게 하고, 그렇듯 믿음이 적으니 이것을 볼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불상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좋아하며 그에게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다. 저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저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성신의 빛과 그와 교제함이 없이 행하기를 만족히 여기는 듯하다." - 정로의 계단, 94.

"우리는 항상 마음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손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청하는 초청을 보내야 할 것이다.

비록 우리의 주위가 부패된 분위기로 둘러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 하늘의 깨끗한 공기 가운데서 살 수 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써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올림으로 불순(不純)한 망상이나 불신성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비록 우리의 주위가 부패된 분위기로 둘러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 하늘의 깨끗한 공기 가운데서 살 수 있다.”



문을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마음문을 열어 놓는 자들은 이 땅의 분위기보다 더 거룩한 분위기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하늘과 간단없는 교통을 지속(持續)할 수 있을 것이다.” -정로의 계단, 99.

“우리는 예수님과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대화한 것처럼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의 시련에 대해 모두 말할 수 있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식이며 그의 길에 빛이 비쳤을 때 그는 ‘내가 이 길을 가면 내 친구들과 친척들이 나에게 대해 뭐라고 말할까?’라고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아니다, 그는 그렇게 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이제 에녹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구했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을 모든 선한 것로부터 멀어지게 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형성해야 할 성격이 있다. 에녹은 의로운 성품을 형성했고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숫자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 우리는 우리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온전히 주님 편에 있는지,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는 우리 발을 위한 깨끗한 길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지 알고 싶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고 그 결과를 그분이

돌보시도록 함으로써 만난다.” -원고모음 9권, 256, 257.

지금부터 더 많이 기도할 것인가?

3. 관계

어쩌면 그대가 조사한 애매한 유명인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검색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그대는 그들의 경험을 듣고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가졌던 경험과 결합하며, 곧 그대는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 더 완전하고 풍부한 그림을 형성하게 된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풍요롭게 한다. 공유된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보다 완전한 그림을 위해 우리 자신의 경험과 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의 측면을 발견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된다.

성경은 우리 각자가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벧전 4:10; 골 3:13).

“기계는 모든 부분이 완벽할 수 있지만 움직임에는 많은 마찰과 마모가 있다. 그러나 기름을 바르면 조용하고 잘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우리가 수고하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마음에 은혜의 기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진리의 논거뿐 아니라 은혜의 기름을 가지고 힘차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편견이 무너지고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

세상을 경고하는 위대하고 엄숙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가질 뿐 아니라 서로 사랑을 배양하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의 판단, 눈을 마주한다. 이 사랑의 부재는 우리의 간교한 원수를 크게 기쁘게 한다. 그는 시기, 질투, 증오, 불화의 창시자이다. 그리고 그는 이 사악한 잡초가 하늘에서 자라는 부드러운 식물인 사랑을 질식시키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

동역자의 평판은 신성하게 지켜져야 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본다면, 그는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확대하여 큰 죄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신성한 은혜를 주실 판단의 오류일 수 있다. 완전한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를 위한 일을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을 보았다더라면 그들에게 맡기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분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잘못을 저지른 필사자들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보내셨다. 그들은 동료 인간과 마찬가지로 연약하지만 그들을 도울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다.” -자서전, 119, 120.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 4:7, 8)

4. 종교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종교는 실제적인 종교이다. 그것은 적극적인 노동과 노예상태처럼 책이나 세칙에 있지 않다.

“사도는 신앙이란 의식이나 예식, 신조나 교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었다. 만일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가 세상

사물을 이해하는 것처럼 연구에 의하여 신앙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바울은 신앙이란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요 전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원칙이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영혼에게 임하는 것을 각인이 체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사도행적, 451.

인간은 본질적으로 용졸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빛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세어 본다. 우리는 우리에게 침입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정신적 기록을 유지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봐. 한심하구나!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과 같아야 한다. 그분의 은혜와 성령을 통해 우리는 이웃이 무엇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상관 없이 이웃을 섬겨야 한다. 우리는 한량없이 용서하고 지지 않고 도와야 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엿볼 수 있으며, 그분이 우리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량없이 용서하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강력한 방법이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한번은 소년이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들판에서 놀기로 했고 그곳을 건다가 개울에 이르러 통나무를 건너야 했다. 그 한 소년을 제외하고 모두가 반대편으로 건너갔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불렀다: “어서, 건너와!” 그러나 소년은 건너기를 거부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통나무 위로 돌아와서 손을 내밀었다. “내 손을 잡아. 나는 네가 넘어지게 두지 않을 거야.” 그래도 소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소년의 아버지가 와서 물었다. “왜 강을 건너고 싶지 않니?”

“무서워요, 아빠.” 소년이 말했다.

아버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가자!” 소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두려움 없이 개울을 건넜다. 내년 어느 시점에 불안정한 통나무의 개울을 건너야 할 수도 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면 앞에 놓인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말고 귀한 보석으로 간직하자.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의심을 속삭일 때, 우리 삶의 경험에서 우리에게 비추도록 허용된 빛으로부터 확신을 얻도록 하자.” -청년 지도자 1897.7.15.

미래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알 필요는 없다. 우리는 오직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분은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사 41:13)

결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일련의 믿음이나 규칙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영적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배우고 인식하기 위해 열린 마음과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은혜와 경험의 모든 사물에 관한 개요와 실체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을 이는데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이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까닭이다. 그리스도의 극기와 겸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정을 맺고자 사모하는 대신 그들은 언제나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넓어지고 우리의 제한된 동정심은 얼마나 커질 것이며 이기심이라고 하는 얼음과 같은 장애물은 깨어지고 우리의 이해력은 현재보다도 얼마나 더욱 깊어질 것인가! ...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겸비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지 못하며 그의 굴욕이 우리로 자아를 겸비케하고 예수님을 높이지 못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지 않은 까닭이다.” -내가 그분을 알려하여, 104.

그대가 노련한 영적 신자이든 이제 막 여행을 시작했든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다음은 이번 기도 주간 모임 동안 회중들 사이에서 상호 작용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이다.

1.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능한가?
2.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3. 그대는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올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4.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아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테비타 바티알레
장로, 남태평양 연합회 선교부, 피지

얼마 전 광활한 태평양으로 둘러싸인 작은 섬 마을에서 자란 청년이 있었다. 그는 고도로 숙련된 목수가 되었고 곧 목공 사업을 시작하여 가구 제작에서 수수한 주택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을 했다. 그 청년에게는 또한 학교 교사로 훈련을 받고 나중에 졸업한 근면한 남동생이 있었다. 그들은 둘 다 그들의 직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들의 가족에게 큰 자부심과 기쁨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성공은 동료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질투심 많은 소수는 형제의 성공의 원천이 어떤 형태의 주술에 아버지가 연루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악의적인 소문을 마을 전체에 퍼뜨렸다.

이 난제 동안 청년의 삶은 불길한 악마의 영향에 노출되었다. 그는 계속해서 밤낮으로 그를 따라다니는 어두운 옷을 입은 눈에 띄는 “남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동시에 이상한 병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왼쪽 눈의 모든 시력을 잃게 만들었다. 청년의 고통이 하나님의 명백한 형벌이라는 곤경에 정당성을 느낀 마을 사람들은 (그리고 이전의 질투, 비통함, 시기심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집을 불태워 버렸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청년은 마을에서 추방당했다. 추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 흉악한 영이 따라다녔다.

그 사단의 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청년은 주님께 구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우연히 그는 주요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제칠일 재림교회의 장로로 나중에 알게 된 옛 동료 를 다시 알게 되었다. 그의 친구는 그 젊은이에게 안식일 진리와 다른 성경적 교리를 나누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성서에 근거한 설명은 그에게 확신을 주었고 그가 이전에 가졌던 기독교 신앙에 대해 깊은 자기 성찰을 하도록 이끌었다. 이로 인해 그는 결국 침례를 받고 그 도시에 있는 친구의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에 대한 분노와 뿌리 깊은 적대감에 기인할 수밖에 없는 것에서 귀신의 영은 청년과 이제 그의 가족에 대한 공격을 두 배로 늘렸다. 교인이 된 지 5년, 집사가 되었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 그의 상황은 너무 끔찍해서 악귀는 때때로 교회의 뒷자리 신도석에 앉아 그가 앞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관찰했다. 그 외에는 불길한 방문자를 볼 수 없었다. 이 고갈된 경험은 이 악마적인 만남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열망을 더욱 심화시켰고 청년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 깊이 몰아넣었다. 그의 시간은 정기적인 금식과 기도, 성경 공부에 깊숙이 빠지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삶의 다양한 습관을 점차 바꾸기 시작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꿈에서 선교사의 지시를 받은 후 그의 전형적인 식단을 완전 채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아무 것도 믿지 않던 청년은 집에서 도보로 불과 5분 거리에 비슷한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일한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를 “제칠일 재림교 개혁운동”이라고 불렀고 그들의 근본적인 믿음 중 일부가 그가 집사였던 교회의 현재 위치와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음 안식일에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을 감지한 마귀의 공격은 예비일(금요일)과 안식일 아침에 더욱 심하고 규칙적으로 증가했다. 이 교회까지 도보로 불과 5분 거리에 있었던 것이 이 사람의 삶에서 가장 힘든 시간 중 하나였다. 악귀는 그의 목적을 포기하기 위해 그를 정신적 붕괴로 몰아넣기 위해 유한한 힘을 다했다. 그러나 청년의 눈에 교회의 정문이 나타나 야곱과 같은 기도로 통과했다. …

안식일학교 교과가 진행되는 가운데 열린 교회 문으로 통하는 길을 보니 보기도문 해방감이 마음에 가득 차올랐다. 별도의 교실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모습과 익숙한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은 이 특별한 안식일에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다. 그가 앞으로 걸어가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마음처럼 차갑고 살인적인 존재처럼 음흉한 말을 들은 청년은 이 목소리의 근원을 향해 돌아섰다. 그 불길한 존재였다. 그의 말은 차가웠다. 그의 말은 간단했다. 통제된 개처럼 대문 밖에서 있었지만 그 청년의 영혼을 꿰뚫는 듯한 검은 눈으로 악귀가 말했다. “이곳은 참된 교회이다. 나는 이곳을 떠날 것이고 네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다시 만날 것이다.” 그 영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젊은이는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청년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도 항상 그 악귀가 뒤를 따랐기 때문이다. 몇 분 후, 반갑지 않은 동반자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그는 작은 개혁운동 교회의 뒷자리를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악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부터 그는 이전 교회를 떠나 개혁운동에 입교하기로 결정했다.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도 귀신 들린 흔적이 없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그는 악귀의 괴롭힘이 없는 가장 상쾌한 잠을 즐길 수 있었다.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한 후 교회의 근본적인 믿음을 알게 된 그는 침례를 받았고 지금은 그의 지역 개혁운동 교회의 집사이다. 그는 이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대해 조금 더 감사하고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그가 오직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와 그분의 섭리에 대한 굴복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특정한 구절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믿는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이 기사는 신자에게 이 구절의 의미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안다는 것

“알다”라는 표현은 특정한 상황에 매우 잘 적용되는 어떤 생각이나 진리가 있다는 생각을 나타내거나 표현하기 위해 일련의 생각이나 문장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울지 않고 양파를 자르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특히 야채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용한 기술이다. 여기서 우리는 특정 지식이 특정 상황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에 적용되는가?”

요 17:3에 근거하면 그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지식 측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결과 측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제 그 지식을 얻은 결과, 즉 하나님을 안다

는 것을 이해했다면 성경과 예언의 신의 주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우리는 평범한 것들을 제외하고 그 사람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에 익숙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어, 선호 사항은 무엇이며 특정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그의 “유쾌하지 못한 원인들”은 무엇이며, 그의 기질은 어떠한가?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피상적인 지식보다 그 사람의 마음의 속내에 더 친숙하기를 기대한다.

하나님과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둘러싼 오류와 오해가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필수 지식에 관한 범람하는 오류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문제의 “흑백논리”를 제공한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은밀한 일에 관하여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계시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하는 성경의 첫 번째 사례 중 하나는 출애굽기 34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그(모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 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여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출 34:6, 7)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을 다른 어떤 신과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삶의 친밀한 측면을 본다. 생각해 보면, 우주의 무한하고 영원한 창조주께서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몇 줄로 요약하시면서도 유한하고 악한 인간이 가장 좋은 것은 그분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이다.

또한 하나님과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모세처럼 “바위

틈”(출 34:5)에 숨어 있어야 한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고전 10:4)라는 모세의 또 다른 경험에서 “반석”의 특정한 이미지에 관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기 위한 “그렇게 명백하지 않은” 요구 사항이 먼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것임을 본다. 그래야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요 14:6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는 독선적인 유대인들과 이야기 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바위틈에 숨겨져 있을 때였다. 이와같이 우리도 갈라진 바위되시는 그분 안에 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못에 찔리신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그분의 종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 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출 34:6, 7)시는 하나님이심을 친히 나타내 보여 주실 것이다.” -실물교훈, 162.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을 얻는 것은 진정으로 풀리는 데 영원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비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신 29:29) 특히 그리스도의 예에서 그렇다.

모래 위의 글쓰기

나는 이것을 요약하는 특정한 사례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기 위해 그분 앞에 데려온 그리스도와 그 여자의 경험이 라고 믿는다.

이 장은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가신 후 성전으로 돌아오셨고 교활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정답이 없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요 8:3-5)

이러한 명예 훼손 시도에 직면한 다른 상황과 비교할 때 그리스도의 반응은 오히려 설득력이 있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요 8:6)

점점 화가 난 고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비한 기록을 계속하기 위해 몸을 굽히시기 전에 간단하지만 영혼을 살피는 질문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그분을 압박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요 8:7)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동의 결과는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깊이 깨닫게 하고 꾸짖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요 8:9).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모래판의 주인이 되신 후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고 말씀하셨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요 8:10).

그는 무엇을 기록했는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영원에 이를 때까지 결코 알 수 없도록. 그러나 우리가 다음에 아는 것은 우리를 위한 이 전

체 경험을 요약한다.

그분의 질문에 그녀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요 8:11)

나는 이 이야기가 영생과 관련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 중 하나라고 믿는다(요 17:3).

영원한 생명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끊임없는 희망을 약속받았다. 뱀의 속임수는 다음과 같은 말로 꾸짖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여기에서 말하는 이 “후손”은 그리스도이다. 그분의 지상 사역에서 그 일을 수행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구속의 사랑을 본다.

직접적인 의미에서 모든 인류는 요한복음 8장의 정죄 받은 여자로 대표된다. 죄의 마귀에 의해 죄로 고발당한 우리는 마땅히 그 대가인 죽음을 받아야 한다(롬 6:23). 그분의 구속 계획에 대한 지식을 얻음으로써만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거나 거부하고 궁극적으로 멸망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겔 18:31, 32)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

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지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될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살기로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이다’(요 17:3)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 말이니라’(렘 9:23, 24)고 선언하였다. 인간의 마음은 이 지식을 얻은 사람의 영적 성취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거의 깨달을 수 없다.” -사도행적, 53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구원에 요긴한 모든 진리를 다 주셨다. 수천 수만 사람들이 이 생명의 샘에서 물을 길었으나 아직까지 그 물이 마른 적이 없다. 수천 수만 사람들이 주님을 저희 앞에 모시고 그를 바라봄으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며 그들이 그리스도께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할 때 저희 심령은 속에서부터 불타 올랐다. 그러나 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이 이 크고 거룩한 주제를 다 구명하지는 못했다. 이 밖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구원의 신비를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사명의 성격을 깊이 생각할 것 같으면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모든 노력에 더 밝은 광선이 환하게 비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탐구를 할 때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더욱 깊은 뜻과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아무리 연구하여도 무궁무진하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속죄의 희생과 중보사업에 대한 문제는 열심 있는 연구자들이 영원토록 연구해야 할 주제가 될 것이며 마침내는 그들이 무궁한 세월에 걸쳐 펼쳐져 있

는 하늘을 바라보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하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실물교훈, 133, 134.

우리는 인자와 심판과 의를 행사하시는 주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이에 비추어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기준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시간을 두고 이생의 염려와 경쟁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성한 방식으로 개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라 -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대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집에 거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 그대의 자녀들에게 구주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라.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도록 가르치라 ... 영원토록 살 품성을 형성하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복 주시도록 우리는 전에 없던 열심으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새 자녀 지도법, 49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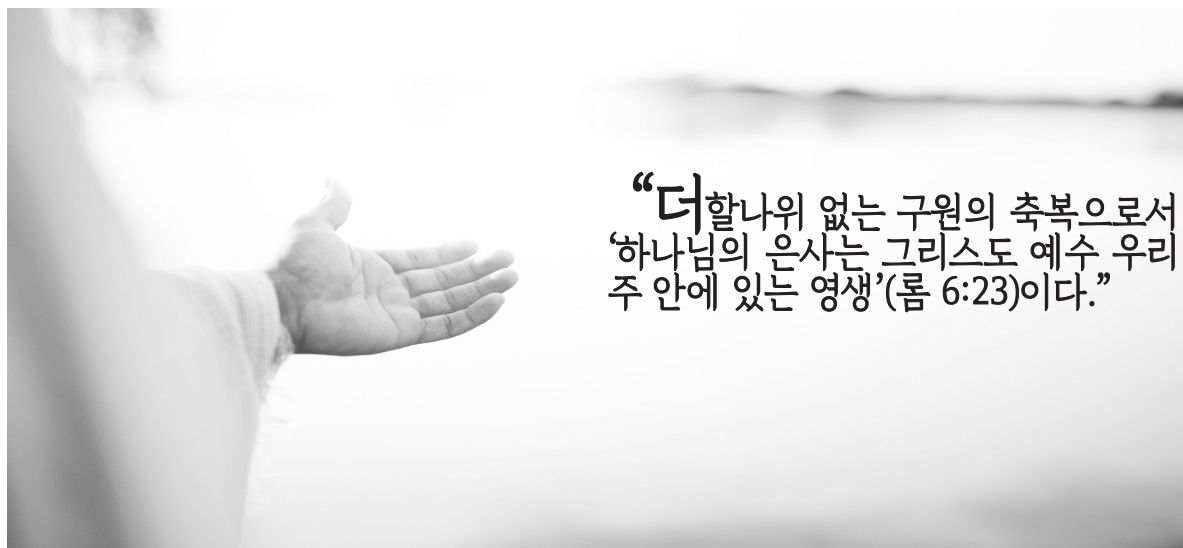
다윗은 대대에 관한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시편 100:5에서 외쳤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리고 다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된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계 1:8).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셨으며 이 선물을 통해 그분을 알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만일 은과 금이 사람들의 구원을 사기에 족하였다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학 2:8)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것을 쉽게 성취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혈로써만 범죄자가 속량될 수 있었다. 구속의 경륜은 희생에 기

초되어 있다. 사도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8:9)라고 기록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 위해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더할나위 없는 구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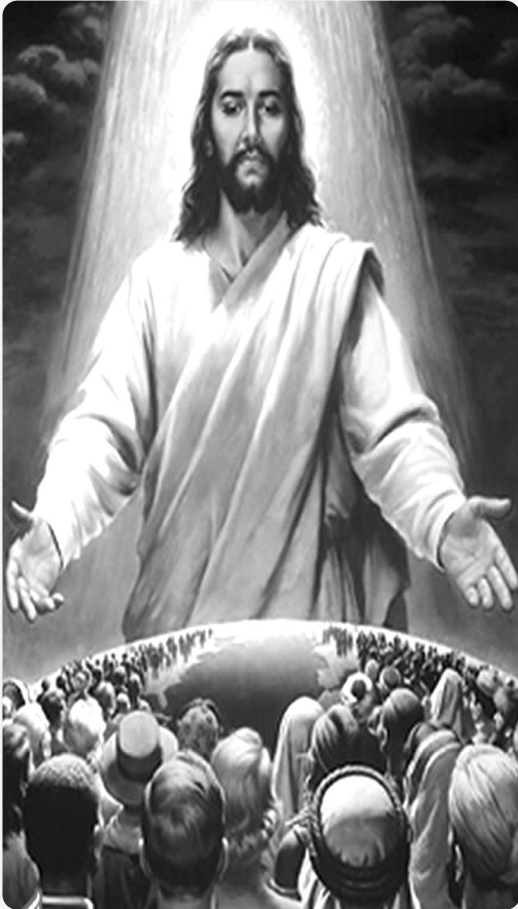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롬 6:23)이다.” -사도행적, 519.

“만세의 왕 곧 찌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딤펴전 1:17). 아멘. 🙏



“**더**할나위 없는 구원의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롬 6:23)이다.”

그리스도를 높이라



엘렌 G. 화잇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골 1:18).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사자들을 통하여 지상에 있는 그분의 사업을 진전시키셨으며, 그들을 통하여 인간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봉사하신다. 교회의 머리되신 크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대표자로 일하도록 임명하신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사업을 감독하신다.

그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말과 교리를 가지고 일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자리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남녀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탄원해야 한다. 그들은 위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을 때에만 저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목사들은 그들이 돌보도록 위임된 백성들의 영적 수호자이다. 그들의 사업은 파수꾼들의 직무에 비유되었다. 옛날에는 파수꾼들이 흔히 성벽에 배치되었는데, 그들은 그 요지에서 경비해야 할 중요한 초소들을 감시하고 원수의 접근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었다. 성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 그들의 성실성에 달려 있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들은 서로 연락해서 모두 깨어 있는지 아무도 탈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다. 기쁨의 부르짖음이거나 경고의 부르짖음이거나 간에 서로 전달하여 온 성에 메아리칠 때까지 그 부르짖음을 반복하였다. ...

그들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생애하고 그분의 성령의 감화에 매우 민감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남녀들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안전한 장소를 지적하도록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시온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의 특권이다. 파수꾼들은 범죄의 분명한 결과에 대하여 충실하게 경고해야 하며 교회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해야 한다. 어느 때라도 그들은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다. ... 그들의 음성은 나팔의 음조가 되어 높이 올라가야 하며 결코 동요하거나 불확실한 소리를 발해서는 안 된다. ...

임마누엘의 피뎀은 깃발 아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영웅적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를 요구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군병은 단호하게 싸움터의 맨 선두에 선다. ... 원수가 공격을 가할 때, 그는 도움을 구하려고 요새로 향하며 그가 주께 말씀의 약속을 가져갈 때 당면한 의무를 행할 힘을 얻는다. 그가 얻은 승리는 그로 하여금 자고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능하신 이에게 더욱 더 굳게 의지하게 한다. ... 그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구원의 기별을 매우 힘있게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 -사도행적, 360~363.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우리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교회로 하여금 우리가 그분 안에서 발견하는 충만함과 만족함을 세상에 반영하도록 계획하셨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나누어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한다. 온 하늘이 일어나서 사자들을 지상의 각 곳으로 보내어 구속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안,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이다. 그분은 머리시며 몸의 모든 지체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님은 친히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로써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며, 너무도 놀라게 영적 변화를 이루어 주시므로 천사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바라본다. 주님을 특징지우신 이기심 없는 동일한 사랑이 그분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들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도록 그분의 영광을 반사할 뿐 아니라 하늘의 빛으로 세상의 흑암을 비추기를 바라신다. 그리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 자들이요”(고전 3:9),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벧전 4:10)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 그분의 말씀의 진리, 또한 세속적인 선물들(시간과 재물, 재간과 감화)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된 것이다. 이 선물들을 이기적으로 붙들고서 주신 분에게 돌려드리지 않는 것보다 그분의 선물을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더 불쾌한 일은 없다. 예수님은 지금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거할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것은 거할 집 이상의 것, 곧 우리의 것이 될 나라이다. 그러나 이 축복을 받을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극기와 자아 희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은혜의 시기가 신속히 마쳐져 가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오늘날보다 그리스도의 사업에 있어서 열렬하고 자아 희생적인 활동이 더 크게 필요한 적은 없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행 16:9)는 마게도나의 부르짖음이 사방에서, 우리나라의 도시들과 촌락에서, 대서양과 넓은 태평양 건너편에서, 또한 바다의 섬들에서 들려 올 때 나의 영혼은 내 속에서 요동한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그 부르짖음에 이렇게 대답하겠는가? … 그대들이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돈은 하늘의 은행에 투자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5권, 731~733.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심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17).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하시거나 낙망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그와 같은 인내성 있는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하며 그분이 일하신 것처럼 일하여야 한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대하신 주장(主將)으로 의지하는 까닭이다. 그들은 용기와 힘과 인내를 가져야 한다. 분명히 불가능한 것같이 보이는 것들이 저희 길을 막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들은 어려움을 슬퍼하는 대신에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들은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말고 범사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사랑의 금시술로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매셨다.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감화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이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질서, 하늘 정부의 계획, 하늘의 거룩한 조화가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계획하신다. 이렇게 하여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다. 그들을 통하여 의의 태양은 광명한 광채를 세상에 비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막대한 편익을 주셨으므로 자신이 구속하시고 사신 사람들에게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능력과 축복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내려 주셨다.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은 교회는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라는 보화가 완전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나게 될 그분의 보고(寶庫)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굴욕의 보상으로 또 그분의 영광을 보충하는 것으로 그분의 백성의 순결함과 완전함을 바라보신다.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영광을 발산하는 대중심이다. …

이와 같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자의 말로써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선택된 교회를 아버지의 팔에 위탁하셨다. 성별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 하신다. 충실한 목자로서 그분은 강하고도 확실한 피난처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로 그의 양 무리를 모으신다. 그분에게는 사단과의 마지막 투쟁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분은 이 투쟁을 맞으려고 나아가신다. -시대의 소망, 679, 680.

왕족의 이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벧전 4:16).

하나님께서서는 나에게 그분의 백성, 목사들과 평신도들에게 “그대의 위치를 더 높은 곳에 두라 예수께서 밟으신 길을 따라 착실하게 전진하라. 그대 자신의 의견을 신뢰하지 말라! 진리를 통하여 성화 되는 것만이 그대의 안전이다.” 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주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그분의 힘과 능력과 그분의 주시는 것을 받아드리시는 그분의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그분은 정신과 마음과 힘을 다해 그분을 섬기는 자들을 부양하고 높이실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뜻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험적인 지식이 무엇이 라는 것과 믿음의 계속적인 증가가 무엇인가를 이해함이 필요하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도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

우리 앞에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본보기가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죄가 없으셨다. 그분께서 하신 모든 것들의 특징은 완전함이다. 그분께서는 그분께서 밟고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는 완전한 법칙,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내자로서 또한 상담자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시편기자는 말한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 드러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또 장차 올 생애의 신비로운 점들을 꼬치꼬치 밝히려 들지도 말아야 한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애를 영위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이다. -리뷰 앤 헤럴드, 1906.4.26.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사 60:1,2).

질투는 이 세상에 첫 사망을 일으켰다. ... 모든 이기심은 사단으로부터 온다. 인류는 한 가족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들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들은 고통과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동료들에게 신임을 잃게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기심과 부당한 행위는 불행의 초래한다. 악독한 영향 아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는 반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나라와 지역들, 그리고 개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갈망한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모든 장애물로부터 떼어놓기 위하여 부르신다. 사람을 하나님과 또 모든 사람들과 연합시키는 것, 죄 때문에 잃어버린 선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이다.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 빛은 주님의 영광이 교회 위에 임하게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원고 78, 1901.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일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써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 하게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인성 속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늘이 인간에게 매우 가까이 오도록 하신다. 그리하여 내적 성전을 단장하는 아름다움이 구주께서 거하시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내재하시는 구주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많은 영혼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찬송과 감사의 조류(潮流)를 타고 그 영광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실물교훈, 419, 420.

하늘은 같이 일하기를 바랍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 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사 58:8).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의 귀중함을 계속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도록 하는 자격을 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능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함으로 만 우리가 상류층에 전도할 수 있다. ...

그리스도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돈을 버는 일에 마음을 바친 부자들의 마음에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또 하실 것이다.

하늘은 사람들이 그 동안 회피하고 소홀히 했던 이 일에 인간 대리자들과 협력하여 일하고자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이 일을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 속에서 포기하였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좀더 버텨 내었다면 성공하였을 것이다. 이 일을 충성 되어 계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 앞에 갈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호위가 될 것이다.

참된 회개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다. 지금은 이 기적이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 저편의 사람들이 아니다. 만일 그분과 동역자가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용감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기회를 아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지적이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거룩한 원칙을 받아들일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움과, 극기, 희생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자아 만족하는 부자는 자신의 상태가 대조적으로 비참하고, 가난하며, 눈멀고, 벗음을 보게 되며, 자신이 너무 왜소하게 느껴져서, 자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더 좋아하게 되고, 영생을 붙잡게 될 것이다.

진리로 돌아온 후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빛을 전하는 대리자가 될 것이다. 그는 이 계층의 다른 영혼들을 위한 특별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나눠주는 일이 자신에게 위탁되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시간과 돈을 바칠 것이며, 자금이 그분의 재정에 들어오게 되며 달란트와 영향력이 진리로 돌아오며, 교회에 새로운 효과와 능력이 부가될 것이다. -교회증언 6권, 81~84.

빛을 발하는 교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사 55:6).

교회 신자들은 세상의 도덕적 암흑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세상을 비추시는 ‘빛’과 관련을 맺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다시 비추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구세주의 그 부요하신 은혜에 참여할 것 같으면,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저들을 신뢰하지 않으신다. 만일 저들이 겸손하여 기꺼이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을 것 같으면 저들은 세상사람들에게 인간의 품성에 역사하는 진리의 감화력을 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내 보였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결코 자아를 높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교사업에 있어서 끊임없는 활력과 꾸준한 진보를 나타낼 것이다. 저들은 계속해서 교회가 증가되지 않고서는 만족해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게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의 적극적인 선교 사업은 과거보다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이 사업은 보다 많은 지역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하며 진리의 표준이 새로운 지역에 심어져야 하며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20)고 하신 하나님께 위임받은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의 생명은 교인들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관심 여하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파멸에서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가난을 통하여 영원한 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지식으로 축복하신 사람들이 협소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가? 저들로 막중한 의무에 대한 감각이 일깨워지도록 하라. 모든 이기심의 실마리들을 끊고,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부으실 수 있도록 하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고 찾을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저들이 믿지 못하고 불평할만한 이유가 없다. 저들로 결점을 찾고 불평하는 것을 그치게 하라. 그리고 과거의 자비와 축복을 감사하는 정신을 주어 용기를 주라. 저들로 저들의 길을 비추었던 그분의 말씀의 빛을 참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서 저들을 불러내신 주님을 찬양케 하라. -영문시조, 1901. 8. 21.

가장 위대한 목적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7).

연합은 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 진리가 항상 계시되기를 바라신다. 모두가 사랑과 온유와 마음의 겸비로 연합하여야 한다. 감화력을 결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신자들의 사회가 조직되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일하여야 한다. 그들은 항상 서로 예의를 보이고 존경해야 한다. 모든 재능은 그 적소가 있으며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교회는 그 구성원들을 위하여 형성된 그리스도인 사회이다. 각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의 모든 은혜와 재능의 도움을 누릴 수 있으며 그들의 몇몇은 사들과 능력들에 따라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 교회는 각 교인이 다른 교인들의 감화에 의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거룩한 우정의 유대로 연합한다. 모두는 스스로를 사랑과 조화의 언약에 예속시켜야 한다. 그리스도인 원칙들과 신자들의 전체 사회에 있는 미덕들은 조화스러운 행동 안에 힘과 능력을 모아야 한다. 각 교인은 다른 교인들이 지닌 다양한 능력들을 정련시키고 변화시키는 감화력에 의해 유익을 얻고 향상되어야 한다. 이는 한 교인에게 부족한 것이 다른 교인들에게 보다 풍성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교회는 세상에, 천사들에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므로 모든 교인들은 함께 연합해야 한다.

교인들 가운데 존재하는 일치와 언약이란 각 교인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며 모두가 그분의 멩에를 메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에게서 배우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하면 “너희 마음이 씩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멩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9, 30)고 사랑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멩에를 메는 자들은 함께 모일 것이다. 그들은 동정과 인내를 배양하게 될 것이며 거룩한 경쟁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도 스스로 갈급해 하던 그 부드러운 동정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연합하고 경험이 없는 자는 비록 연합하지만, 보다 소망을 가진 자와 성숙한 경험의 소유자에 의하여 힘을 얻을 수 있다. 비록 가장 작은 자이지만 그는 건물에서 빛나야 할 보석이다. 그는 조직된 몸체의 필수 불가결의 지체이며 산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빛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든 뛰어난 것들과 하나가 되었으므로 구주께서 그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교회는 하늘의 평가로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대상이다. -가려뽑은 기별 3권, 15~17.

교회의 연합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행 4:32).

성령이 초대 교회에 부어졌을 때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행 4:32)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함의 열매이다. ...

우리는 거룩한 계몽을 필요로 한다. 각 개인은 영향력의 중심이 되고자 투쟁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기까지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어떤 영혼에게라도 유일한 안전임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 동화되는 모든 자들은 서로 조화될 것이므로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그분의 변화시키는 은혜는 이제까지 실현되어진 적이 없는 통일을 이루게 할 것이다. 성령은 통일을 만들어 낼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 포함된 그분의 아버지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기도는 우리 교회의 신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의견 불일치와 분열이 하나님께 치욕이 됨을 보여 준다. ...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충고나 재가는 없다. 이 문제는 그대들 스스로 영원히 종결시킬 수 있다. 분열 상태를 조장하는 것은 성화 되지 못한 마음의 공리이다. 인간의 궤변이 바로 그들 자신의 눈에 나타날 것이나 그것은 진리와 의가 아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2:14~16).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신자들을 함께 묶는 금사슬의 연결 고리이다. 이 큰 시험의 시기에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연합된 완전 체를 이루는데 그분은 그분의 십자가를 끄는 힘의 중심으로 제시하신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하나이다.

인간적 감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손안에 사업을 쥐도록 이끈다. 그리하여 건물은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은 건물이 균형지게 되도록 다양한 선물을 사용하신다. 진리의 어느 한 면이라도 감추어지거나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주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지 않는 한 영광을 받을 수 없다. 한 위대한 주제가 여기서 이해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를 위한 진리를 이해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듣는 법과 실천하도록 다른 이들을 세우고 교육하는 법에 유의해야 한다. ...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모든 지시 사항이 참된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실행될 때에, 오직 그 때에만 하늘은 교회의 결정을 비준할 것이다. 이는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며 그분이 지상에 계셨더라면 행하셨을 그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가려뽑은 기별 3권, 20~22.

정결함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딤후 4:12).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사랑 받던 이들과 처럼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된다. 그는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되며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된다.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게 된다. 오, 이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이것이 도덕적 순결에 관한 나의 가르침이다. 죄를 뿌리뽑는 일에 있어서 부정의 음흉함을 밝히는 것은 이 크고 고상한 주제가 내는 효과에 절반도 못 미친다. 성경 오직 성경만이 순결에 대한 참된 교훈을 준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악한 행실을 인하여 우리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었으며 각색 정욕과 행락에 중 노릇 한 자요 저열한 식욕과 정욕의 노예들, 죄와 사단의 종이 되어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사랑, 곧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그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놀라운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영혼들은 죄사함을 발견하도록 이끌림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바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드러난 순결과 거룩함은 인간의 죄악과 그 분명한 결과를 들춰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품성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린 구주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자는 능변으로 모든 과학적 설명을 늘어놓는 것보다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마음과 정신을 더욱 정결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은 자신의 품성이 그리스도와 닮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그는 범죄로 인한 두려운 결과를 알게 되고, 자기가 행한 죄를 미워하게 된다. 그리고 살아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는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온 빛과 하늘의 지혜로 자신이 정결치 못한 위치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는 자신을 십자가의 표준으로 재보고 성소의 저울로 달아본다. 그리스도의 정결함은 추한 색으로 얼룩진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 준다. 그는 부정한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

그는 모든 점에 관심을 기울이시며 위엄에 넘치면서도 매력적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품성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죄의 추함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분이심을 알게 된다. -서신 102, 1894.

사랑은 제자되는 증거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5).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회합 마당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큰 소망은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여러번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만 같이 계시는 때에 예수님의 처음 명령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새로운 이념과 충동이 그들을 지배하여야 하였으며 새로운 원칙이 그들로 말미암아 실행되어야 하였으며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그들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서는 아셨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빛 가운데서 한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

이 사랑은 저희의 제자된 증거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폭력이나 사리(私利)로써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합할 때 그들은 모든 인간의 세력 이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런 일치가 존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서 회복되고 있으며 생애의 새로운 원칙이 심기워졌다. 이것은 악의 초자연적인 작용을 물리치는 능력이 신성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타고난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이기심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교회에 나타난 이 사랑이야말로 사단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쉬운 길을 설계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 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복음은 반대와 위협과 손실과 고통 가운데 공격적인 투쟁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 자들은 다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데 불과하다. -시대의 소망, 677, 678.

은밀한 기도와 성경 연구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16).

하나님의 교회는 큰 그릇과 작은 그릇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분은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의 용량을 받아 드리는 것을 기대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보답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대의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노력을 받으실 것이다. 그대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의무들을 수행하라 그리고 충성을 다하여 하라 그러면 그대의 일은 전체적으로 주님께 가납 될 것이다. 그대는 어떤 큰 것을 하기를 바라며 그대는 기다리고 있는 보다 작은 일들을 지나쳐버리지 말라.

그대가 은밀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 신중히 생각해 보라. 그대가 하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와 맞서 싸울 때 쓰는 무기가 기도와 성경 연구이다. 한 번 기도와 성경연구를 게을리 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소홀히 하게 된다. 성령의 옹호를 한 번 거부하는 것은 두 번째 거부할 소지를 주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마음은 강박해지고 양심은 굳어진다.

반면에 유혹에 저항할 때마다 그 저항력은 커져서 유혹에 대처하기가 쉬워진다. 한 번 자아를 부정하면 다음부터는 그것이 쉬워지고 한번 승리를 하면 새로운 승리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유혹에 대항하고 자아를 부정하며 죄를 이기는 등 이런 일 하나하나가 영원한 생명 위에 뿌려진 씨인 것이다. 더 고상하고 더 진실 되게 자라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처럼 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님께서는 그대가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실족하였을 때, 배반당하여 죄악 속에 빠졌을 때라도 그대는 기도할 수 없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말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탕자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분께 가라. 그리고 그대의 실수와 잘못을 말하라. 그분께서는 결코 그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그대의 신뢰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시련이 그대에게 닥칠 것이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대의 품성의 거친 것을 다듬어주신다. 불평하지 말라. 명랑한 마음으로 굴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압박에 굴하지 말고 견디어라. 그대에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청년 지도자, 1902.6.26.

진리는 승리할 것임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요 14:30).

세계의 구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외면상의 실패에 직면하셨다. 우리 세계의 은혜의 사자인 그분은 그분이 향상시키고 구원하는 일에서 하시고자 갈망하신 일을 거의 하시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사단의 세력은 그분의 길을 방해하려고 계속해서 일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낙망하지 않으실 것이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그분은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녕히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사 49:4, 5, 7-10).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의지하셨으며, 유리한 것은 하나도 사단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굴욕의 마지막 발걸음을 옮겨 놓으셔야 되었을 때에 가장 깊은 슬픔이 그분의 영혼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요 14:30; 16:11; 12:31). 이제 예언적 안목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마지막 큰 투쟁에서 멀어질 광경들을 훑어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을 때에 온 하늘이 개가를 부를 것을 아셨다. 그분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과 하늘 조정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함성이 들렸다. 그분은 그 때에 사단의 제국의 멸망을 고하는 조종이 울릴 것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우주를 통하여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선포될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요청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해주실 수 있으심을 기뻐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섭리가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주어진 바 된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성령으로 무장한 진리가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얻을 것이며 피뎀은 깃발이 그분의 추종자들 위에 의기 양양하게 휘날리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 -시대의 소망, 678, 679.

결정적인 개혁이 요구됨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그대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그대로 놔둔다면 그대가 하는 일에는 능력이 없을 것이다. 그대는 잘못된 심령, 즉 남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여러 해 동안 가슴에 품고 지내왔던 것이다. 따라서 사단이 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욕을 당하신다. 주님께서 결정적인 개혁을 요구하신다. … 영혼을 진정으로 새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시키라. … 천사들과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이 제칠일 재림교회를 불드셔야만 한다. 신자들 사이에는 새로운 개심이 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저들은 영혼을 성화케 하는 진리의 권능을 증거 하여야 한다. 교회는 새롭게 됨, 순결함, 거룩함을 가져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성도들이라고 전혀 공언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내리는 것보다 저들에게 더 큰 능력으로 떨어질 것이다.

진리를 통하여 성화된 이들은 진리가 자신들의 삶속에 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가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도 밝혀줄 것이다. 그러나 교만과 시기와 악한 생각이 삶을 지배하는 한,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신다. 그분의 사랑이 영혼에게서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신성에 참여하는 이들은 자기 찬양을 날게 하는 오만하고 자만에 찬 심령을 모두 십자가 아래 내려 놓는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며 그들 생애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품성에 내포된 자비를 드러낸다.

그런 영이 부족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납하실 수 없다. 그 영이 없으면 하늘에서 살 허락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자녀야 할 순결하고 거룩한 품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위탁하는 그 순간에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그의 영과 말과 행동에 드러나 보인다. 하늘의 분위기가 그의 영혼을 둘러싼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요 6:47). 아, 이 영생을 소유한 자가 얼마나 적은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요 6:54~56).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서신, 63, 1903.

침례의식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롬 6:4).

침례와 성만찬은 기념적인 두 기둥으로서, 하나는 교회 밖에서 하나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의식이다. …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그분의 영적 나라에 들어가는 표로 삼으셨다.

그분께서는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응해야 할 필수적인 조건으로 삼으셨다. 사람이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기 전에, 하나님의 영적 나라의 문을 통과하기 전에, 그는 “여호와 우리의 의”(렘 23:6)라는 표를 받아야 한다.

침례는 가장 엄숙하게 세상을 버리는 일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사단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왕의 가족 곧 하늘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들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고후 6:17, 18)는 약속이 성취된다. …

새로 진리를 찾아 온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원칙이 분명히 알려져야 한다. 아무도 신앙의 고백만으로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없다.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는 일이다. 불법이 되는 죄를 버릴 때는 언제나, 사랑의 생애가 율법과 일치되고 완전히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말씀의 빛은 주의 깊이 연구하면, 양심의 소리 곧 성령의 활동으로 전인, 곧 몸과 마음과 영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완전히 희생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해준다. 그리고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은 분명하고 뚜렷할 것이다.

성실한 그리스도인 남녀들은 각성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에 관한 지식을 올바르게 알려 주기 위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그들은 젊은 회심자들에게 매우 긴요한, 성실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교훈을 등한히 하지 않음으로써 반신반의의 일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바로 첫 경향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6권, 91~93.

안식일 예배의 축복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가져오라. 헌신된 예배를 통하여 영혼의 귀한 생명이 그분께 바쳐지도록 하라. ...

각자는 안식일 집회들을 흥미 있게 만드는 일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저 형식적으로 모여서는 안 된다. 생각을 교환하기 위하여, 매일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거룩한 일깨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진실한 소원을 아뢰기 위하여 집회에 모여야 한다.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삶의 시련과 투쟁에 있어서 영혼을 힘있게 한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자기만 생각하여 자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지 말라. 각자는 인류라는 거대한 망의 한 부분이다. 개인의 경험은 이웃들의 경험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함께 모일 때에 얻어야 하는 축복의 백분지 일도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수용하는 능력이 더 길러져야 한다.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쁜 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그러한 소망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 불타오르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거기 계셔서 참 예배자들을 도우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살려서 매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집회 장소를 들어갈 때에 주님께 마음의 모든 악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분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가라. 성전에서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속한 바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을 드러라. 예배의 설교자나 인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할 자를 통하여 큰 축복이 오도록 기도하라. 스스로 축복을 얻기 위하여 열렬히 구하라.

하나님께서서는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보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것이다.

예배 장소가 매우 보잘 것 없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덜 인정하시는 경우는 없다. 신령과 진정과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장소가 마치 하늘 문처럼 될 것이다. 교인 수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매우 귀하다. 그들은 진리의 정으로 세상의 채석장에서 떼어 내진 돌이며, 깎이고 다듬어지도록 하나님의 작업장으로 들어졌다. 비록 거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귀하다. -교회증언 6권, 361~363.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함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시 119:72).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시 119:72)라는 시편기자의 말은 종교적 견지에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역시 진실한 말이다. 이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로서, 실업계에서도 인정 받는 진리이다. 돈을 모으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매우 격렬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도,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성실, 근면, 절제, 청렴, 절약이 많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자본이라고 널리 인정되고 있다. ...

사업의 성실성과 참된 성공의 기초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만물의 창조주께서는 원 소유주이시다. 우리는 그의 청지기들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위탁 받은 것이며, 그분의 지시대로 써야 할 것들이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지위진 각자의 의무이다. 그것은 인류 활동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관계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들이 이를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재능과 설비들을 받아서 그분께서 지정해 주신 일을 하도록 세상에 두어진 청지기인 것이다.

사람마다 해야 할 “각각(의) 사무”(막 13:34)를 받았는데, 이 사무는 당사자들의 능력에 알맞은 일이며, 자기 자신과 동포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사업이나 직업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하는 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친히 책임을 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동역자”(고전 3:9)로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염려하며 일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 근면, 충실, 수고, 검약, 사려 같은 것이 요구된다. 모든 재능은 최대한도까지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성공적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 ...

재물 얻을 능력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에 한 가지 의무를 지우셨다.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지정된 몫을 요구하신다. 십분의 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말 3:10)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무슨 감사하는 마음이나 너그러운 사람에게서 하는 호소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직함의 문제이다. 십분의 일은 그분의 것이므로 그분께 돌리라고 명하신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2). 정직이라는 것이 사업 경영에서도 중대한 원칙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즉 모든 다른 의무의 기초가 되는 의무를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교육, 137~139.

쇠함이 없는 아름다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벧전 3:3~4).

예수님의 순수한 신앙은 이를 따르는 이들에게 인위적이고 거짓된 것보다는 단순한 자연미와 자연스러운 고상함과 수준 높은 순결성 등을 요구한다. …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유행을 따라 입고자 하며, 과시하기 위하여 레이스와 금과 인공물들을 착용하고자 하는 그대 속의 성향은 다른 이들에게 그대의 신앙, 혹은 그대가 공언하는 진리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 단순하고,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 의복을 나의 젊은 자매들에게 권하고 싶다. 그대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취도록 하는 것으로는 의상과 기질의 단순성보다도 더 나은 길이 전혀 없다. 그대는 영원한 사물과 비교해서 이생의 사물들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있음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 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하늘을 위하여 순결하고 거룩한 성품을 형성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기회이다. 그대들은 이 소중한 순간들을 내적인 단장을 등한히 하면서 외양을 꾸미고, 주름을 잡고, 미화하는 일에 바칠 수 없다.

눈길의 머무는 곳마다 만물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그대에게 그분께서 평가하시는 진정한 미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신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단장은 그분께서 보실 때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값비싼 의복이나 진주나 은보다도 더 값비싼 것으로 평가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적인 단장, 온유의 미덕, 하늘의 천사들과 조화되는 정신은 품성의 진정한 덕성을 감소시키거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랑스러움을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순결하고 흠없는 종교는 그 소유자를 고결하게 한다. 그대는 언제나 진실된 그리스도인에게서 현저한 즐거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하고 행복한 신뢰, 그분의 섭리에 대한 복종 등을 발견할 것인데, 그것은 영혼을 소성 시킨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가 받은바 모든 선물들 속에 나타날 수 있다. 천연 계의 아름다움은 명상의 주제이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천연 계의 사랑스러움을 연구할 때, 마음은 천연 계를 통해서 모든 사랑스러운 것의 근원이신 분께로 이끌려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작품들은 우리의 감각에 이야기하며,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분의 지혜를 드높인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흥미를 끌어당기며, 또한 이러한 것들을 인간의 손재주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한 증거로 여기도록 하는 감각을 형성시켜 주는, 나름대로의 매력을 갖고 있다. -교회증언 3권, 375~377.

뿌리와 열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요 5:46).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전부를 포함한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불완전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진리도 신약의 진리와 똑같이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시작될 때에도 인류의 구주이셨다. 그분의 신성이 인성을 옷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복음의 기별은 아담, 셋, 에녹, 므두셀라, 노아로 말미암아 전해졌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롯은 소돔에서 복음의 기별을 전했으며 각 시대를 통하여 신실한 주의 사자들이 장차 오실 분을 선포하였다. …

사도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중보를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갔다. 굴욕을 당하신 그리스도, 순결하고 거룩하시며 비길 데 없는 사랑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전하는 기별의 주제였다. 그리고 복음을 밝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생애와 교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뿐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제사 제도가 표상했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

각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새로운 진리의 계시와 하나님의 기별이 있다. 옛 진리는 모두 다 매우 요긴한 것들이다. 새로운 진리는 옛 진리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옛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풀어 준다. 우리는 옛 진리를 잘 이해해야만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 새로운 빛을 거절하고 등한히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옛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생명력을 잃고 생기 없는 형식이 되고 만다.

구약의 진리를 믿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신약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절함으로 결국 부조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그들은 구약을 거절함으로 사실상 신약도 거절하고 있다. 왜냐하면 둘은 전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이다.

구약은 신약에 빛을 비취 주고 신약은 구약에 빛을 비취 준다. 이 둘은 각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이다. 이 둘은 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새롭고 깊은 의미를 나타내 보여준다. -실물교훈, 126~128.

더 나은 것을 주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36).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위치와 상태가 어떠한든 간에 그들을 가르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봉사이다. 그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그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죽어 가는 영혼들에게 접근할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그대의 모든 사업에 있어, 그대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곧 생명을 주는 물결이 그대의 생애를 통하여 흘러나야 한다.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그분의 사랑의 영역 안으로 이끌고자 노력할 때, 그대의 순결한 언어와 그대의 이기심 없는 봉사와 그대의 기쁨에 넘치는 태도가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자. 그분을 순결하고 의롭게 세상에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매력 있게 바라보게 하라.

우리가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공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개혁하고자 시도하는 일은 별반 소용이 없다. 그런 노력은 유익보다는 흔히 더 큰 손해를 가져온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의 우물을 멸시하는 대신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제시하셨다. 그분께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셨다(요 4:10). 그분께서는 그분이 주시고자 한 보화로 화제를 돌려 그 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곧 복음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생수까지 제시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일할 방법을 알려 주는 하나의 예시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까지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소원의 표현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말해 주어야 한다.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덧없는 세상의 기쁨과 쾌락에 비하여 어느 정도로 초월한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 주라. 구주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유와 안식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라. 그분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요 4:14).

예수님을 높이 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고 부르짖으라(요 1:29). 오직 그분만이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고 심령에 평안을 주실 수 있다.

개혁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타적이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예의가 발라야 한다. 그들의 생애에서 이타적 행위의 미덕이 나타나야 한다. -치료봉사, 156~159.

거두어 들여지기를 바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갈 5:1).

주님께서 모든 교회에 그분의 대표자들을 갖고 계신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깨달음을 줄 상황에서 마지막 때를 위한 시금석이 될 특별한 진리를 듣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빛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길에 비추인 빛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과 사업에 대해 더 활기를 갈구한다.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하늘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찾는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급하는 영혼들로부터 기도하고 눈물과 질문이 하늘로 올라간다. 많은 이들이 천국 문턱에서, 안으로 들여 보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훈들 즉 성경의 진리가 단순하게 영혼들 앞에 제시될 때에 그들은 빛을 알아차리고 그 빛 가운데서 기뻐한다. 그들의 곤란한 생각들은 아침 햇살에 의해 사라지는 이슬처럼 진리의 빛에 의해 사라진다. 성경 진리에 대한 그들의 관념이 증대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다가 와서 그들이 전혀 알 수 없었고, 설명될 수 없었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에 의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하고 영적인 신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와 관련이 없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속으로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다. 가장 비종교적인 사람들도 깨달음의 시간이 있다. 그들이 갖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한 열망이 올 때 그런 일이 생긴다. 아무 예배당에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도시들에 많이 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장막 집회에 이끌린다. 죄의 노예들, 악한 습관의 가망 없는 희생자들이 많이 온다. 많은 이들이 죄를 깨닫고 회심을 경험하였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습관의 굴레는 깨어진다. 죄된 방종을 버림으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 이것이 모든 장막 집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이 방법을 통하여 수 천명이 그리스도께로 나아 오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6권, 70, 71.

개인적인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하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생활의 성소에 들어와야 함을 가르치라. ... 자아를 버려라. ... 바로 오른편에 그분이 계셔서 공할 때마다 효능과 만능을 주시고자 함을 보는 듯이 일하라. 주는 그대의 조력자이다. 그대의 인도자이며, 우리 구원의 대장이다. 그분은 그대를 앞장서서 가시면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신다. -교회증언 6권, 75.

셋째 천사의 기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약 3:17).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오류가 없다. 이 기별과 관련된 크고 고상한 진리 위에서 그대는 완전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수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교제와 사랑의 유대 속에서 연합을 이루도록 믿음의 연합과 판단의 연합을 권장하는 일에 현명히 대처하라. …

아무도 자신의 판단이 잘못이 없으며 자신의 사상이 비평의 여지가 없거나 저들과 함께 일하는 다른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진로를 따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는 위치에 자신을 두는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편협한 기별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적이며 할 수 있는 한 그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방법에 있어서 연합하여야만 할 것이다.

인간에게는 오류가 있으나 기별에는 오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은 그 기별과 조화를 이루어야 마땅하다. 그 기별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마음을 쏟아야 하는 관심의 초점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제기해서 그것들을 밀고 나가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 최후의 위대한 날에 설 수 있고, 하늘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그 기별인 것이다. 형제간에 연합을 이루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이 땅에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에서도 결코 연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어떤 이들은 저들의 형제들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독립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 저들은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신 많은 지식들을 얻는데 실패하는 위치에 자신을 두고 있는 것이다. … 교리들과 계획들은 반드시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비교하여야만 한다. 우리는 서로를 배우기 위해 지나친 독립적인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 -히스토리컬 스케치, 122~125.

매력의 큰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빼놓아서는 안 된다. … 죄인은 항상 갈바리를 쳐다보아야 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로 가운데서 안식을 찾아야 하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며, 그분의 자비를 믿어야 한다. -복음전도, 184.

함께 진군하라!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24:12, 13).

하나님께서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분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신 한 백성을 택하셨으며, 이 백성은 언제나 수행하기에 까다로운 일을 갖게 될 것이다. … 우리의 교회에서 악을 제거하려면 많은 근면과 끊임없는 투쟁이 요구될 것이다. 엄격하고 공평한 규율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앙의 형식만 가진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훼손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들 스스로를 높이고자 은밀히 활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감람산 위에서,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 24:12)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분은 높은 영적 상태에서 떨어진 부류의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엄숙하고 엄격한 능력으로 새겨지게 하라. 우리가 믿노라고 주장하는 위대한 진리에 상응한 열성,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대한 사랑, 좋아하는 어떤 죄악에 대한 애착은 기도를 좋아하고 거룩한 사물을 명상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심령에서 떠나게 했다. 형식적인 종교적 예배는 고수되고 있지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영성은 죽어가고 있다. 이 무감각 상태, 이 슬픈 타락의 경향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 진리의 등은 은혜의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캄박거리다가 꺼져 버려야 하는가? …

자존심과 자만심은 영적 생명을 죽이고 있다. 자아가 높임을 받고, 자아가 이야기의 대상이 된다. 아, 자아가 죽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고 말했다. 이 교만하고 뽐내는 자만심과 이 자기 만족의 독선이 영혼에 퍼질 때는 예수님이 들어갈 장소가 없다. 자아가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어 전체의 영혼의 성전을 채우는 동안, 예수님에게는 열등한 자리가 주어진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것처럼 적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의 활동과 더불어 함께 일하실 것 같으면 도구에 불과한 사람은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의 재치,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에 돌리게 될 것이며, 그는 마치 바리새인이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눅 18:12)라고 기도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기뻐할 것이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질 때 그것은 것처럼 빈번하게 표면에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 …

우리가 유능하고 조화롭게 활동하는 것은 그 사업에 우리의 특징과 개성을 남기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 뿐이다. 천사는 “단합하라, 단합하라!”고 말했다. -교회증언 5권, 538, 539.

모든 교회는 훈련하는 학교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눅 4:18).

하나님께서서는 옛날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빛을 주시면서 오로지 어떤 한 계급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다. 다니엘은 유대 나라의 왕족이었다. 이 사야 역시 왕의 혈통에 속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아모스는 목자였다. 스가라는 바벨론의 포로였고, 엘리사는 땅을 경작하는 농부였다. 주님께서서는 선지자와 왕족들, 귀족과 천한 사람들을 그분의 대표자로 부르셔서 세상에 전해 줄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 주셨다. ...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교인들은 성경을 읽어주는 법과 안식일 학교의 반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법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고 병든 사람들을 간호해주는 최선의 방법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거기에는 건강학교, 요리학교, 그리스도인 사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분야를 가르치는 반들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는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경험 있는 교사들이 보여 주는 실제적 시범이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함으로써 방법을 지도해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과 연합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본을 따라 배우게 될 것이다. 한 가지의 모본은 많은 교훈보다 더욱 큰 가치가 있다. ...

하나님께서로부터 큰 지능의 선물을 위탁받은 사람들이 그 지능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그들은 한 동안의 시험 기간이 끝난 뒤 그 자신의 길을 따르도록 버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큰 재능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자아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취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을 위하여 해 주실 분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는 봉사를 받아 주시되 부족한 것은 그분께서 친히 채워 주실 것이다. ...

바벨론 궁전의 포로들에게 그분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오늘날 그분의 일꾼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학교 교육이 부족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때때로 그분을 위한 영혼 구원 사업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확신에 있었다. 그들은 놀라운 권고를 해주며 능력이 많으신 분을 날마다 배웠다. -치료봉사, 148~151.

위대한 개혁운동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고후 9:6).

밤의 이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을 큰 개혁 운동에 관한 광경이 내 앞을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다른 이적들이 행해졌다. 심지어 오순절의 큰 날 전에 나타난 것과 같은 중재의 정신이 보였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각성되었고 참된 회심의 정신이 나타났다. 사망에서 진리의 선포에 대하여 문을 활짝 열었다. 세상은 하늘의 감화로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진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축복을 받았다. 나는 감사와 찬양의 목소리를 들었다. ...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화 아래 우리에게 맡겨진 경고의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이 기별을 신속하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미구에 중대한 결정을 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올바른 편에 지혜롭게 서기 위하여 진리를 이해할 기회를 얻고 있는지 깨달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주님께서서는 은혜의 시기가 지체되고 있는 동안에 그분의 백성들이 열렬하고 지혜롭게 활동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 교회의 신자들 사이에서 집집을 방문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문서를 보급하는 일이 더 많아져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인간이 진리의 선포에 사심 없이 일하고 자금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여길 때만 균형이 잘 잡히고 완전하게 형성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아직 낮일 때에 일을 하고, 어떤 의무가 주어지든지 간에 이행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손이 할 일을 발견하는 대로 우리는 성실하게 그 일을 해야 하고, 어떤 희생을 하도록 요구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즐겁게 그것을 해야 한다. 우리가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릴 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후 9:6)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도시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을 내 앞에 제시하셨다. 이런 도시에서 사는 신자들은 그들의 가정 주위의 이웃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들은 조용하고 겸손하게 활동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하늘의 분위기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만일 그들이 자아를 보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그들의 감화의 능력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9권, 125~128.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골 3:12~13).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불화와 다툼은 사단의 일이며 죄의 열매이다.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화평과 사랑을 맛보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버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피차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각 사람은 이렇게 자문해 보도록 하라. 나는 사랑의 덕성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오래 참은 온유하게 되는 길을 배웠는가? 이런 하늘의 특성이 없으면, 재능과 학문과 웅변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처럼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귀중한 보화를 것처럼 가볍게 평가하고 것처럼 적게 구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신다. 만일 우리가 하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거짓 기초 위에 건설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성취할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앞에 제시된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사도를 통하여,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롬 12:9, 10) 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유발된 순결하고 이기심 없는 사랑과, 세상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무의미하고 기만적인 허식을 우리가 구별하기를 바란다. 이 저속한 모조품은 많은 영혼들을 그릇되게 이끌어 왔다. 그것은 범법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성실하게 보여 주는 대신에 그에게 동의함으로써 옳은 것과 그릇된 것 사이의 구분을 말살시켜 버릴 것이다. 그런 행위는 진정한 우정에서 결코 나오지 않는다. 그런 행동을 유발시키는 정신은 오직 육적 마음 속에 거한다.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친절하고, 동정적이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는 죄악과의 조화를 느낄 수 없다. 그는 악을 미워하고, 불경건한 자들과의 교제나 우정을 희생하고서 선한 것에 집착한다.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즐겨 감수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의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해줄 것이다. -교회증언 5권, 169~171.

교회에는 항상 증인이 있음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신 5:4).

하나님께서 증인이 없이 그분의 교회를 내버려 두신 적은 결코 없으시다. 교회가 통과한 시련과 시험, 도덕적 어두움 가운데서의 반대와 핍박 등 모든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그분의 사업을 깊어지고 앞을 향해서, 또한 위를 향해서 이끌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때에 맞는 인물들을 갖고 계셨다. 부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의 옷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그분은 참으로 당시의 고대 백성들의 교사이셨다.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형체 속에 감추시고, 그분께서는 자주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할 같이 … 대면하여 말씀하”(출 33:11) 셧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인도자이신 그분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둘러싸이셨으며, 모세를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고, 특별한 기별을 전파하도록 하신 선지자들에게 의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분께서는 거듭거듭 동일한 말을 반복하도록 그들을 보내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길이나 뜻을 따른 것이 아닌 어떤 기별을 그들을 위해 준비하셨으며, 이것을 그들의 입에 두어 전파하도록 하셨다. 그분께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언어와 말할 것을 주시겠다고 그들을 확신시키셨다. 마음을 아시는 분께서 백성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말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었다. …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교역자들이 팔짱을 끼고 편하게 지내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 때에 멸망이 홀연히 이른다. 모든 것이 분명 변영을 누리며 전진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사단은 깨어서 그 악한 천사들과 함께 그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다른 공격 방법에 대해 연구하며 의논하는 중이다. 사단 편에서 싸움은 점점 더 사납게 다가오를 것이다. 이는 그가 음부의 권세에 의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이 성결하고 불가항력적인 활기로 앞을 향해 움직이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의의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움직일 때, 대쟁투는 더욱더 치열해지고, 더욱더 결정적으로 되어갈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대치하며, 계획과 계획이, 하늘에서 기원된 원칙들과 사단의 원칙들이 대치할 것이다. 항상 변모하면서 그 형태가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게 될 오류로 더불어 진리는 그 다양한 국면 속에서 투쟁을 겪게 될 것이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04~407.

교회는 승리할 것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계 15:3).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게 한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보화, 신비스러운 그리스도의 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그분의 성령과 그분의 품성을 대표할 대리자들만큼 구주께서 바라시는 것은 없다. 인간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만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없다. 온 하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교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남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교회는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그분께 능력을 받아 진리를 선포할 하나님의 기관이다. 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순종한다면 교회 안에는 거룩한 은혜의 미덕이 있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충성한다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교회에 맞설 만한 세력은 없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대한 열심이 제자들을 움직여 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다. 그와 동일한 열성이 구속의 사랑,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우리 마음을 불붙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구주의 강령을 고대할 뿐만 아니라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틀 것이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원한 미덕, 많은 세대의 기쁨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것을 멸시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버린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비록 때때로 저지 당하는 듯이 보이는 그 발전은 결코 저지되지 않았다. 그분의 기별이 반대편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별에 좀더 힘을 주셔서 보다 큰 감화를 끼칠 수 있게 하신다. 진리는 거룩한 능력을 부여받아 가장 굳은 방벽이라도 뚫고 나아갈 것이며 모든 장애를 극복할 것이다.

그분의 수고와 희생의 생애 동안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어 주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영혼의 수고의 결과를 보시고 만족히 여기셨다. 영원을 내다보신 그분은 그분의 굴욕을 통하여 용서와 영생을 얻을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보셨다. 그분은 구속받은 자들의 환호성을 들으셨다. 그분은 구속받은 자들이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으셨다. ...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성읍의 문 어귀에서 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그분을 위하여 고통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 자들에게 주어질 정중한 환영사를 들을 수 있다. -사도행적, 600, 601.

진리의 빛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딤후 2:19).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모든 거짓된 혀는 잠잠해질 것이다. 천사들의 손은 이루어지고 있는 기만적인 꾀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사단의 누벽(龔壁)은 결코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승리가 수반될 것이다. 주님의 군대의 사령관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승리할 것이며, 모든 반대 세력은 패배할 것이다. 그 어떤 영혼도 하늘이 보내신 기별을 갖고 그들에게 온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너무 극성을 부린다. 너무 강력하게 말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흠을 잡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들은 강력하게 말할 것이나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듣는 이들이 그분의 음성이나 그분의 기별에 유의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귀들을 울리게 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이들을 나무라실 것이다. ...

우리에게는 지금 육적인 음욕과 식욕과 정욕이 깃든 바로 그 영혼과 골수를 찢어 쪼개 주님의 검이 필요하다. 여태까지 벌여졌던 것보다도 훨씬 큰 정도로 그것이 찢고 잘라 버리게 되길 바란다. 모든 교만한 자가 내동댕이쳐질 바란다. ...

나는, 그들의 믿는 바를 오늘날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며, 성도들에게 단 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 부패한 시대의 도덕적 어둠 속에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한다. 그대를 향해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 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는 자들을 향해서 표현된 하나님의 자부적(慈父的)인 사랑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는 최고로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우리는 그분의 아낌없는 공훈,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대상일 뿐 아니라 그 이상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해 즐거워하신다. 그분은 그들의 보증인 이시다. 그분께서는 거룩한 정신을 갖고 전심으로 그분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의로 옷 입히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진실 되고 충성된 모든 사람은 그분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게 된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아 볼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인 까닭이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10~415.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 1:12).

최후의 순간까지 바울의 생애는 다음과 같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그의 말이 사실임을 증거 하였다.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 씹을 당하여도 짜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 4:6~10). 그의 능력은 자신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영혼에 충만한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있었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킨 데 있었다. 선지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사 26:3)라고 하였다. 바울의 얼굴에 표현된 하늘에서 온 평화가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였다.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다. 그와 교제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감화를 느꼈다. 자신의 생애로 그가 선포한 진리를 몸소 수범했다는 사실은 그의 설교에 수긍시키는 능력을 부여하였다. 여기에 진리의 능력이 있다. 거룩한 생애의 꾸밈없는 무의식적인 감화는 그리스도교에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설교이다. 반박할 수 없을 때에라도 논쟁은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경건한 모본은 전혀 물리치기가 불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 그는 형장으로 함께 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반복함으로 힘과 용기를 주려고 애썼다. 그는 시련을 충실히 견뎌 그분의 자녀들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도 실패되지 않으리라고 그들에게 보증하였다. ... 머지 않아 시련과 고통의 밤은 끝나고 그후에 평화와 완전한 낮의 즐거운 아침이 동될 것이다.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함을 받고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그분의 의를 옷입은 바울은 그의 영혼이 구속주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몸소 가지고 있었다. -사도행적, 510~512.

영원한 파수꾼이신 그리스도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계 2:1, 2).

이 장면 속에는 영원한 파수꾼이 계시되어 있다. 교회와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회중과 회중, 마음과 마음 사이를 거니시는 그리스도께서 일곱 금촛대사이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아 하시지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지도 않으신다. 그 촛대들이 인간들의 손에 맡겨졌다고 가정해 보라. 그 촛불이 가물거리다가 꺼져버리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생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 즉 그리스도께서는 파수꾼이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 내부를 지키는 문지기이시다. ...

교회에 충만한 유쾌한 감화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을 계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하늘의 별들은 그분의 통제아래에 있다. 그분께서는 별들을 빛으로 가득 채우신다. 별들을 인도하시고 운동 방향을 잡아주시는 분도 그분이다. 만일 그분께서 그 일을 하하지 않으신다면, 그 별들은 추락한 별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분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연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놓은 선한 일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은 그들을 통해서 비쳐진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에 반사할 그분의 밝음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이 편에서 저편으로 그분의 교회들의 한 가운데를 걷고 계시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이 이러한 영적인 조건 안에서 그분의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지 열렬한 흥미를 가지고 바라보신다. 그분은 교회의 모든 집회마다 참석하신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거룩한 기쁨을 채움 받게 될 자들의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의 품성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사업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 충실한 자들은 저들을 위한 주님의 목적을 성취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에게서 기쁨을 찾으실 것이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아노라”(계 2:2).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받아드린 모든 자들의 역사와 경험을 잘 알고 계신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은 “나는 나의 손바닥에 너 희를 새겼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저들이 행한 노고와 사랑의 모든 행동을 소중히 여기신다. -리뷰 앤 헤럴드, 1903.5.26.

우리의 대언자 예수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중보자시다. 우리의 위치는 대속죄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 현재 우리의 대제사장이 탄원하며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장소를 표상하는 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에는 밖에서 속죄의 제물은 드리지 아니하였다.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중보의 사업을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죄의 용서를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야만 하였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일에는 인간의 공로도 중보도 필요가 없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죄의 담당자시요, 단 하나 뿐인 속죄 제물이시다. 기도와 고백은 모든 인간을 위하여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분께만 드러져야 한다. 그분께서는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이면 한 사람도 빠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신다. ...

가장 훌륭하게 창조된 지식인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 할 수 없다. 가장 웅변적인 혀로부터 나온 말들이라도 그분을 설명하는데 실패한다. ... 인간에게는 오로지 단 한 분의 대언자만이, 단 한 분의 중재자만이 있을 뿐이다. 그분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로 예수님을 내놓으신 그분께 대한 감사를 우리 마음 가득히 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표시하신 그 사랑,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나타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자. 우리는 이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데, 이는 그것을 측량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한을 측량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갈바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창세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을 바라보는 것뿐이다. ...

죄인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 없다. ...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대언자이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모든 관계는 아버지와 사람들과의 관계, 곧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께서 대표하신 사람들과의 관계와 같다. 그리스도는 그의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표자로 행동하셨다. 그는 우리의 대치물과 담보물로서 생애하셨다. 그가 고난을 당하시 죽으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이기심없이 바르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가 바란 것만큼 그도 열심히 일하였다. -영문시조, 1899.6.28.

하늘 법정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히 7:25).

이 세상의 구세주께서는 인류를 그분께로 이끄시며 저들의 공포심을 가라앉히며 저들의 어두운 감정을 몰아내시고 소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며 저들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대리자의 공로를 통하여 기꺼이 저들을 받으실 것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충성하는 신하로서 우리는 중보자이시며 대언자이시고 간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하늘 법정에서 탄원하고 계신 사실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심으로 영감을 받기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 세상의 궁전에서 왕이 자신의 진실성을 사람들에게 보증하기 위하여 가장 믿음직한 서약을 할 때, 그가 약속을 이행 할 때 도로 찾는 조건으로 자기 자식을 불모로 내놓는다. 하늘 아버지의 진실성에 대한 서약이 어떠한가 보라! 하나님께서 하늘 총회의 불변성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독생자께서 인성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시도록 허락하셨으며 이 지상에서의 짧은 기간만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도 인성으로 남아 있게 하여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영원한 서약의 표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부요하심이 얼마나 심오한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왕국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우리가 갈바리의 광경을 바라보고 인성을 쓰신 수난자(受難者)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을 볼 때 모든 민족적인 차별과 모든 파벌의 차이는 말살될 것이며 모든 계급의 명예와 모든 계급 제도의 교만은 사라질 것이다. ...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어떤 지위나 유한한 지혜가 아니며 인간적인 자격과 재능도 아니다. 인간의 지능과 이성과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천국의 안목에서 볼 때 가치가 있는 것은 신령하고 도덕적인 성품이며 그러한 성품은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게 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후사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자들만이 구세주의 형상을 지니고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가려뽑은 기별 1권, 258, 259.

중보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히 4:14).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 영으로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니, 그분의 뜻을 받들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해야 하지 않을까? 자녀들이여, 인내와 믿음과 소망을 품고 키우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아 계신 중보자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그대의 책무를 항상 게을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어떤 인물이라든가 형제를 비난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 오래된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점점 나아지지도 않는 그런 날들이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랑을 품고 키우라. 그리고 우리 입에서 사악함을 연상시키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말라. 그 문을 급히 닫고 꼭 잠가 두라.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의 문을 열고 그대로 두라. 그 까닭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레바논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시원한 생명수를 마시라. 그러나 어둡고 회의적인 느낌이 드는 골짜기에 흐르는 더러운 물은 마시지 말라. 그 사업 안에는 많은 진실함이 있으나, 다른 사람들의 옷에 있는 저들자신의 쓴맛으로 우리의 영적인 향기를 더럽힐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금하신다.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해 숙고하고 그것을 반복할 시간적 가치나 악한 상상을 할 여유가 없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모든 가혹함을 끊어버리고 향기로운 말을 하며 예수님에게 우리의 신뢰를 견고하게 두어야 한다.

우리를 위해 중보 해 주시는 살아 계시는 대언자를 우리는 모시고 있다. 우리도 실수하는 자의 편에서 서서 원칙대로 중보하는 자가 되자. ... 그분은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간에 연합을 도모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흥미를 갖도록 하자. 그분과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일치감과 동일성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간에 신뢰심을 잃지 말고 사랑하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리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의 모든 가설들과 이상들은 그대의 형제들에게 올바른 것은 아니다. ... 이런 악한 추측과 상상들을 내어 버리라. 그리스도 편에 굳게 서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용기를 주는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용기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자. 하나님의 사랑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물로 시기와 질투의 불을 끄도록 하자! 멸망하기에 이른 저들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속히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원고 129, 1901.

현재 진행 중인 그리스도의 중보사업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

갈릴리에서 열린 산상 집회에 불러모을 수 있는 신자들은 다 모였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친히 지정하셨다. ...

약속된 시간에 약 오백명 가량의 신도들이 적은 무리를 이루어 산중턱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듣고자 열망하였다. 제자들은 이 무리와 저 무리를 차례로 지나다니며 저희가 예수님에 관하여 보고들은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 밝혀 주었다. 도마는 자기의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고 어떻게 그의 의심이 일소되었는지를 말해 주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다. 아무도 그분이 어디서 오셨으며 어떻게 오셨는지를 말할 수 없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전에 그분을 본 적이 전혀 없었으나 그분의 손과 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을 볼 수 있었다. 그분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으며 그들은 그분을 보자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의심했다. 그와 같이 의심하는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발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편에 둔다. 이러한 사람들은 저희의 불신 때문에 많은 손실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신자들과 가지신 단 한 번의 유일한 회견이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에게 경배하였는데, 죽음으로 닫혀졌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말씀은 특이한 힘으로 그들을 감동시켰다. 그분은 이제 부활하신 구주셨다. 저희 중에 많은 이들은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사단의 동작을 제어하는 일에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아 왔다. 그들은 그분이 예루살렘에 그분의 나라를 세울 권세를 가졌고 모든 반대를 진압하고 자연의 힘을 제어할 권세를 소유하셨다는 것을 믿었다. 그분은 사나운 물결을 잔잔케 하셨고 흰 거품이 이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이다. 이제 그분은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바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그분의 말씀은 듣는 자들의 마음을 지상의 일시적인 사물에서 하늘의 영원한 사물로 이끌어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에 대한 최고의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시대의 소망, 818, 819.

진실하신 우리의 재판관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대상 28:9).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진실되다. 그분께서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생각을 알고 계시며, 또한 그분께서 만드신 인간의 행위의 원칙들을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 놓인 문제들 앞에서 그들이 취하게 될 행동들을 아시고 계시며, 닦쳐오는 모든 유혹 속에서 그들이 처한 그 모든 경우에 대처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도 아신다. “여호와와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잠 15:3).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욘 28:24). “여호와께서는 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대상 28:9).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 …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리를 짓밟고 무시하므로 스스로 속임수에 빠져 있는 가련한 영혼들을 동정하신다.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라. 사단의 통치를 받아서 정신이 흑암에 싸여 있음을 보고, 그대는 분노하거나 걱정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동정하고 슬퍼하라.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남을 판단할 만큼의 의와 자유가 그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모세도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심판을 선고할 자격을 받지 못했다. 모세의 경우처럼 인간 행위의 명백한 연약함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

하나님의 일군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아야 하나, 저들은 그러한 주장이 실현되도록 하게 할 자유가 없다.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나가지 말고, 비슷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며, 그대에게 치욕이 되는 것들을 말하게 하는 자들의 모임을 멀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믿음은 손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 그대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단과 그의 회를 만나게 된다. 저들과 억지로 만났을 때는 구세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라.” 주님께서는 그대의 보호자이시다. 그분은 그대에게 하나님의 진신갑주를 입힐 것이며 그분의 성령은 그대의 마음과 생각을 감화시켜 그대의 음성으로 이리의 울부짖음에 붙잡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불신과 속임의 영이 우리 속으로 침투할 때, 우리는 육신의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불친절하고 무례하며 경계하는 말 한마디도 우리 입에 담아서 안되며 펜으로도 그런 말들을 적지 말아야 한다. 남들이 욕한다고 되받아 욕을 해서 안 된다.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서신 18, 1895.

위대한 대속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

아담은 그가 무죄하였던 때에는 창조주와 간격 없는 교통을 즐겼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그 심연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고 하늘에서 땅으로 축복 혹은 구원을 전달할 수 있었다. 사람에게에는 여전히 창조주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끊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통하여 인간과 교통하시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선고를 내리신 때로부터 홍수 때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전 세계를 구원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순종의 생애를 택하지 않고 죄의 생애를 택할 것이 아담에게 보여진 바 되었다. 세대가 계속됨에 따라 범죄는 증가될 것이며 죄의 저주는 더욱더 인류와 짐승에게와 지상에 내릴 것이었다. 사람의 수명은 인간 스스로가 죄의 생애를 함으로 짧아지고, 체력과 인내력, 도덕적, 지적 능력은 저하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각종 참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구속의 경륜의 대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없게 될 것이다. …

희생 제사들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항상 상기시켜 주고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가 동반된 시인과 약속된 구속주를 믿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그것들은 타락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은 죄라는 엄숙한 진리를 깊이 명심시키려고 제정되었다. 아담에게 있어서 첫 희생 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 들려져야만 하였다. 그는 이 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하였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었다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는 일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무죄한 동물을 희생 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한 자를 구원하려고 이처럼 놀라운 속전(贖錢)을 지불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에 경탄하였다. 한 희망의 별이 어둡고 무서운 장래를 비추어 주었으며 미래의 완전한 황폐의 공포를 제거해 주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단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57~69.

하늘의 기록책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4).

우리의 생애와 품성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하여 하늘의 책에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를 개인적으로 생각하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사랑이 지난해 보다 커졌는가?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또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기뻐할 것이며, 이러한 사랑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강건해 질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면, 우리의 마음속과 생애와 품성은 정결할 것이며 우리의 대화에는 거룩함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나 입술에는 거짓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과거의 생애를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되고자 함으로써, 그분께서 목숨을 바치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증거를 우리 속에서 찾아보라.

열정적이고 자아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심령을 충분히 드러내고 그분과 같은 형상을 품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자들은 그들의 행위로서 이 세상이 그들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하였다.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나은 나라 곧 하늘나라를 바랐던 것이다. 그들의 대화와 관심은 하늘의 사물에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 있었으나 세상과는 분리된 생애를 살았다. 그들의 생애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애였다. …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목적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그분을 따르는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의존하신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무한한 선물로 산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을 떠나셨다. 죄 없는 천사들과 교통하면서 그들의 흠모를 받는 것을 마다하시고 하늘을 떠나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낮추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의 위대한 선물에 동참한 우리는 구원의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넓히기 위하여 지금 그분의 희생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는 하나의 이기심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은 저들의 주님께서 가지셨던 동일한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들은 비록 저들이 모르는 사이에 한번 나타냈던 것들이었을 지라도 방종을 부인하고, 이기심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멀어지게 될 것이다. …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에 저들도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영문시조, 1890.12.22.

생명의 책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 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 하리라”(계 3:5).

만일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것도 마음 가운데 품어서는 안된다는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이 땅에서 약속하신 흰옷을 우리는 입지 못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흰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는 이기는 일을 지금 하여야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의 “이름을 생명 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일단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이들의 이름은 생명 책에 기록된다. 그리고 그들의 품성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도덕적 가치를 재고 있다. 천사들은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의 품성의 전개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 책에 보존될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은혜의 기간이 우리에게 허용된 것은 우리의 품성의 옷을 빨고 어린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하기 위함이다.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누가 죄와 이기심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가?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 사도 바울의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면 자아에 대하여는 죽게 된다. 우리가 자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누구의 이름이 생명 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인가? 자신의 전 존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 자의 이름도 적히게 될 것이다.

우리중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정신과 품성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정신과 품성처럼 되어야 한다. 우리의 존재 바로 그 속에서 이기심이 떨어져 나가야 한다. 자아와 이기심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어떤 특별한 일을 해낼 수가 없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떠한 것도 아주 중대한 것으로 취급한다. 그런 이들은 자아 중심적이며 모든 사물에 대해 자신위주로 생각한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다면,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만일 그대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진다면, 주님께서서는 고기 떼를 불러모으실 것이며,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자서전, 138, 139.

심판이 시작되고 책들이 퍼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퍼 놓였더라”(단 7:10).

또한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 다니엘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퍼놓였더라”고 말한다. 요한은 그 같은 광경을 묘사하면서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계 20:12)라고 말한다.

생명 책에는 하나님을 변함 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 10:20)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그의 성실한 동역자들에 대하여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빌 4:3)고 말한다.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의 때를 미리 보면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단 12:1)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 책에 기록된 자들”(계 21:27)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말 3:16) 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된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며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느 13:14)라고 말할 때 그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언급했다. 하나님의 기념 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 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희를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시편 기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 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시 56:8)라고 말한다. …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

세상 법정 of 공판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타내는 가장 깊은 흥미도 생명 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온 세상의 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심사되는 하늘 법정에 기울이는 흥미에 비하면 다만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0~484.

하늘 기록책에 등록됨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9).

하나님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자들은 이 세상 일에서는 변영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들은 자주 심한 시련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요셉은 그의 덕성과 성실을 보존했기 때문에 중상과 핍박을 당하였다. 하나님의 택한 사자, 다윗은 그의 악한 원수들에게 맹수처럼 사냥을 당하였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절에 진실하고 양보가 없었기 때문에 사자들의 굴속에 던져졌다. 욥은 그의 세속적인 소유물을 박탈당하고 육체적으로 너무도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멸시를 당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성실을 유지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의 입에 넣어 주신 말씀을 전하였다. 그의 솔직한 증언은 왕과 관원들을 분노케 하였으므로 그는 몸서리나는 구덩이에 던져졌다. 스테반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았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기별자였기 때문에 투옥되었고, 체찍과 돌에 맞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했다. 사랑 받는 제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밧모 섬으로 추방당했다.

이 인간적인 확고부동의 예증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실성, 곧 그분의 내주(內住)하심과 붙들어주심의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세상이 이 겸손한 사람들을 볼지라도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도덕적 가치를 분별할 수는 없다. 그것은 아무리 극심한 시련과 폭풍에 시달릴지라도 가장 암흑한 그 시간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배의 키를 쥐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조용히 의존하는 믿음의 업적이다. 믿음의 눈만이 영원한 부(富)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간과 감각의 사물 저편을 볼 수 있다. …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들이 어느 곳에나 드러나 있고 그것들의 조화 속에서 기뻐하는 우주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철학자는 가끔 이 놀라운 경이들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창조한 손을 바라보지 못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영광스런 불멸의 소망이 하나님의 원수들의 미래에 광명을 던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믿음의 영웅들은 세상의 어떤 부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유업,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켜 줄 유업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기록 책들에 시민으로 등록되어 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의 후사로 삼으신 자들의 최후의 상급이 될 것이다. -교회증언 4권, 525, 526.

하늘 성소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히 8:1, 2).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가 된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 주고,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의와 죄 사이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 준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긴요하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히 6:20)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다. 거기에 치르어지는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 대한 최대한의 요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

사단은 사람의 품성의 결함을 발판으로 온 마음을 사로잡고자 활동한다. 사단은 사람이 만일 그 결함들을 고집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자신이 성공할 것을 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치명적인 쉼변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항상 힘쓰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쉼림을 받은 그분의 손과 상함을 입을 몸으로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신다. …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각 시대의 대쟁투, 488, 489.

대속죄일에 살고 있음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교”(레 23:27).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써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 책에서 도말 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허(浮虛)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악한 경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거기에 관련된 관심은 참으로 심각하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 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각 사람이 구주의 권고에 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긴하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막 13:33).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계 3:3).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각간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마쳐진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의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 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1, 12). -각 시대의 대쟁투, 489~491.

대속을 믿는 믿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히 6:19).

그대가 실망을 느끼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어라. 그대의 형제들이 그대를 오해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대의 만형님 예수님께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분께서는 올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절기 중 큰 날에 하신 말씀에는 놀라운 의미와 능력이 담겨져 있다. …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들은 흔히 듣게 되는 그런 격언들이 아니다. 그 교훈들은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들이다. 그러나 거룩한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우리 앞에 놓인 희망을 꼭 붙잡으라고 권면 하였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장된 넘치는 축복을 우리 스스로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 소망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도 우리 앞에 있다. 우리를 위한 이런 축복이 우리 구주를 기쁘게 하기에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나 약속하신 그분을 믿음으로써 이런 소망을 꼭 붙잡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은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죄 많고 멸망할 인간을 위한 용서와 그 불멸함을 사셨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런 선물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안전하고 든든한 영혼의 닷 같은 이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증보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폭풍 속에서도 확고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저 영광스런 소망을 명상하고 믿음으로 붙들라. …

우리는 우리들 자신 속에서는 구원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또 우리가 바라보면 살 수 있다. …

가련한 인생들이 썩어질 육체의 노력으로 자신이나, 남의 죄의 짐을 지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죄의 짐을 지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대치물과 죄짐을 지시는 자가 되실 수 있다. 그리스도의 선구자는 부르짖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하였다. … 그대 자신의 눈을 감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소망을 품고 용기를 가지라. 그대의 소망을 자신에게 둘 것이 아니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그분에게 두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에 대해 이야기하라. -리뷰 앤 헤럴드, 1896.6.9.

대속-우리의 평안의 토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크신 선생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충만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광범위한 일들을 곧 하실 터인데, 우리를 그분의 신성에 참여케 하심으로써 우리의 본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과 연결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과 연결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특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을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리 마련된 화복은 우리의 평안의 토대이다. 우울한 느낌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대는 그대의 감정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까닭은 그대의 전망은 항상 밝지 않기 때문이며 그대는 그대의 영혼의 낙담의 옷을 입으려고 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대를 버린다고 생각한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면 그대는 평안할 것이라고 하신다. 우리 구세주와의 대화를 시작하므로 우리는 평안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사단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자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우리는 믿음을 끊임없이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 간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사야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와 이름의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지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대는 시편기자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리뷰 앤 헤럴드, 1896.5.19.

예수님께 더 꼭 매달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호 6:3).

사단이 그대에게 그대의 죄가 이리이러하니 하나님 안에서 어떤 종류의 큰 승리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대는 많이 사랑한 자가 많이 용서를 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사단에게 말해 주라. 죄를 변명함으로써 그대의 유죄함을 감소시키려 애쓰지 말라. 그대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약속 위에 바로 설 수 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 치러진 무한한 희생에 동참하겠노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예수님께 바짝 매달리라. 그러면 그분의 크신 사랑이 그대를 그분께로 이끌 것이다.

나는 누구라도 저들의 믿음을 견고케 함이 없이는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는데 모든 진보하는 발걸음마다 저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디더야만 한다. 만일 저들이 신실한 믿음 안에서 신앙의 경험을 가진다면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할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소유한 재능들은, 저들의 웅변과 솜씨는 저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

사도 바울은 그가 위안 받았던 그 위로 자와 더불어 그의 형제들이 위로 받게 되기를 바랐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계속되는 위로와 능력을 발견한다.

우리는 한눈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자. 우리와 그분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는 말씀이다. 우리가 신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면 우리의 삶과 품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우리는 품성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데에 게으름을 피울 수 없다. 또 주위 환경에 수동적으로 굴복할 수도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리라는 생각도 하지 말 것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꾼이다.

잔인하고도 결연한 원수는, 단련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끊임없는 기도과 산 믿음으로 인도되지 않은 모든 영혼들을 피어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는 육신으로서, 우리 자신을 사단의 계속되는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 공개적인 것이건 은밀한 것이건 상관없이 예수님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다. -자서전, 135, 136.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 7:1, 2).

나는 원수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고 있다. 내가 모든 영혼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결연한 태도를 취해야 할 때가 있으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남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백성들이 분열되기 시작하면, 음부의 모든 권세들을 기쁘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게 된다.

다툼과 분열에 이르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불의 속에서 표류할 커다란 위험에 처한 이들도 있다. 지금 그대는 이러한 위급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연구하라. 그 영혼들이 자신들의 처신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나는 가슴이 메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다. 그대는 회개의 필요성을 감지할 수 있다. 그대는 마음을 돌이킬 필요가 있다.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시간이 없다. 하나님께 탄원하라. 왕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대가 한발자국씩 진보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다”고 선언할 것이다.

모세는 선언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신 4:5-9). -서신 30, 1906.

구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만일 그대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대가 죄없다 아니하실 것이다. 누가 흠과 점도 없는 품성과 생애로 하나님 앞에 서서 변론하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감히 저들의 형제들을 비판하며 정죄하겠는가? 그분의 피의 효능으로 용서를 구해야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저들의 동료죄인들을 용서하며 사랑하고, 동정해야 할 커다란 의무아래 있는 것이다. 그대가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동안 주님께서도 그대를 정죄 하신다. -리뷰 앤 헤럴드, 1886.11.30.

품성의 유일한 참된 표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 7:3).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는 충고라 할지라도,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죄의 과증함은 다 나타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타인의 결점을 잘 찾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다. 품성이나 생활에서 결점을 발견했다고 생각할 때, 그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 몹시 안달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비 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통해 끌려다니는 품성의 특성은 비판의 대상이 된 결점과 비교할 때 마치 티에 대한 들보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신다.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를 통해 구주의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을 여는 감화를 끼치지 못한다. 이들은 복음의 따뜻하고 친절한 정신을 잘못 나타내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귀한 영혼들에게 상처를 준다....

그리스도만이 품성의 유일한 표준이시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표준으로 삼는 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위치에 놓게 된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요 5:22)셨으므로, 사람들의 동기를 비판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다시 찬탈하는 것이다. 이처럼 스스로 판관과 비평가의 위치에서 자들은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송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살후 2:4)는 적 그리스도 편에 자신을 두게 된다.

가장 불행한 결과로 이끌어 가는 죄는 바리새 주의 특성인,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를 모르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 신앙 경험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도 거기에 안 계신다. 즉, 그분의 임재의 빛이 거기에 없게 되는 것이다. 타인의 결함을 찾아내는 데 남다른 지각과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에 빠져 있는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신다. -산상보훈, 125, 126.

잘못을 범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체면은 물론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그대는 눈에서 들보를 빼고 형제를 도와 줄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제서야, 형제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를 감동시킬 수 있다. 유순한 정신과 친절하고 마음을 끄는 행동이 실수한 사람을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가리워 줄 수 있다. -산상보훈, 128, 129.

품성의 기초가 되는 진리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11).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훌륭한 원칙들이 실제적 생활에서 예시될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품성의 기초로 삼기만 하면, 쾌락의 유혹, 관습의 변덕, 세속을 사랑하는 자들의 경멸, 자아 방종을 위한 마음의 소란 등의 영향을 무력화시키는 확고한 목적을 갖게 될 것이다. 양심이 먼저 계발되어야 하고, 의지는 굴복되어야 한다. 진리와 의에 대한 사랑이 심령을 지배해야 하고, 하늘이 인정할 수 있는 품성이 나타나야 한다.

우리에게는 확고한 신앙적 원칙을 지지해 주는 능력에 대한 두드러진 예증이 있다. 심지어 죽음의 공포도 피로에 지친 다윗으로 하여금 용감한 군인들이 생명을 내걸고 길어 온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도록 할 수 없었다. 입을 크게 벌린 사자의 굴도 다니엘이 드리는 매일의 기도를 금지할 수 없었고, 맹렬한 풀무불도 사드락과 그의 친구들로 하여금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할 수 없었다. 원칙에 확고한 젊은이들은 하나님께 불성실하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피하고 고통을 개의치 않고 사자의 굴과 뜨거운 풀무불까지도 용감하게 맞설 것이다. 요셉의 품성을 주목해 보라. 덕성이 심하게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는 완전했다....

우리가 완고한 젊은이들의 행동과 습관에 굴복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엘리사는 바로 그의 사업의 초기에 벤엘의 젊은이들에게 조롱과 조소를 받았다. 그는 매우 온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 욕하는 자들을 저주하게 하셨다. 그들은 엘리사의 승천에 대하여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엄숙한 사건을 조롱거리로 삼았다. 엘리사는 자신의 거룩한 부르심에 있어서 젊은이들이나 젊은이들이 그를 우습게 보아 가볍게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냈다. 그들이 그보다 먼저 올라간 엘리사처럼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그에게 했을 때,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다. 그들에게 임한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 후에 엘리사는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었다. 50년 동안 그는 벤엘의 성문을 출입하며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왕래하면서 가장 악한 무리들과 무례한 제으름뱅이들과 방종한 젊은이들 사이를 지나다녔지만 아무도 그를 조롱하거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로서의 그의 자격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의 사업의 초기에 있던 무서운 가혹한 처사에 대한 이 한 가지 예증은 그의 온 생애 내내 존경을 얻게 하는데 충분했다. -교회증언 5권, 43, 44.

그리스도는 재판관처럼 말씀하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마 23:37).

예수님께서서는 그분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재판관처럼 말씀하셨다. 자주 친절하게 간청하시던 그리스도의 음성이 이제 책망과 정죄의 음성으로 들렸다. 청중들은 벌벌 떨었다. 예수님의 말씀과 안색(顔色)으로 말미암아 받은 인상은 결코 씻어 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께 욱 돌리는 위선과 큰 죄악에 대하여 분개하셨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그럴 듯한 기만적인 논법 가운데서 그 분은 사단적 동작의 역사를 분간하셨다. 죄에 대한 그분의 탄핵이 날카롭고 엄중하였지만 그분은 보복적인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흑암의 왕자에 대하여 거룩한 의분을 가지셨으나 분노한 기분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그와 같이 사랑과 자비의 이름다운 특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도 죄에 대한 의분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를 욱하는 자들에게 격분하거나 욱할 감정을 갖지 않을 것이다. …

예수님께서 성전과 청중들에게 미련이 있는 듯한 시선을 던지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는 거룩한 동정의 표가 나타났다. 마음의 깊은 고민과 쓰라린 눈물 때문에 목메인 음성으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부르짖으셨다. 이것은 이별의 몸부림이었다. 그리스도의 애통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왔다. …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 같이 잠잠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불러모으시고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곳에 있는 원수들에게 쳐서 내어쫓기는 모습이 아니요 그분의 일을 성취하시고 가시는 모습이였다. 그분은 논쟁에서 승리하시고 물러나셨다.

다사한 그 날에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간 진리의 보석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상이 생애 속에 침투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포부가 일깨워졌으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사람들은 선두에 나와 그 사업의 위대함에 부합하는 지혜와 열심으로 그들의 거룩한 사명을 성취하였다. -시대의 소망, 619, 620.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함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롬 14:10).

우리는 시대의 종말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 밖에서 오는 시련들이 많아질 것이다. 시련들이 교회 안에서 오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진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다 만드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형제들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하면 할수록 그의 애정은 그리스도 안에 더욱 집중되고, 이 세상에서 그가 당하는 고생과 난관에 의하여 적게 방해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남녀들로 자라나고 있는 자들은 품성에 있어서 더욱 더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불평하고 불만족해 하는 기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결점을 찾는 자들이 되는 것을 멸시할 것이다.

이 시대의 교회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즉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시 54:4, 빌 4:13)고 담대히 말할 믿음을 가져야 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신다. 어느 때에나 교회가 죄를 버리고, 믿고, 진리 안에서 행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았다. 믿음과 겸손한 순종에는 세상이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그분의 섭리의 명령은 전진하라는 것, 곧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과 성결의 길에서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바로 시대의 끝에 이르기까지 밝은 빛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 가운데서 더욱 더 높이 향상하라는 것이다. 아,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의 초보적인 원칙만을 언제까지나 배우고 있는가?

교인들이 이 무서운 미지근한 상태에서 각성하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면 주님께서서는 교회에 주실 풍성한 축복을 갖고 계신다. 허식적인 종교, 생명력이 없는 말, 도덕적 힘이 없는 품성, 이것들은 참된 증인이 교회에 보낸 엄숙한 기별 가운데서 지적된 것들이며 그들에게 교만과 세속주의와 형식주의와 자만에 대하여 경고한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는 겸손한 자, 고통 당하는 자, 성실한 자, 인내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주어진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교회증언 5권, 483~485.

심판 때에 칭찬 받을 신실한 어머니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 하니라”(삼상 1:27, 28).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약을 그 아들이 성전을 출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한 것이 아니다. 아주 어린 시절, 아직 지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던 그 때부터 한나는 아들을 가르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여기도록 가르쳤다. 그녀는 아들 주위에서 늘 대할 수 있는 것 전부를 동원해서 아들의 생각을 창조주께로 이끌었던 것이다.

아들과 헤어졌어도 그 신실한 어머니의 염려는 그치지 않았다. 그 아들은 그녀의 기도 제물이었다.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이 얼마나 크며 그 신실함의 보상 또한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어머니의 나날의 감화로 아들은 영생을 준비하든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준비하든가 한다. 집안에서의 어머니는 설교단의 목사보다, 왕좌의 임금보다 더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다. 진리와 개혁을 불굴의 의지로 수호한 사람들, 담대하게 일을 해나간 사람들, 시련과 유혹의 와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섰던 사람들, 속세의 명예나 속세의 삶 그 자체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에 대해 높고 거룩한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경건한 어머니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빛을 지고 있음이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밝혀질 것이다. …

하나님께서서는 선을 행함이 가정과 나라 그리고 개인에게 행복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 …

유년기에 품었던 생각들과 인상들에 의해서 모든 청년들은 그들 자신의 생애의 역사가 결정되고 있다. 청년의 때에 형성된 바르고, 고결한 많은 습관들은 품성의 한 부분들이 되며, 일반적으로 각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한 진로의 특징을 이루게 된다. 저들이 택하는 대로 청년의 때는 부도덕하든지 덕이 있게 되든지 하게 된다. … 오늘날의 젊은 이들은 사무엘 당시와 같이 주님의 눈앞에 귀종하다. 저들은 저들의 이름이 생명 책에 기록되고 우주의 군주와 천군들이 기쁨으로 바라보게 된다. 저들의 그리스도인의 고결함을 충실하게 유지함으로써 젊은이들은 마치 고상한 루터와 같이 개혁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요구된다. 하나님께서는 저들 각자를 위한 자리와 사업을 가지고 계시다. -영문시조, 1881.11.3.

그대는 그리스도를 택하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수 24:15).

사람들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매개를 사용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또한 성령을 통하여 경고와 책망과 교훈의 기별을 보내신다. 이런 수단들은 사람들의 이해력을 깨우쳐 주고, 그들에게 그들의 의무와 그들의 죄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보여주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또한 영적인 부족감을 그들에게 깨우쳐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필요한 은혜를 그분 안에서 발견하게 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 대신에 그들 자신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 되어 있지 않으며,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 속에 살아 계시기 전에는 그렇게 될 수 없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고 그분의 모본을 따르는 일을 거절함으로써 그분을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하든지, 자아 부정과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연합을 이루든지 한다. 우리는 각자 스스로 그리스도를 택해야 한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의 이런 연합은 본래 그분과 원수 되었던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철저한 의존 관계인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도 그 관계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주도면밀함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명목상 구주를 받아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의 유일한 지배자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속죄의 필요를 느낀다. 그들이 이 필요를 깨닫고 마음의 변화를 바라기 때문에 투쟁이 시작된다. 그들 자신의 의지, 아마도 그들이 택한 애정의 대상자나 직업을 버리는 데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간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심한 모든 사람은 이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한다. 우리는 내외의 유혹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아를 정복하고 애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리하면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된다. 메마르고 생명이 없는 것같이 보이는 가지가 산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참 포도나무의 산 가지가 될 수 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에 의하여 맺혀진 열매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 의해서도 맺혀질 것이다. 이 연합이 이루어진 후에, 오직 계속적이고, 열렬하고, 힘든 노력에 의해서만 그것이 보존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거룩한 결속을 보존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신다. -교회증언 5권, 46~48.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시 24:3~4).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또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다. 앞에 것에 실족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뒤에 것에 실족하는 이가 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성급하게 처신한다. 사단은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알고 능수 능란하게 계속적으로 그들 위에 군림한다. 그렇다고 누구 한 사람도 좌절하도록 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자그마한 성가심이나 시련이 생겨날 때마다 그것들에 끈기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은총을 달라는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라. 고요함 속에 힘이 있다. 하늘의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리기 전에는 한 마디 말도 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대가 늘 이렇게 한다면, 그대는 성마른 성격을 금방 단산하게 되며 하늘로 향해 나아가는 작은 하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백성들이 저들의 손을 깨끗이 하며 저들의 마음을 정결케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들을 불행하게 할 것인가? 만일 저들이 친절하고 인내하며 예의바르고 참는 것이 저들의 가정에 불행을 가져오게 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저들의 가족들에게 나타내는 친절은 저들 자신에게 반영될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가정에서 실행되어야 할 일이다. 만일 가족의 일원이 이곳 지상에서 평화한 가운데 사는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크고 흰 보좌 주위에 모이게 될 가족들과 살 준비를 하지 못할 것이다. 죄는 언제나 암흑과 속박을 가져오나, 바른 행동은 평화와 거룩한 즐거움을 가져온다. ... 환란의 때에 원수가 우리를 압박할 때에, 우리는 천사들 가운데 동행할 것이다. 저들은 우리들을 두르는 불 성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느 날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을 거닐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처럼 엄청나게 큰 때도 없었다. 믿음의 손을 암흑 속으로 뻗어 무한한 능력의 손을 잡자. 죄와 분리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 우리들의 세상에 오셨음을 잊지 말 것이며, 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의 얼룩과 오점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능력의 범위나 한계를 정해서는 안된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현재 상태, 즉 쫓겨고 오염된 상태 그대로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자서전, 157, 158.

심판 때에 품성의 표준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롬 2:12~13).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과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에 관한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들이 요한 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진리임을 발견하였다. 그 장(章)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상의 거민 들을 준비시키게 될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이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를 가르쳐 준다. 그것은 구주의 중보 사업이 마치고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데리러 세상으로 돌아오시기까지 선포되어야 할 진리를 말해 준다.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모든 사람, 곧 산 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들에게 명한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결과가 다음의 말씀에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나니.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계명은 심판의 때에 품성의 표준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 곧 ...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롬 2:12~16)라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히 11:6), “범사에 믿음으로 아니하는 것은 죄”(롬 14:23)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전 12:13)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요일 5:3),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잠 28:9). -각 시대의 대쟁투, 435, 436.

각 사람에게 가장 심오한 관심사가 되는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가?”이다. -청년 지도자, 1897.6.10.

생명의 면류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8).

바울은 항상 그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것은 자기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바울은 그가 그토록 사모하던 생명의 면류관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받을 상급에 마음을 두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망을 품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은총을 받은 이들 모두가 그분을 완전하게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받을 보상이 무엇이냐를 따지지 않고, 순결함과 단순한 믿음을 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심판하실 그런 완전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면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여 일을 해야 한다.

심판의 광경을 짐작해 보면, 보상은 의인들에게 주어지고 형벌은 악인들에게 내려질 것인데, 의인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상급을 받을 만큼 일을 했던가 라고 생각하며 의아해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믿음이 있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하는 노력 없이도 그분의 성도된 한 사람으로써, 확실한 보상이 보장되는 그런 봉사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했던 자들인데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다. 그들의 행함의 동기는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일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다. 그들이 행한 일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기 자신을 고난받는 인간과 같다고 생각하신 그분께서는 이러한 연민과 사랑의 행위들을 마치 그분 자신께 행해진 것처럼 여기신다.

우리가 받은 것 전부, 우리의 재능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얻은 승리는 모두 그분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승리는 우리 자신이 자랑해야 할 그런 소지가 있는 승리가 아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 우주세계 앞에서 시험과 시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보시기 위하여 시험하시므로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더욱 자신을 살피야 할 것이다. 단 순함 가운데 일하고 있는 이들은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 저들은 하나님과 대화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충만할 것이다. -영문시조, 1889.8.9.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상급이 있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시라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시 35:24).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에 각 사람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를 베푸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평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임금이 요구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는 비싼 값을 주고 마련한 그 예복을 입는 일을 창피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그의 주인을 모독하였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는 임금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 후에 임금은 종들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명령했다.

잔치 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한다. 복음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 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가 줄 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실”(계 22:12)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이다.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진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하늘 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다.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교회에게 “뿔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계 19:8)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엡 5:27)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실물교훈, 309~311.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12).

죄의 담당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셨을 때 그분은 인간의 생명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흐름 속에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속죄물로 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가 출생하실 때에 그는 단 한점의 죄도 없으셨다. 하지만 우리 인간 가족들과 꼭 같은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는 단지 우리와 비슷한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성을 취하셨고, 인간의 생명에 참여하셨다. …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왕복과 왕관을 벗으시고, 인간의 대치물과 담보물이 되시기 위하여 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셨다. 이는 그가 인간으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하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이라는 신분으로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이 되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죽으실 수가 있었다. 죽음으로써 그는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죽음에 처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무덤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

그리스도는 요셉의 열린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다. 세상의 구주이신 그분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독사의 독을 느끼게 하던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서 박탈해 버리셨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과 불멸을 가져와서 불을 밝히셨기 때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앞에 영생의 문이 활짝 열렸다. 믿다가 자연사를 당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들 속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예수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사시고 인간으로 죽으신 것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만약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영생을 잃을래야 잃을 수 없게 된다.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하사 형벌을 당하시고 그 생명을 사셨기 때문이다. -성경주석 7권, 925, 926.

심판의 날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눅 16:10).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세상이 “작은 일” 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두는 것이다. 유익한 말 한 마디를 하고 작은 죄를 경계하면서 자신의 자그마한 행위와 자아 부정의 작은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이다. 나날의 축복에 감사하고 날마다 기회를 슬기롭게 이용하는 것, 부여받은 재능을 부지런히 가꾸는 것, 이것들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작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는 큰 책임이 요구되는 일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매일의 생애에 친절하고 예의바른 사람, 가족에게 관대하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 자신의 목표인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희생한다.

아무리 긴 여행이라도 한번에 한 걸음씩 걸음으로 실행된다. 계속 걷는 발걸음이 길의 목적지의 끝까지 우리를 데려다 준다. 아주 긴 사슬도 날개의 고리들로 구성된다. 만일 이 고리들 중 하나가 결점이 있으면 그 사슬은 가치가 없다. 이와 같이 품성도 그러하다. 잘 균형 잡힌 품성은 잘 실행한 하나 하나의 행동으로 구성된다. 정복하는 대신에 잘못 길러진 하나의 결점은 그 사람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그 거룩한 도성의 문은 그에게 닫혀진다. 하늘에 들어가는 자는 흠이나 점이나 이러한 어떤 것도 없는 품성을 소유하여야만 한다. 더러운 자는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구속받은 모든 자들에게서는 하나의 결점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은 총체적으로 완전하다. 왜냐하면 그 사업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어느 모로 보나 완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냘픈 줄기를 가진 풀 한 포기나 꽃을 꾸미시는 데에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쏟으신 열성만큼이나 큰 보살핌을 퍼신다.

잘 되어져야 할 만한 일은 잘 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대가 하는 일이 어떠한 것이라 해도 그 일을 성실히 행하라. 작은 일에 관해서도 진실을 말하라. 날마다 사랑의 행동을 행하고 명랑한 말을 하라. 삶의 길목을 따라 웃음을 뿌리어라. 그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승인을 내려주실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날 그대에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심판 날에 날마다의 생애에 신실했던 자는, 칭찬이나 이익을 생각지 않고 자신들의 일을 재빨리 살피고 그 일을 행한 자로서,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주님께서 작은 정성도 간과하지 않으신다. -청년 지도자, 1901.1.17.

생명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 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단 12:1).

마지막 때의 절박한 위기가 다가옴에 따라 원수의 유혹은 더욱 강렬해지고 더욱 단호해지고 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엄청난 힘을 동원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또 사단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공격을 한다. 사단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택한 자를 속일 것이라는 경고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받았다. 놀라운 사건이 곧 세상 앞에서 벌어질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다. 환난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임할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안식일 준수자들은, 주일 중의 첫째날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을 경우, 사고 파는 것을 금하고 처형의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죽여도 좋다는 법령을 반포하게 될 것이다.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 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된다. …

환난의 때에 사단은 악한 자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포위한다. 그러나 사단은 하늘 책들에 그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맞은편에 “용서”라는 말이 쓰여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지 못한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은 모든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 하신 것이다. “만일 네가 나의 길 (너의 길이 아닌)로 행하면, 만일 네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너는 나의 집도 재판할 것이요, 나의 궁전도 지킬 것이며, 나는 너를 그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걷게 하리라” 그곳에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도단에서 엘리사의 종에게 있었던 일과 같이 우리들의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을 두르고 있는 악한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들에게 저들의 존재를 나타내며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나, 우리는 또한 우리를 수호하고 있는 거룩한 천사들이 저들의 빛과 능력으로 그 악한 천사들을 밀쳐내고 있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자서전, 155, 156.

모든 심판은 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 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요 5:26, 27).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충성된 자가 받을 보상을 말씀으로 선포하셨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 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사셨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 분께서는 심판장의 직위를 받으셨다. 심판장의 지위를 차지하신 그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그분 속에서 우리의 선생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그런 면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계시니 기쁘고, 구속받은 자들이 그분의 손 곧,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축복하시려고 그들의 머리 위로 뻗으셨던 바로 그 손에서 받은 면류관에 특별한 가치가 부여되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음성으로 주님께서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분의 나타나심을 환영하라고 명하신다. 바로 그분이 그분의 소중한 생명을 그들을 위해 바치신 분이시며 그분의 은총으로 그들의 마음을 회개시키신 분이시고 회개의 필요성을 깨우쳐 주신 분이시다. 아, 그들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실지로 그들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은 그들의 기대를 훨씬 능가한다. 그들의 기쁨은 완전하고 자신들이 받아든 찬란하게 빛나는 면류관을 구세주의 발 앞에 던진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의해 집행될 것이다. 인간들이 지킬 것을 당부 받았으나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율법에 의해서 모든 인간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품성은 율법에 의해서 모든 인간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품성은 율법이라는 저울 위에 올려지므로 모든 사람들은 두 무리로 갈리는데 이 중 하나를 자신이 설자리로 잡아야 한다.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든지 아니면 범죄로 인하여 죄로 더럽혀진 지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그분은 양들은 그의 오른 편에 두시고, 그 염소들은 그분의 왼편에 두실 것이다. 그때에 남녀들은 저들의 행동의 진로가 저들의 운명을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901.6.18.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기셨다. 이는 그분이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의 정보망을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적 배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그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고 더 크신 분이 온 세상의 죄를 책임지고 계신다. -성경주석 5권, 1134.

왕이 오신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눅 21:28).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재림의 징조에 유의하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그들의 왕이 오실 징조를 볼 때에는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봄에 나무들이 움트는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짜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눅 21:28, 30, 31)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겸손과 헌신의 정신이 교만과 형식주의로 바뀌어지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점점 식어져 버렸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세속적 욕심과 향락을 구하는 일에 몰두되어 구주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교훈에는 소경이 되어 버렸다. 재림의 교리는 등한히 여겨졌고, 재림에 관한 성경절들은 곡해로 가려져서 마침내 그것은 거의 대부분 무시되고 잊어버린 바 되었다. 특별히 그와 같은 현실은 미국의 각 교회들에 있어서 그러하였다. 사회의 각 계급에서 누리는 자유와 안락, 부와 사치에 대한 욕망은 사람들로 돈 버는 일에 몰두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명예와 권력에 대한 열렬한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흥미의 중심을 이 세상의 사물에 두게 하고, 현세의 모든 사물을 파괴해 버릴 그 엄숙한 날이 아주 먼 장래의 일로 제쳐놓게 하였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재림직전에 있을 타락 상태에 대하여 예언하셨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세속적 업무와 향락을 구하는 일, 곧 사교, 팔고, 심고, 집짓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하나님과 내세는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세대에 살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권고는 아래와 같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텃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눅 21:34, 36). -각 시대의 대쟁투, 308, 309.

“우리들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가장 열렬하게 싸워야 한다. ...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어, ... 우리의 오시는 왕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 진리의 지식을 증가시키며, 아버지와 하나님이신 그분께 모든 탁월하심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하늘의 기름부음, 성령을 위하여 가장 열렬하게 구하도록 하자!” -의료봉사, 22.

에녹과 그리스도의 재림

“아담의 칠 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유 1:14).

우리의 시조가 쫓겨난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에덴동산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실 때까지 세상에 남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을 만드시고 특별히 축복하셨으며 그 후에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그 동산들이 세상에서 철수시키셨으나 거두어 가지기 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여 다시 이 세상에 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리신 그 저주를 받지 않은 완전한 창조물의 한 표본을 보존하기로 계획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에녹에게 구원의 계획을 더욱 확실히 나타내셨고 예언의 영을 통하여 홍수 후에 생애할 세대들을 훑어볼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마지막에 관련된 큰 사건들을 보여 주셨다(유 14).

에녹은 죽은 자들에 관하여 당혹스러워 했다. 그에게는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 같이 티끌로 돌아가고 그것이 그들의 종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무덤 저편의 의인의 생애를 명백히 볼 수 없었다. 예언적 이상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실 것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으며 또한 죽은 의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무덤에서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무리를 대동하시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 에녹은 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그때의 세상의 타락한 상태를 보았는데 사람들이 자만하고 참람하며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며,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의 보혈을 무시하며 그의 속죄를 경시할 것이었다. ...

에녹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동안 더욱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 갔다.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빛은 그에게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동안 그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신성하고 위엄 있는 풍채를 보고 경외심에 눌렸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랑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깨끗하게 따르고 죄악을 심히 미워하며, 그분의 뜻을 완전히 행하기 위하여 하늘의 지식을 간절히 구한 까닭이다. 에녹은 그가 경외하고 지극히 존경하며 또한 숭모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더욱 밀접하게 연합시키기를 갈망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다른 사람처럼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늘로 데려오게 하실 것이었다. 의인과 악인들이 보는 앞에서 에녹은 데려감을 당했다. -구속의 이야기, 58, 59.

열심을 내야 함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눅 21:36).

우리의 장막 집회 동안 배틀크릭에서 나에게 주어진 지난번 이상에서,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보다는 세상을 닮아 가는 위험이 나에게 보여졌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의 경계에 와 있다. 그러나 우리를 시간의 종말에서 멀리 떨어지게 인도하는 것이 영혼의 대적의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공언하며,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구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을 온갖 수단으로 공격할 것이다. 그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로 불행한 날을 뒤로 미루게 하며,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되게 하여 그 풍습을 닮아 가게 이끌 것이다. 나는 세상의 정신이 진리를 믿노라고 크게 공언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는 것을 보면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

하나님의 천사는 진리를 공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거룩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반복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덧과 같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시간이 짧음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깨어서 기도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앞에 있는 위대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는 거룩한 사업에서 결길로 나가서는 안 된다. 시간이 명백히 연장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언행에 있어서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위험을 알지 못하며, 그들 장래의 불멸의 생명을 위한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인, 유예의 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이해하지 못한다. 매순간은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다. 시간이 주어진 것은 그들 자신의 안일함을 탐구하고 세상의 거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결의 아름다움을 보이고 모본과 개인적인 노력으로 자신들의 품성의 결함을 극복하고 남을 돕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혼인 예복 없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과 거룩한 소망 가운데 빠르게 성취되는 예언의 도표를 따라가며,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자신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려고 노력하는 한 백성을 이 땅에 가지고 계신다. ...

예언 가운데 미리 말해진 징조들은 우리 주변에서 신속히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보고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열성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교회증언 4권, 306, 307.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빛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교회들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세상의 어둔 곳을 널리 비춰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신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함으로써 구주와 협력할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날 세상에서 남녀들은 세속적인 이득과 쾌락을 찾는 데 몰두되어 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시간을 내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할 때가 왔다.

명백한 증거들이 끝이 가까움을 가리키고 있다. 경고는 분명한 음조로 주어져야 한다. 평화의 왕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길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아직 듣지 못한 도시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규모와 화려함에 있어서 세상의 기관들과 경쟁할 기관들을 세우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시면서 보여 준 건인불발의 인내와 지치지 않는 열성으로 주님의 사업을 추진시켜야 한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등한히 한 것에 대하여 그분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절실하다. 우리는 소수의 지역에 큰 중심부들을 세우고, 많은 중요한 도시들을 개척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에 착수하여 남녀들을 잠에서 깨워 그들의 위험을 깨닫게 할 기별을 선포해야 한다. ...

우주에 있는 만물은,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알려진 그대로의 진리를 선포하는 데 스스로를 아낌없이 헌신하도록 호소한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우리의 의무에 대하여 우리에게 호소한다. 사단의 기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스로의 위치를 지키라는 호소이다. ...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기와 희생으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온 세상에 자비의 기별을 증거하는 것을 그들의 단 하나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주께서 부르셔서 지도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저런 방법으로 일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노력하고 하나의 완전한 사업을 이루고자 애를 써야 한다. 글로써, 또한 음성으로, 그들은 그분을 위하여 활동해야 한다. 인쇄된 진리의 말씀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한다. ... 모든 교인은 교육의 유무를 불문하고 기별을 전할 수 있다. -교회증언 9권, 24~26.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롬 5:6).

오늘날 사회는 노아 홍수 전의 세상과 똑같은 상황으로 급변해 가고 있다. 아이가 청년으로, 청년이 장년으로 성장하며 자만해질 뿐 아니라 악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진다. 요즘의 청년들은, 인기있는 출판물들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을 읽음으로 인해 범죄에 몰들고 있다. 청년들은 절도, 살인 등 범죄에 관한 갖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읽고, 범죄 수법과 도주하는 방법 등을 자연스럽게 공리하게 된다. 불량 출판물은 청년들에게 과멸에 이르는 길을, 완벽하게 교육시키는 일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우리 도시들의 청년들은 더럽고 추악한 범죄의 환경 속에서 숨쉬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악의 영향이 도시 전체로 퍼져 나가 온 나라가 오염된다. 이 땅의 통치자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무가치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죄악에 대한 동경심을 부채질하는 출판물의 양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으나, 불량 서적들의 출판을 억제하려는 의향이 없다. 오늘날 책 속에 묘사되고 있는 것과 같은 범죄자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와 소위 미래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들이 마치 진실인 양 취급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오고 있는 싸움을 내다보시고 우리가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처럼 경고하셨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나타나 는 날에도 이리하리라.”

우리는 사업거래들에 정당하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받지 않으나 그 자체가 법적인 것에서 지나친 것을 수행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세속적인 사물에 너무 집착토록 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의 중요함을 식별치 못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비뚤어진 식욕에 빠지며, 과식과 술취함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가 처한 타락한 상황 속에도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영혼 즉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진주”로 표현하신 영혼들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까닭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분께서 무한한 값어치를 매겨 놓으신 그 진주들을 찾기 위함이었다. 이런 일을 하는 데에 우리는 그분과 협력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불경스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6.4.21.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 5:16)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 받을 필요가 있다. ...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진정한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속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악한 일을 범하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하고 고상한 행위를 행치 아니한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되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못하다. 그들은 과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들을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취할 수 있던 모든 선을 행치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그들에게 지우신다. 그들은 하늘책에 땅을 버리게 하는 자들로 기록된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경우일지라도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그분의 은혜를 남용한 자들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으시는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탄원하신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 5:14-16).

시련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겨울 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 없이 남아 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그 가지가 벌거숭이가 된다. 이와 같이 지금은 마음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구별이 분명히 지어질 때가 이미 절박해 있다. 반대에 일어나라. 완고와 억압이여 다시 기세를 떨쳐 보라, 박해의 불길 이어 일어나라. 그리하면 반신반의의 위선적인 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변영의 때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밝아질 것이다. ...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잠 3:13).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렘 17:8). -각 시대의 대쟁투, 601, 602.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보다도 그 나무의 열매로 결정된다. 만일 열매가 무가치하다면 그 이름이 그 나무를 멸망에서 구할 수 없다. -시대의 소망, 107.

끝까지 견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 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벧후 3:14).

세상의 종말까지 각 시대를 내려다본 베드로는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일어나게 될 상태를 대강 설명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 그러나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러”라(살전 5:3). 그러나 원수의 계교에 모두 빠지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의 종말이 다가올 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아는 충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신자라고 공언하는 많은 무리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남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마음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였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요 14:3)라 하는 구주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교회에게 보증하였다. 연단을 받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주의 오심이 오래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 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군신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사도행적, 535~537.

마지막 위기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도다”(사 59:14).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 신속히 성취되는 때의 징조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움을 선포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엄숙하고 중대하다. 하나님의 영은 점진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지상에서 물러가고 있다.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미 내리고 있다. 땅과 바다의 재난, 불안한 사회의 상태, 전쟁의 경보 등은 불길한 전조이다. 그것들은 가장 큰 사건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보한다.

악의 세력들은 그들의 힘을 결속하여 강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마지막 큰 위기를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큰 변화가 미구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동요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의 상태는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일간신문들은 가까운 장래에 있을 무서운 투쟁을 알려주는 시사로 충만하다. 대담한 강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난다. 동맹 파업은 예사가 되었다. 절도와 살인이 도처에서 범해진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남녀들과 어린이들의 생명을 빼앗고 있다. 사람들은 부도덕에 정신을 빼앗겼고, 온갖 종류의 악행이 성행한다.

원수는 공의를 왜곡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기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충만케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었다.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도다”(사 59:14). 대도시에는 양식과 몸돌 곳과 입을 것이 거의 없이 가난과 불행 속에 사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같은 도시에서 마음에 욕망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소유하여 사치스럽게 살고, 호화롭게 단장한 집과 몸치장에 그들의 돈을 사용하고 더욱이 육욕적인 식욕의 만족과 술과 담배와, 두뇌의 힘을 파괴시키고 정신의 균형을 잃게 하고 심령을 타락시키는 것들을 위하여 돈을 쓰는 자들이 있다. 굶주린 사람들의 절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 한편,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압박과 착취로 거대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 -교회증언 9권, 11, 12.

무서운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다. 전쟁의 정신이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라들을 격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환난의 시기,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시기가 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요동하지 않고 설 것이다.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과 그의 군사가 그들을 멸할 수가 없다. -교회증언 9권, 17.

증인으로 부름 받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특별한 의미에서 제칠일 재림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일찍이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엄숙한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도록 우리에게 맡겨졌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세상은 경고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과업에 성실해야 한다. 그들은 공론에 빠져서는 안 되며, 불신자들과 사업을 같이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

기회가 주어지는 한, 진리의 빛을 받은 각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과 똑같은 책임아래 놓여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겔 33:7~9) ...

우리는 하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 성령께서 온 교회를 생기롭고 충만하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연합되게 해야 한다. 침례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들은 새 생명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산 본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명령이 주어져 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 20). ... 그대들은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는 사업에 바쳐졌다. 하늘의 완전함이 그대들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9권, 19~21.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6).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의 말씀에 나타난 사명이 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참 일꾼들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씨름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지극한 열성을 보인다.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써 자아를 찬양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오히려 단순히 영혼을 구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순결한 자, 가장 온유한 자,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그분을 위한 최선의 일꾼, 영혼들을 위하여 일하는 강력한 자라고 선언하신다. 하늘의 지적 존재들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남녀들과 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돌아가게 할 모든 영광을 즐겨 돌리는 자들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신성한 지혜의 필요를 가장 깊이 느끼는 사람과 하늘의 능력을 간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친교를 위해 나아갈 것이며 저들의 죄악 중에 멸망해 가는 영혼과 더불어 대화하려고 할 것인데 이는 그가 주님의 영으로 기름부음 받은 까닭이며, 그는 학문이 있는 목회자가 실패한 곳에서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모든 중요한 교훈들을 주셨다. 아무도 흑암 속에서 있을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살아 있는 편지가 되어 모든 사람이 읽고 알게 될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개인인 구세주로 믿는 모든 자들은, 순결하고 거룩하며, 영감적인 일꾼이 되어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며 비록 저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한 자라도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은, 그리스도께서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가치 있는 대가를 그분의 피로 치루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다. 모든 이들은 활발한 봉사를 해야 한다. ... 우리가 찾지 못한 양 스스로는 우리로 되돌아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 대리자인 그대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대가 갖고 있는 재능을 다 바쳐 그대의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재능을 더 크게 하실 것이다. 만일, 대리자인 인간이 신의 지성과 협력할 수 있다면, 수천의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는 헌신적인 일꾼들에게 모든 환란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 주실 것인데, 그분은 그들을 높여주실 뿐 아니라 힘을 주셔서 정복자보다 더 강하게 하실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6. 6. 30.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함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 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빌 2:15).

하늘 우주의 거민들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바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돌아가신 은혜의 능력을 선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최고로 발달된 그리스도교의 정신을 드러내기를 바라신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교를 실제적인 것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들은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 온 심령을 다 바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지상 생애 동안에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자,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모든 악한 행동에 대하여 분명하고 결정적인 증언을 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죄인들에게 가리켜야 한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거듭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의 길이다. 그 길은 좁고, 우리가 들어가는 문은 협착하다. 그러나 우리는 남녀들과 어린이들을 그리로 인도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유전적인 옛 품성의 특성들은 극복되어야 한다. 육신적인 심령의 욕망들은 변화되어야 한다. 모든 기만, 모든 거짓말, 모든 악한 말은 버려야 한다. 남녀들을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새 생애를 살아야 한다.

우리가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처럼 거룩하고 엄숙한 기별을 가진 자들의 생애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생애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의 뜻과 조화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주님의 편이 되고자 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는 세속적인 자들의 생애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어야 한다. 유희자들은 아첨하는 말과 뇌물을 가지고 다가와서, “내가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유희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은 원칙의 순결을 더럽히지 않고 지킬 수 있게 된다. 거룩한 천사들은 그들 곁에 가까이 와 있고, 그들이 진리에 확고하게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된다. 그들은 진실한 증인으로서 진리를 위해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그리스도의 병사들이다. -교회증언 9권, 22~24.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 것도 끼어들지 않아야 함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벧전 1:6, 7).

우리의 사랑을 앗아가 버리는 경향을 갖고 있는 지상의 사물, 그 어떤 것을 사랑하고픈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에서 돌이켜 은총을 구해야 하며 유혹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처소를 마음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의 집과 토지와 사무 처리와 세상적 사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 두신 부요한 약속이 우리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위대한 시간표를 연구해야 한다.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가 임박했으며, 세속적인 성질을 가진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다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위대한 날의 싸움을 위해 준비되도록 우리는 지금 매우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서 준비해 놓으신 처소에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될 때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우리를 기쁘게 해야 한다. 그대가 예수님께 눈을 떴지 않고 그분께 의지할 경우, 예수님께서 는 그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으시다. 그대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의 거룩한 영광의 부요함으로 인해 아름답게 된다. 눈에 보이는 사물에 대한 우상숭배와 같은 사랑은, 고귀하고 불멸의 사물을 생각하는 지고한 사랑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에 애착을 느끼게 되기까지 그대는 영원한 부요함을 묵상하여야 한다. ... 가치 있는 돈을 바로 아는 자는 그것을 결코 들여보지 못한 자들 앞에 진리를 전함으로 그 쓸모를 아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으로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저들을 구출할 때가 가치가 있을 것이다. 진리를 받아들인 영혼은 세상 사물을 사랑하던 것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다. 그는 하늘사물의 탁월한 영광을 보게 되며 영생에 관한 소망을 감사한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에 더 매력을 느낀다. 세상을 붙든 그의 손은 느슨해진다. 그의 눈은 하늘나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을 감탄으로 바라본다. 그는 그의 시련들이 그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을 인식하며, 그가 즐기는 부와 비교하였고, 그는 그것들을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리뷰 앤 헤럴드, 1896.6.23.

그때 우리가 알리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간의 모든 교통을 단절시키는 것이 사단의 확고한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위협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침묵하도록 자신의 기만적인 책략을 행사하고 있다. 만일,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추겨서 기별자를 불신하게 하고 기별에 신성성을 부여하지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사단은 안다. 빛이 어두움에 밀려나면 사단은 자기 수단을 써서 사물들을 장악할 것이다. …

그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모든 계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양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반갑게 여기고 계시며 그들이 살고 있는 처소와 시간,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명하신다. 만일 그들이 자신에게로 오는 빛을 존중한다면, 그들의 재능은 크게 증가될 것이며 진리를 보는 시야도 크게 확대될 것이다. 영원한 사물에 관한 신비, 그리고 구속의 계획 속에 환히 드러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드러날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 사물은 영적으로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들 앞에 그분의 재림시에 있을 영광을 열어 보여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시며 천국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명상하도록 이끄신다. 탐사되지 않은 부분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모르나 그곳에서는 알게 될 것이다. 교육사업은 이곳에서 시작되었으나 영원까지 이를 것이다. 구속받은 무리를 인도하시는 그 어린양께서는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며, 지식의 풍성한 보화를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전에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사업 가운데 신비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오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연구함으로써는 결코 알 수 없다. 그분께서는 혐의를 갖고 있거나 의심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계획을 밝히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알기 위해, 그분께서 휘장으로 가리신 것을 우리의 부족한 손으로 견어 하지 말아야 한다. 사도는 외치기를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했다. 그분께서는 의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불신이나 불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그분께 굴복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알아서 좋은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을 계시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리뷰 앤 헤럴드, 1885.4.7.

예상보다 속히 오실 것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눅 18:7, 8).

사람들이 만일 하늘의 사물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능력 있는 천사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들을 지켜온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그들은 사람들을 위협에서 구해 내라는 사령관의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쓴 잔을 마시고 피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들에게 것처럼 큰 고통의 요소가 되는 구원의 지연은 그들의 탄원에 대한 가장 좋은 응답이다. …

비록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을지라도 그들의 원수들은 경우에 따라 그 법령의 실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 결정된 날짜보다 미리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충성된 각 사람을 둘러 진치고 있는 강한 수호자들의 경계망을 깨뜨릴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와 촌락에서 피해 가다가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해하고자 높이 들려진 검(劍)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어져 힘없이 떨어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사(戰士)의 모양을 한 천사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셨다. 천사들은 사람들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들은 번개와 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났는가 하면, 먼 길을 여행하는 행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천사들은 인간의 모양으로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했다. 그들은 마치 피곤한 것처럼 정오에 상수리나무 아래서 쉬기도 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집에 영접되어 대접을 받기도 하였다. 그들은 길 저문 행인들의 안내자도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직접 제단의 불을 붙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감옥의 문을 열고 주님의 종들을 놓아주기도 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갑옷을 입고 구주의 무덤에서 돌을 굴러 내기 위하여 내려온 일도 있다.

사람들의 모양을 한 천사들은 때때로 의인들의 집회에 참석한다. 그리고 그들은 소돔 성에 가서 그 주민들의 행위를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한계를 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던 것처럼 악인들의 집회도 방문한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즐겨 하신다. 그분께서는 또한 그분을 진심으로 섬기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재난을 억제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평안을 연장시켜주신다. -각 시대의 대쟁투, 630~632.

절제의 교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눅 1:15).

하나님께서서는 일찍이 인간에게 맡기신 사업 중 가장 위대한 사업을 하도록 사가라의 아들을 부르셨다.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주를 그의 동역자로 모셔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천사의 지시에 유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실 것이었다.

요한은 여호와와의 사자로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사상에 새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신성성을 인식시키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했다. 그러한 기별자는 거룩해야 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야 했다. 그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전한 체력과 정신적·영적 능력을 가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는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광야의 바위나 산들처럼 주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능력들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였다.

침례 요한의 시대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다. 관능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잔치가 육체의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요한은 개혁자로 설 것이었다. 그는 그의 절제의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절제를 책망해야 했다. 그런 까닭에 요한의 부모에게 지시들, 곧 하늘 보좌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를 통하여 절제에 대한 교훈이 주어졌다.

유년과 소년 시대에 품성은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다. 자제력도 이 때 습득해야 한다. 노변(爐邊)과 가정 식탁에서 그 결과가 영원에 미치는 감화가 끼쳐진다. 유년기에 형성된 습관은 어떤 천품(天稟)보다도 더 인생의 투쟁에서 사람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

그[요한]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준비함으로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자들의 한 표상이었다. 세상은 방중에 빠져 있다. 오류와 우화(寓話)가 많으며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한 사단의 올무는 증가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와 자제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식욕과 정욕은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되어야 한다. 이 자아 훈련은 우리에게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100, 101.

그 엄청난 위기의 벼랑 위에서

“오호라 그 날이여 여호와와 날이 가까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을 1:15).

이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크고 엄숙한 사건들의 문 어귀에서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이 세계의 모든 일들이 격동하고 있다. 그분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에 대한 구주의 예언이 우리의 목전에서 성취되고 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마 24:6, 7).

현대는 모든 산 사람에게 압도적인 흥미를 주는 시대이다. 책임 있는 지위와 편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정치가들은 각 계급의 사람들에게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국제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격렬함을 관찰하고 있으며 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사실 즉, 이 세상이 바야흐로 무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성경, 성경만이 이 일들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준다. 성경에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나타나 있으며 사건들은 이미 그 그림자들을 던지고 그것들이 가까이 이르러 오는 소리가 세상을 진동시키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은 공포로 인하여 약해지고 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엎으시고 그 거민을 흠으시리니 ...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다. ...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시 91:9, 10).

“딸 시온이여 ...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와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미 4:10~12).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그 최대의 위기의 때에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포로된 야굽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렘 30:18)고 선언하셨다.

그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그분의 나라의 원칙이 해 아래 있는 만민에게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선지자와 왕, 536~538.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함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마 24:37).

노아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120년을 주셨다는 것과 방주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라고 설교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로운 초청을 거절했다. 그들에게는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고 그들의 나쁜 행습을 고치며, 의로운 품성을 계발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죄의 경향이, 처음에는 약했지만, 반복되는 자기 현혹에 의해 강해졌고 돌이킬 수 없는 과멸로 들어가도록 재촉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고는 조소와 비웃음과 조롱으로 거절되었고, 그들은 어둠 속에 남겨졌으며 그들의 죄악된 마음이 선택한 경로를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이 예언된 사건을 막지는 못했다. 그 사건은 일어났고, 하나님의 진노는 컸으며 그것은 전체적인 과멸로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현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히 들어가야 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의 위험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 앞에 제시된 바 되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당할 위험을 아셨다. ...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인자가 빨리 오실 것이라는 믿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생애의 일상적인 일을 부주의하거나 등한시하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속히 오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고 사업에 있어서 부지런할 것이다. 그들의 사업은 부주의하거나 부정직하게 행해지지 않을 것이며, 신뢰할 만하고, 신속하고, 완전하게 행해질 것이다. 인생의 일에 대한 부주의한 무관심이 그들의 영성과, 세상과의 분리에 대한 증거라고 스스로 아첨하는 자들은 큰 기만에 빠져 있다. 그들의 성실성, 신실함과 고결함은 현세적인 사물에 의해 검증되고 입증되고 있다. 만일 그들이 작은 것에 신실하다면 그들은 큰 것에도 신실할 것이다.

나는 이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견디는 데 실패할 것을 보았다. 그들은 현세적인 관심사를 다루는 가운데서 그들의 진정한 품성을 계발시키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동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불신실함과 교활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소유권, 불멸의 생명은 그들이 인생의 관심사를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엄격한 고결함은 의로운 품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증언 4권, 308~310.

우리의 위대한 동기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시 29:2).

우리는 모두 은혜의 기간에 살고 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봉사해야 할 책임을 다하였는지를 살피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욕망은, 모든 동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마련된 특권과 기회를 활용하고, 주님의 소유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게 될 것이다. 육신이 튼튼하고 정신이 맑아야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머리와 몸을 가장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기적인 관심은 극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성을 자극하게 하는 여지를 제공하면, 지능은 위축되고 마음은 강박하게 되며 도덕적 힘이 약하게 되기 때문이다. ...

다니엘은 한 인간으로서 주님께 의하여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그가 주님의 재산을 충실하게 거래하는 청지기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을 빛의 통로로 생각하였으며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고 읽는다. ...

어느 곳에서나 그대가 만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인간은 감추어지게 하고, 하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으로 드러나시게 하라. 모든 사람의 품성 건설은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반석 위에 고정시켜야 하며 그렇게 할 때 그 집은 폭풍가운데서라도 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분투 노력하는 영혼에게 홀로 도울 수 있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실 것이며 그분의 것발아래서 있는 모든 사람은 은혜의 충실한 청지기로 교육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모든 인간의 권세가 머리를 숙이게 될 불멸의 원칙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뢰할만한 진리를 주셨다. 그 빛의 고귀한 광채는 뒷막 속에 감춰져서는 안 되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비추어야 한다. 진리, 불멸의 진리는 어떤 것보다도 우뚝 서 있어야 한다. 그대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그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라. 영원한 시대가 흘러도,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원칙들을 지키는 것은 모든 이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심은, 그 재능을 주신 분을 망각한 채 인간이 칭송과 찬양을 받고 영예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찬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99.9.12.

은혜의 전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충실하고, 강건하며, 품성의 견고함을 나타내며 저들이 즐겁고 행복하며 희망찬 경향을 가질 때 기뻐하신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여기에는 또 금지된 문제 속에서 표류하거나 사소한 문제들에 힘을 허비하지 않도록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행과 생각까지도 살펴야 한다. 이것이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만일 정신이 하늘의 사물에 집중되면, 대화는 정신과 동일한 통로로 연결될 것이다.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한 묵상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 소망이란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하여 지극히 위대하고 소중한 약속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한 기대와 즐거움은 위축될 필요가 없다. 그 까닭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깨어있는 시간들 가운데 마음은 계속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 어떤 생각의 돌발적인 떠오름이 있을지 모르나 마음은 착실한 반성이나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되지 못하였다. 심각하게 숙고해야 할 주제들이 있다. 그것들은 곧 마쳐지려고 하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과 연관되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품성을 소유하여야 그 날에 설 수 있을까? 영원한 관심사가 걸려있는 이러한 주제들을 생각하므로, 마음은 견고해지며, 품성은 발달된다. 여기에 요셉이 소유하였던 강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의 기초가 있다. 여기에 진리의 지식 가운데 은혜 안에 자라나는 비결이 있다.

그리스도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교가 이렇다 하고 보여주는 것과도 다르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삶에 직접적인 감화를 끼칠 것이며, 지능과 사랑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나타내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입고,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는 능력으로 설 수 있기 전까지는 만족스런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품성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그 연약함을 거둬서 말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연약한 품성과는 반대되는 특성 즉, 자신의 결점을 극복하게 하는 결단과 힘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한다. 그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회피해서는 안된다. -리뷰 앤 헤럴드, 1884.6.10.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막 13:33).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관한 구주의 말씀이며, 그분께서 재림하셔서 신실한 자녀들의 가정을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첫째, 그대는 조심해야 한다. 조급하고 짜증스럽고 초조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교만이 그대의 마음속에 자리를 펴지 않도록 조심하라. 악한 열정이 그대를 굴복시키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심령이 그대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의무를 등한히 하거나 경박하게 여기거나, 그대의 감화력이 생명의 향기 보다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둘째, 기도하라. 만일 그대에게 실제로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대 스스로는 적들의 허다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며 또한, 그대 발 밑에는 수많은 덫이 놓여 있음을 그분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 그분께서 그대 홀로 그 일을 하라고 그대를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그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올바르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대가 필요한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그대의 방으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좀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리고 도움을 위해 그대의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강한 힘을 열렬히 구하는 진정한 기도는 능력이 있다. 열렬하고 뜨거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강하신 그대의 하나님께로 가라! 그분은 자녀들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비록 그대가 매우 연약하게 느끼며, 때로는 그대 자신이 원수에 의하여 정복당해 있음을 발견하는데 이는 그대가 우리 구세주의 경계하라! 는 첫 번째 명령에 부주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도 투쟁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노력하라. 정신을 잃지 말라! 시험을 받아보셨고 시험받는 자를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지를 아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그대 자신을 내어 맡기라. 그대의 잘못, 그대의 연약함을 고백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할 도움을 요청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멸망할 것이다. 그대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 ...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다. 천사들이 그대를 보살피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이런 도움을 기대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이같이 되게 하라. “주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 하겠나이다.” 적어도 하루 세 번씩 특별기도의 시간을 정하라. -청년 지도자, 1885.1.1.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믿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롬 6:11).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 지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죄를 지을 시간이 전혀 없다.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은 언제나 위태로운 법이다. 그러나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현 시대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의 접경에 있으며, 시간과 영원에 있어서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엄숙한 관계 속에 서 있다. 이제 각자 자신의 심령을 살피고, 의의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광명한 빛이 모든 영적 암흑을 몰아내고 더러움으로부터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믿음을 통해,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의 주시오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고귀하신 은혜로써 도덕적 능력을 강하게 하실 것이며, 죄인들은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 것이다. 단순한 믿음은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신자를 하나님께 연합시킨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인으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그는 충성스러운 온 우주의 동정을 받는다. 섬기는 천사들이 투쟁 속에서 돕기 위해 그를 둘러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시 28:7) 나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위해 발휘되고 있다. 하늘의 군대가 확실하게 우리를 위해 우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들은 구주의 보혈로 산 영혼들을 큰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인간 영혼의 가치를 본다.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 편에서 서는 것, 이것만이 항상 안전하다. 그대의 영혼을 그대의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이렇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게 일하는 것이다. “내가 재물과 세상 명예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오직 주님만은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는 말이 그대의 기도가 되게 하라.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혼을 지켜 주시도록 의탁하는 것이 안전하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147, 148.

보이지 않는 싸움

“그런데 바사국 군이 이십일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단 10:13).

우리는 왕들과 법관들의 마음가운데 역사하는 하늘대리자들이 있고 동시에 저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역사할 수 있는 사단의 대리자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가지고 있다. 인간의 견해들을 강력하게 말하는 어느 인간의 웅변이 사단의 대리자들의 역사를 바꿀 수 없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그 길을 막으려고 애쓰며 이렇게 함으로 진리가 인간의 고안에 의해 묶여 있으며 그래서 빛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저들이 계속적으로 저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거나 자신을 낮추고 때의 위기를 인식하지 않는 한 커다란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늘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이기심 없이 일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도록 임명을 받았다. 하늘 조정의 가장 높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업의 전진을 위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전하기 위하여 임명을 받았다. 각 천사마다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다른 어떠한 곳에도 함부로 떠나도록 되어 있지 않다. 만일 그가 떠난다면, 흑암의 세력들이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

날마다 선악간의 대쟁투는 계속되고 있다. 많은 기회가 있었고 또,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사업의 치열함을 깨닫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들이 이 사업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통치자들을 최고의 통치권으로 감독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정된 일을 그분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대리자들 간의 대쟁투 즉, 충성스런 천사들과 그렇지 못한 천사들 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응당 알고 있어야 할만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 악한 천사들은, 공격 노선을 계획하고 사령관, 왕과 같은 지배자의 위치에서 불충실한 인간 권세자들을 장악하는 등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 ... 내가 그리스도의 목회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나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의 직무에 관한 진리를 똑똑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단 하나뿐인 평강이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한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형제들이여, 기도하라. 그대들이 전에 해보지 못한 그런 기도를 하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는 일을 지체하고 있다. 영원을 위한 사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 -성경주석 4권, 1173.

노아 홍수 이전으로부터 배울 교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유 1:20, 21).

오늘날 세상이 드러내 보이는 광경을 보라. 부정직, 사기, 부도, 폭력과 유혈사태 등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과부와 고아들이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잃고 있다. 연극, 경마 등의 오락들은 어느 것 할 것 없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죄가 유행처럼 되었다. 죄가 적당히 얼버무리지고 용서된다. 거짓 이론과 감정을 가져오는 사람과도 우의를 맺는다. 이런 식으로 분별력과 지각력은 올바른 원칙들을 갖추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눈멀게 해 온 것이다. 양심은 주어진 권면과 책망을 감지하지 못해 왔다. 회개하라는 부름인 주어진 빛은, 인간이 계획하고 고안함으로써 생겨난 불신과 적대의 두터운 구름에 의해 가려져 왔다.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경고를 받았으나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의 기별을 조소했다. 그러한 세대 중에서도 의로운 이들이 살고 있었다. 노아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에녹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자기의 증언을 감당했다. 그리고 그는 오늘의 세상 형편을 선지자의 눈으로 보았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유다는 이러한 에녹의 증언을 신자들을 위하여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리뷰 앤드 헤럴드, 1906.11.1.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정결케 하려고 결심하셨으나 자비와 사랑으로서 그분은 120년의 은혜의 기간을 홍수 이전 사람들에게 주셨다. 방주가 건축되고 있는 이 시간에 노아의 목소리를, 므두셀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경고와 탄원을 들었으며, 방주를 짓는 망치소리 하나하나는 경고의 기별이었다. ... 에녹이 가르쳤던 설교나, 그의 승천은 에녹 당시에 살아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논증이었다. -성경주석 1권, 1088.

기다리고 바라봄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히 10:35).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의 노래를 배워야 한다. 그래야 싸움이 끝날 때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늘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보좌 위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을 영영토록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바치는 노래이다. 우리는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 사단의 조작인데,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의 영향력을 허물어뜨리는 거룩한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세속적인 일에 빼앗기도록 허락해서는 안되며, 하나님의 사업에 속하는 사물들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곳에 접근하는 생각 없이 날마다를 지나쳐서도 안된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권고한다. 그것은 진실한 믿음의 생애를 유지하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우리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바치고 나아간다면, 원수를 격퇴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권고하기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또 그는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다. ...

예수님과 교체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없다고 느껴질 때 더 많이 기도하라. 그렇게 해야 우리는 사단의 울무를 깰 수 있으며 흑암의 구름은 사라질 것이다. -자서전, 145, 146.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라도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그의 사랑의 빛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받는 영구적 위안을 누릴 수도 있다. 우리 생애의 매 발걸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고 복된 평화의 본향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전보다 더욱 굳은 확신을 가지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삼상 7:12)으니 그는 또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를 바라보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인애와 자비-눈물을 씻어 주신 것-을 언제나 새롭게 기억하자. 그리함으로 우리의 나그네 생애의 여생(餘生)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을 모든 난관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굳세게 하자. -정로의 계단, 125.

초림과 재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
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째 나타나시리라”(히 9:28).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 하늘의 천사들은 세상
에서는 그 탄생에 대해서 거의 준비하지 않았으
나,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은혜에 대해서 저들
의 영광이 흘러나가는 것을 가까스로 억제 할 수
있었으며, 인류의 이익을 위한 감사와 찬송으로
하늘 궁정에서 찬양하였다.

밤중에 베들레헴의 언덕 위에 있는 목자들이 저
들의 양무리를 돌보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었다”. ...

우리는 초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재림하
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사이에 현저한 대조를 목격
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언어로는 사람의 아들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광경을 묘사할 수 없다. 그
분께서는 그분 자신의 영광과 함께 오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속
에서 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빛의 옷을 입으실
것인데, 그 빛의 옷은 그분께서 영원 전부터 입
었던 옷이다.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이다. 천
천만만의 천사들이 그분 가시는 길에 늘어서서 그
분을 호위할 것이다.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
다. 그 소리는 무덤에서 잠자던 죽은 자들을 깨울
것이다. 그리스도의 목소리는 무덤을 뚫고 들어가
죽은 자의 귀를 열 것이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 부활로 나”올 것이다. ...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의 위기의 한가운데서 살
고 있다. 대쟁투로 말미암는 광경들이 우리 앞에
곧 들이닥칠 기세이며, 마지막 날의 바로 그날이
목전에 이르러오고 있다. 우리는 그 때를 위해 준
비하고 있는가? 우리의 행위는 그 크기에 상관없
이 모두 다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행위들이 그 때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동전 두닢을 연보궤에 넣은 과부의 행위
도 드러나게 된다. 시원한 냉수 한잔 대접한 것, 형
무소를 방문한 것, 배고픈 자를 먹인 것, 모든 행위
에는 각각 그 대가가 따른다. ...

백의 머리는 곧 상하게 되고 깨어질 것이다. 하
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기념하는 영광스런 기념
비가 마땅한 곳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잃었던 낙
원이 다시 세워지며,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
님의 계획은 완성될 것이며 인자는 영생의 면류관
을 의로운 자들에게 씌어주시는 것이다. 그들은 “하
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
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
막을 치”(계 7:15)실 것이다. -리뷰 앤 헤랄드,
1899.9.5.

그분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스 2:8).

그리스도교국의 여러 위정자들이 십계명을 지
키는 자들에게서 정부의 보호를 제거해 버리고 그
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법
령을 반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와
촌락을 떠나 가장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하여 함께 무리를 지어 거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은 산악들로 이루어진 요새에서 피난처를 찾
을 것이다. 그들은 피에몽 골짜기에 숨어 있던 그
리스도인들처럼 땅의 높은 곳을 성소로 삼고 “견
고한 바위”(사 33:16)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
이다. 그러나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 높
은 자와 낮은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백색인종과
유색인종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히 부당하
고 잔인한 속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괴로운 날을 보내고, 쇠사슬에 매
이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중 더러
는 어둡고 불결한 옥에 갇히어 기아로 거의 죽을
지경을 당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 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돕고자 즐거이 손
을 뻗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련의 때에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잊어버리실까? 그분께서는 홍수 전 세상을 심판
하실 때 충성된 노아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
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평원의 도시들을 태워 버
리실 때 롯을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애굽
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요셉을 잊
으셨던가? 그분께서는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의
운명과 같이 만들겠다고 엘리야를 위협하는 맹세
를 했을 때 그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풀
무불에 던져진 훌륭한 세 청년을 잊으시거나 사자
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잊으셨던가? ...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
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
단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그 감옥은 마치 궁궐처럼 될 것이다. 왜
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
하고 찬미했을 때처럼 그 음산한 담벽이 하늘빛으
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26, 627.

승천에 합당한 자가 되라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그분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점들을 그들에게 제시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점은 견디지만 다음 것에는 넘어진다. 발전되어 가는 모든 지점에서 마음은 시험을 받고, 조금씩 철저하게 연단을 받게 된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이 엄격한 과업을 반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사실은 그들이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음을 받지 않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일이 있음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다. 천사는 말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시험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그분의 사업을 점점 더 철저하게 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점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다른 점을 그들에게 제시하시면, 그들은 위축되어 뒤로 물러선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어떤 우상과 직접적으로 상치되어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쫓은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진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깨닫기 위하여 일정 기간에 시험을 받고 증거를 받게 된다. … 그러나,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은 어떠한 대가도 감수하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하며, 그들은 늦은비를 받고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이곳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만드는 장소이다. 여기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지 보여 줄 것이다. 만일, 그것이 거룩한 진리의 능력일 것 같으면, 그것은 선한 행동을 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자를 고상하게 해주고, 그를 거룩하신 그의 주님처럼 고상하고 관대하게 해 줄 것이다. 그러나, 악한 천사들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과 악한 정욕이 될 것이다. -교회증언 1권, 187, 188.

셋째 천사는 한 백성을 한 계단씩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 매 단계에서 그들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1권, 190.

불멸을 위한 최후의 작업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2, 3).

믿음의 기도와 개인적인 노력의 결합을 통하여, 그 영혼은 훈련된다. 날마다 품성은 그리스도와 같이 자라난다; 그리고 결국은 환경의 노리개가 되는 대신, 자만에 빠지거나 경박하고 하찮은 대화에 움직여지는 대신, 그의 생각과 말을 주관하는 사람이 된다. 오랫동안 지녀왔던 습관들을 이기는 일에는 심한 투쟁이 요구되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배우라고 초청하신다. 그분은 자제하기를 습관하며 품성에 완전하며 그분의 눈앞에 아주 기쁘게 일하는 우리를 받으실 것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이것은 품성을 판단하는 그분 자신의 표준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기까지 은혜 위에 은혜를, 영광 위에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세상에서 지위가 아무리 높아진다 한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임금의 자녀가 되며 왕국의 일가가 되는 영예에 비하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동료 인간들이 부여하는 영예에 야심을 품는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땅의 지체 높은 자들 역시 인간이므로 죽어서 흠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받던 칭송과 영예 속에는 영원한 만족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예는 영원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부요함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금과 은, 이 땅의 보석과 진주도 그 보화의 가치와 견주어 본다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과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를 의지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그분께서는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크나큰 도움이 필요한 처지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절망에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리뷰 앤 헤럴드, 1884.6.10.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계 19:8).

성실한 자들, 기도하고 있는 자들은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 감취어 있다. 그들 스스로는 그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 그들의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주위에 진을 치고, 그들의 광채와 영광으로 흑암의 군대를 저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마음의 순결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슥 3:4)고 용기를 주는 말이 있게 된다. 흠 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서도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혀진다. 멸시받은 남은 자들은 세상의 부패에 의하여 더 이상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각 시대의 충성된 자들과 함께 그곳에 보존된다. 그들은 기만자의 간계를 저항해 왔고, 용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유혹자의 간계에서 영원히 안전해진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로 옮겨진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용서받고 가납되었을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된다. “정한 관”이 그들의 머리에 씌워진다. 그들은 왕들과 같이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이 된다. 사단이 그의 비난을 강요하고 이 무리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이곳 저곳으로 왕래하면서 그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이 사람들은 어린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는 자들이다. 그들은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를 보좌 앞에서 부른다. “이 사람들은 ...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계 14:4, 5).

이제 사자의 말들은 완전히 성취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슥 3:8).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의 구속주요 구원자로 계시된다. 이제 진실로 남은 자는 “예표의 사람”이다. 그들의 순례의 눈물과 굴욕이 하나님과 어린양 앞에서 기쁨과 영광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교회증언 5권, 475, 476.

영원을 배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9,10).

우리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룸에 따라 특별히 말세에 관한 예언을 연구해야 한다. 신약의 마지막 책은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로 가득 차 있다. 사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으므로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는 데 대해 핑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중요한 통하여 말세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신 다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계 1:3)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라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것을 알아야 할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어찌하여 이처럼 영광스러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우리의 입술을 떨게 하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에 충만하지도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구원에 요긴한 모든 진리를 다 주셨다. 수천 수만 사람들이 이 생명의 샘에서 물을 길었으나 아직까지 그 물이 마른 적이 없다. 수천 수만 사람들이 주님을 저희 앞에 모시고 그를 바라봄으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며 그들이 그리스도께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할 때 저희 심령은 속에서부터 불타올랐다. 그러나 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이 이 크고 거룩한 주제를 다 구명하지는 못했다. 이 밖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구원의 신비를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사명의 성격을 깊이 생각할 것 같으면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모든 노력에 더 밝은 광선이 환하게 비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탐구를 할 때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더욱 깊은 뜻과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아무리 연구하여도 무궁 무진하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속죄의 희생과 중보사업에 대한 문제는 열심 있는 연구가들이 영원토록 연구해야 할 주제가 될 것이며 마침내는 그들이 무궁한 세월에 걸쳐 펼쳐져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하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영원한 왕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눈이 열리었다라면 능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실물교훈, 133, 134.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함

◇명상의 말씀◇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 하리라’(사 25 :9).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인간이 당한 재난에 관한 소식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죄인이 범한 죄를 고백하는 말들을 들으며 그분께 용서를 구하라. 죄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은 영영토록 죄인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성소에서 자기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분을 자기 친구로 삼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해 온 자들은, 자신들의 기록된 죄 전부를 용서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정결케 된 그들은 영원히 순결하고 거룩한 채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시는데, 거기에 영광이 더해질 것이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오시며 거룩한 천사들이 모두 그분과 함께 그분 가시는 길을 호위한다. 그분의 거룩한 이마에는 찌르는 잔혹한 가시관 대신에 영광으로 빛나는 면류관이 그분의 거룩한 이마위에 얹혀 있다. 그 때 그분께서는 슬픔의 사람, 인간의 비애를 아는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용모는 대낮의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빛날 것이다. 그분께서는 평범한 외투를 입고 나타나시지 않고 눈부시게 밝을 뿐 아니라, 눈보다 흰 의복을 입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분께서는 죽은 자 중 의로운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 있는 성도들을 영광스런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모든 하늘 아래의 왕국들을 손에 넣으신다. 이 왕국에는 끝이 없다. 그 때에 그리스도를 꾸준히 기다려온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다.

만일 하늘에서 온 한 천사가 로마 군인을 죽은 자와 같이 넘어지게 하였다면, 그분과 함께 오는 천만 천사들과 그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준비되지 못하고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보고 견디어 살 수 있을까? 오! 죄인들이 이 광경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저들은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라. 그분이 나타나시면 그 때는 기뻐서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외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그대의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며, 그분께서 승인 하시는 영광의 음성까지도 들을 것이다. -청년 지도자, 1854.4.1.

“오늘날 주께서 큰 빛을 주신 사람들은 주의 길에 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의 뜻을 수행하실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는 것이 유일한 안전책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코 잘못이 없으신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의 안전과 지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감사히 여기고 거기에 유의하는 데 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만한 하늘의 지식을 받을 것이다. 지혜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순결하게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것으로 동료 인간들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의무를 받는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매 날 걸음마다 ‘이 것이 주님의 길인가?’ 하고 물어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땅에 의로운 대표자들을 갖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그의 특별한 은총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 이 대표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충성의 의미를 세상에 보여주며 신중하게 행함으로써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는 현명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원고 1, 1912.

“성경은 가장 강한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벧후 1:2, 3)고 말한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욘 22:21)고 명령한다.” -교회증언 5권, 742.

“단순히 경건을 공언하기만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끗하게 해 보려는 모든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만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을 고상하게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편지 13, 1893.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참 교육과 모든 참 봉사의 기초이다. 그것은 유혹을 방지해 주는 유일의 참 안전책이다. 그것만이 우리를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것은 동료 인간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이다. 품성의 변화, 생애의 순결, 봉사의 능력, 바른 원칙의 고수 등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달려있다. 그 지식은 이생과 내세의 생활을 위하여 다같이 필수적인 준비가 된다.” -치료봉사, 409.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나이다

개혁신미 315장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알지 못하였사오니
주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배우지 아니하였나이다.
땅의 일들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지나가는 시간의 사소한 일들,
주여, 우리에게 빛을 주시어 주님의 진리를 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 지혜롭게 하소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의 엄위하신 눈 아래에 몸을 굽히지도 않고,
행동과 말과 생각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기억지 못하였나이다.
주여, 주님을 가까이에서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의 은혜를 주소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관심도 없었나이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냉담하게 보았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순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아! 방치된 임무,
약간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활동,
패배하거나 거의 승리하지 못한 전투!
주님이여 열심을 주시고 능력을 주소서
주님이 수고하고 싸우실 수 있도록.

- 토마스.B.폴락